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 식당, 병원, 목욕탕, 숙박업소, 관공서,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온/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2월 1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210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스님노후복지

"늙은 것이 서럽다. 나이 들면 내 심정 알 것이야." 최근 현장에서 만난 한 노스님의 자조 섞인 말이다. 이유는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스님은 "이 가운데 한가지라도 갖춰졌다면 이런 생활은 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 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다. 건강이라도 좋으면 '뒷방'이라도 거처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난감해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노스님들은 몸이 아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선뜻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불교 스님노후복지 현주소다. 이러한 사실은 사부대중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승려노후복지의 수준은 지난해 조계종 교육원이 본말사주지연수회에 참석한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이 '승려노후복지대책(27.3%)'이다.

노후 보장돼야 수행-포교 전념

스님들의 노후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수행과 포교라는 본분사에도 지장을 준다는 것이 많은 스님들의 토로다. 수행과 포교보다는 노후가 걱정돼 스스로 노후대책을 위한 재정 및 거처마련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주지직 분쟁과 삼보 정재의 사유화 문제 등도 보장되지 않는 노후복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압도적이다.

모범적인 노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단은 진각종이다. 진각종은 65세이상 노스승들을 위한 기로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조계종과 몇몇 종단은 사찰단위에서 노스님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뿐 대체적으로 열악한 상태다.

스님들의 노후복지 정착을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복지전문가들은 법인설립을 비롯 양로원, 의료공제회 등 노후복지제도 정착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http://news.buddhapia.com
부다피아갤러리 http://gallery.buddhapia.com
부다피아쇼핑몰 http://mall.buddhapia.co.kr

장기 기증-화장서약 방생실천

도선사 '생명대법회' 2천대중 동참
장기기증 30명-사후 화장 678명 서약
생명나눔회-현대불교신문사 공동주최

불교 전통 장례의식인 화장 문화의 정착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천대법회가 교계 처음으로 열렸다.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수덕사 주지)와 본지가 주최하고 도선사(주지 동광)가 주관한 '입춘맞이 불공 및 생명나눔 실천대법회'가 4일 서울 우이동 도선사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됐다.

생명나눔실천회와 현대불교신문이 11월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캠페인의 첫 번째 행사인 이번 법회에는 사후 각막기증 등 장기기증 희망 서약자 30명, '나는 사후에 화장하기를 원합니다' 서약자 6백78명이 동참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입춘때 개인의 기복에 치우친 입춘기도나 산림법회를 벌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회는 방생도량 도선사에서 방생실천의 참의미를 되새기는 행사로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화장은 불교의 전통 장례의식이지만 많은 불자들이 이를 꺼려온 온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불자들의 의식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법회는 입춘 불공에 이어 동광스님과 법장스님의 특별법문, 본사 김광삼 사장의 인사말과 화장·장기기증 서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법장스님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은 '살생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제1 계율을 올곧게 지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일"이라면서 "생명을 나누는 행위는 아상(我相)을 버리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동광스님은 "장기기증 서약이나 헌혈증 기부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방생정신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일"이라며 "허망한 육신에의 집착을 버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인간방생을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삶을 나눕시다…' 캠페인은 △3월 자비참법기도를 올리는 울산 학성선원(원장 우룡)에서 △4월 지장재일에 맞춰 지장기도도량인 동송 심원사(주지 영도)에서 △5월 가정의 달에 효의 본찰인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차주 명단게재 등 상보〉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4일 입춘을 맞아 도선사에서 열린 '생명나눔실천대법회' 참가자들이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조계종 호계원 개원
초심호계원장 종걸스님

조계종 제3대 호계원이 5일 오후1시 개원됐다.

이날 개원식에는 총무원장 고산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을 비롯 호조계종 제3대 호계원(원장 월서) 개원식이 5일 오후2시 호계원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축사를 통해 "종단의 기본질서를 바로잡아 청정승가의 가풍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호계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개원식에 앞서 초심호계원은 회의를 열고 초심호계원장에 화엄사주지 종걸스님을 선출했다. 사무처장에는 원행스님(안국사 주지)을 선임했다. 조계원 호계원은 초심위원 7명과 재심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사법심판 기구다. 임연태 기자

불교정보망 달마넷 4월 가동
조계종 전산화 발표…올 5백사찰 홈페이지 제작

불교종합정보망 '달마넷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조계종은 2일 관련 업체인 데이콤, 이현데이타 시스템 등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각종 불교관련 자료를 데이콤은 달마넷 프로젝트 추진 비용(10억)을, 이현데이타시스템은 정보구축과 운영을 담당키로 하고 실무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조계종은 올 4월 달마넷 정보서비스를 시작해 금년말까지 순차적으로 서비스의 폭을 넓혀 갈 방침이다.

조계종은 5일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교육원장 정련스님을 비롯 중앙종무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종무행정 표준화 및 전산화'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조계종은 설명회에서 "금년내로 5백여 사찰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본말사간 행정의 온라인화등 정보화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용중인 종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와 기술적 보강을 꾸준히 하며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 특별 서비스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교구본사 주지회의
11일 조계종 총무원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회의가 11일 오전 11시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총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또 금년 예산의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중앙신도회 운영 등 현안들을 토론 할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2월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혜초스님의 달'입니다.

신라의 대표적인 구법승으로 중국밀교의 정통 맥을 이은 혜초스님(704~787)은 세계에 알려진 인물이면서도 그동안 스님의 구법행적과 사상이 구체적으로 조명되지 못해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2월 혜초스님의 달을 맞아 본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밀교종단 진각종과 공동주최로 오천축국을 여행하면서 부처님의 자취와 그곳의 역사 풍물 등을 기록으로 남긴 위대한 한국인 혜초스님의 발길을 창작 국악교성곡으로 찾아나섭니다. 시인 장지현정사의 가사에 젊은 작곡가 김희경씨가 작곡한 국악교성곡 '혜초'는 불교계 연합합창단 250명과 남성합창단 30명, 중앙국악관현악단이 참여하는 감동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7면〉

혜초스님 구법의 생애 그린 감동의 무대

27일 오후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일시: 2월 27일 오후 7시(1회 공연)
△장소: 서울 국립중앙극장 대극장
△출연: 청룡사 불광사 길상사 묘각사 조계사 청년회 인천보명사 중앙불교, 진각 합창단, 수원포교당 합창단, 중앙대 남성합창단 중앙국악관현악단 유승엽씨 ('선율악 혜초' 오카리나 연주)
△공연·예매 문의: 진각종 문사부 (02)913-0753 현대불교 편집국 (02)722-4162

주최: 대한불교 진각종·현대불교신문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btn·BBS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

파계사 영산율원 3월 25~30일 '비구계본' 특강연다

구족계를 받은 비구들이 지켜야 할 계율인 250계를 묶은 '비구계본' 특강이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열린다.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 특강에는 이미 정원 20명의 절반인 10여명이 접수를 마쳐 계율에 대한 승단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영산율원장 철우스님이 비구계 수지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하는 이 특강은 부처님 출가일(3월 25일)에 때맞춰 열려 출가자의 본분사를 거듭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영산율원은 이번 특강을 무료로 진행하며 교재도 제공한다. 참가자는 가사장삼과 발우만 준비하면 된다. (053)982-0595

'비구계본' 특강은 지난 95년 2월 곡성 태안사에서 종진스님(해인사율원장)이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4년만에 열리는 강좌다.

영산율원은 연중 1회씩 실시하는 이 강좌에 대한 반응이 좋을 경우 강좌 회수를 늘여나갈 계획이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생명의 玉 신비의 玉

天然의 健康寶石 岫岩玉 (수암옥)

건강과 행운을 가까이에 수암玉의 신비로움과 고귀함을 느껴보세요.


옥 염주 세트 (가격:98,000)


천연옥 마사지 겔 (가격:49,000)


만옥 팔찌 세트 (가격:49,000)


옥 바둑돌 (가격:295,000)


수라옥 다기 (가격:158,000)


수라옥 반상기 (가격:18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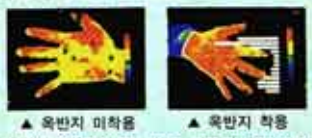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산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 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 옥을 2300여년 전부터 내려와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불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백옥구폐'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 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며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 있다.

연옥은 인체에 필수 미량원소(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등)들을 머리털과 같은 섬유질과 그리스탈의 미립집합체로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주성분(대한 광물 진흥 연구소)
-K2O, CaO, MgO, Fe2O, FeO, SO3, SiO2, Al2O3, Na2O, MnO

연옥제품 착용시 적외선 체열 진단 사진


▲ 옥반지 미착용 ▲ 옥반지 착용

오른쪽의 손사진은 연옥 사용인 이홍주(고분자 연구실 55세) 왼쪽의 손사진은 연옥을 사용하지 않은 손 김희(30세) 연령차이에도 불구하고 건강상태의 현저한 차이를 사진으로 볼 수 있다.

• 제조원 : (주)한일 의료기
• 주문처 : 02-732-1522 / 737-8881

사 설

화장 권하는 까닭은

본사(本社)는 올 한해 동안 생명나눔실천회와 공동으로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캠페인을 벌인다. 불교 전통장례의식인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생명을 나누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에 그 첫 행사로 서울의 방생도량 도선사에서 입춘기도에 동참한 2천여 불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법회를 열었다.

불자가 화장을 받아들이고 사후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불교의 전통에서나 교리적 측면에서 볼때 자연스럽고 타당한 선택일 뿐 그렇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불자가 화장을 선택하는 것은 국토이용율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 바로 호국불교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또 사후에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사신공양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숭고한 보살행의 모습임에 틀림없다.

국토가 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보아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은 국가발전의 중요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도 국토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묘지의 점유면적을 줄이고 한편으로는 화장하는 방향으로 계도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까닭은 매장을 선호하는 유교적 전통과 육신의 부활을 가르치는 기독교의 영향,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은 두 번 죽는 것이란 심리적 부담감, 나아가 조상의 묘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성공한 후손들의 미덕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습이 이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이라 본다.

우리의 좁은 국토가 매년 여의도 넓이만큼씩 묘지로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장례의식으로서 매장이나 화장은 단순히 개인의 자발적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겠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가 후손들에게 화장해 줄 것을 유언한 사건은 매장을 선호하는 우리의 사회적 관습에서 볼때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사건 이후 화장을 선호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울시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화장을 희망한 사람들을 종교별로 비교해 본 결과 타종교인(가톨릭 81.4%)들에 비하여 불교인(60.2%)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고 한다.

사실 불교의 장례법은 부처님 당시부터 화장을 원칙으로 삼아 왔다. 그러한 원칙은 지금도 승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불교신도들은 매장을 선호하고 있으니 불교의 신행형태가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자기가 믿는 것을 자신의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불교신도들의 이중적 신행형태는 불교발전을 위해서나 불자들이 국가발전의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과제이다.

불교가 아무리 무상과 무아를 말하고 보살행을 외쳐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공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자 개개인의 각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앞으로 이 뜻있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의 단위 사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신행단체 군포교에 관심

법당건립-물품지원-위문행사 등 활동 다양

군장병 포교를 중점사업으로 활동하는 신행단체가 늘고 있다.

신행단체들은 군법당 건립에서 물품지원, 위문, 자원봉사활동, 도서나 교계신문보내기 사업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군불자 포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8일 강원도 22사단을 방문하여 첫 군부대 위문행사를 갖는다. 교불련은 창립 2년을 맞는 올해의 중점사업을 군부대 위문행사로 정했다. 또 목동 법안정사 부부불자모임(회장 이종호)도 6일 회의를 갖고 올해부터 회비를 매달 군법당을 찾아 장병 위문행사에 사용키로 했다.

심우회(회장 김명원)와 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회장 윤동수)는 군법당건립이 적극 나서고 있다. 성불회는 소모임을 만들어 매달 마련한 불사금을 군법당에 보내고 있다. 심우회는 21일 전군사단중 유일하게 법당이 없던 경기도 7군사단 호국철마사 법당준공식을 봉행한다.

고양시 보현가족(회장 이일심명)과 대불청 경기지부(지부장 문성열)는 훈련소 군법당을 찾고 있다. 보현가족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9사단 신병교육대 늘푸른법당에서, 경기지부는 매주 일요일 51사단 훈련소법당인 호국달마사를 찾아 훈련병들을 위문하고 있다.

군부대에 불서와 신문을 보내는 단체도 있다. 충북예비역불자연합회(회장 이만호)는 93년 창립이후 불서보내기 운동을 펼쳐 12만여권을 보시했다. 신수회(회장 이영자)도 하루찻집을 열어 1차로 법보시기금 1백62만원을 12월 7일 본사에 기탁했다.

향지모임(회장 양춘연)은 올해 '군법당에 차한잔보내기' 캠페인을 벌인다. 군법당 지원운동으로 일반사찰에서 쓰고남은 향, 초를 수집하기도 한다.

(0355)832-0719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심우회 회원들이 군부대 훈련소 신병들에게 '아버지가 걸어주는 단주'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30일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올 예산과 사업을 승인하고 화합을 다짐했다.

"해외교류사업 적극 추진"

종단협 총회서 올 사업-예산 승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는 금년 예산을 4억여원으로 책정하고 각종 지원사업과 해외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종단협의회는 1월 30일 한국의 집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 사업과 예산을 확정했다.

25개 회원종단 20개 종단대표와 이사등 90여명이 참가한 이날 총회에서 종단협은 일부 회원종단의 종단진흥회 활동 등 걸끄러웠던 관계를 일소하기로 했다. 조계종측 이사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조계종측 이사1명, 감사1명이 사퇴를 한 가운데 종단협은 신임회장인 고산스님을 중심으로 화합으로 불교 위상을 고양 시키자고 다짐했다.

법회·일반사업 이날 종단협이 승인한 사업은 모두 14건. 종단협은 참여 종단 전체가 참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갖기로 했으며 이에따른 예산은 4천만원을 배정했다. 남북불교교류위원회, 환경보존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인권위원회등 위원회 활동을 통한 불교의 대사회적 대응 사업도 중요한 사업으로 2천만원의 예산을 쓸 계획이다.

지원사업 종단협은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북한등포 지원사업과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구호사업도 폭넓게 벌인다는 방침아래 각각 2천만원씩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난해 개최한 국난극복대법회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각종 기획행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규사업 종단협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승단 발전 연구사업'을 추진, 무분별한 종단 난립과 탁발행위 등의 근절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종단협은 이날 총회에서 기타안건으로 종단난립과 탁발행위 단속 등을 위한 조사단 구성 등을 의결하기도 했다.

해외교류사업 해외교류사업으로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위원회 설치 및 대표단 초청, 한국불교수행체험 중국대표단 초청 등이 계획됐으며 4천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종단협은 작년 10월 29일 북경회의에서 합의된 3국 식목행사를 오는 4월 3일 실시키로 했다.

종단협은 총회에서 미납회비 97년도 분까지는 탕감해 주기로 했으며 불교합창단 연합회를 부설단체로 등록키로 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백양사주지 다정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3일자로 제18교구 본사 주지에 다정스님을 임명했다. 다정스님은 64년 백양사에서 장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67년 해인사에서 희수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10대 중앙종회의원과 개혁회의 의원 등을 역임했다. 임연태 기자

국립공원 구역 조정 사찰 소유토지 제외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20개 전국국립공원 지역을 자연보존지역, 자연보호지역, 시설이용지역 등 13개 유형으로 분류해 구역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공원지역 주민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관련 작업을 벌여 지난해 11월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작성'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환경부의 공원구역 조정은 국립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발허가 등에 따른 민원 해소와 공원 지역의 자원가치 평가를 위해 실시된다. 환경부는 구역조정과 함께 효과적인 공원관리와 지정기준, 주민불편 해소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원 조정과 관련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4.90%를 차지하는 사찰소유지에 대한 조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사찰소유지 전체가 개발이나 규제완화와 관련 없는 보존 및 보호지역이기 때문이란 것이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임연태 기자

조계종 교육-포교원 인사

교육부장-계성스님 포교부장-현진스님 포교연구실장-화암스님



◇계성스님



◇현진스님



◇화암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스님은 2일 계성스님(전등사 총무)을 교육부장에 임명했다. 계성스님은 81년 해인사서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교육원은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 지호스님을 임명했다.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2일 포교부장에 현진스님(여의도포교원장)을 임명했다. 이어 3일에는 부장급인 포교연구실장에 화암스님(봉선사 총무국장), 포교국장에 법경스님(분당 기원정사 주지), 연수국장에 동윤스님(용주사 교무국장), 포교연구실 사무국장에 법성스님(유임)을 각각 임명했다.

현진스님은 67년 화계사에서 법인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70년 비구계·보살계를 수지했다.

화암스님은 71년 월정사 성암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75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계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재가불교운동 조직화' 한목소리

범불교재가연대 7개도시 순회 간담회

"전국적인 조직을 통해 재가자들의 힘을 키우자"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가 1월 8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청주, 충주, 광주, 전주 등 전국 7개 도시를 돌며 진행한 제1차 순회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재가불교운동의 조직화와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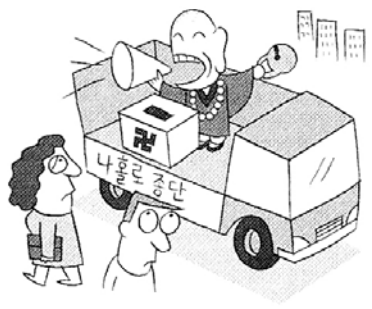
대전간담회에서는 진여회, 보현불교대학, 대불련 대전동문회 등이 가입했으며, 충주간담회에서는 우리는 선우 제천모임, 제천거사림회 등이 재가연대에 새롭게 합류했다.

재가연대 손상훈간사는 "이번 간담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으나 재가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차후 2차 순회 간담회 등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재가연대 활동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탁발 이제그만…

포교현장의 법사양성 (3년과정)

'99학년도 경전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 일	과 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화요일	잡아함경 능엄경(7,8권)	최봉수(동국대) 송찬우(승가대)	부처님이 설파한 진리의 원음의 보고 잡아함경 대승경전중의 수행요체의 정화인 능엄경7,8권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해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등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과목별 이수 희망자 ④포교사 취득자	①입학원서1통 ②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자기소개서 1통	99년 2월 1일~ 99년 3월 6(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개강일시 · 1999년 3월 8일(월) · 9일(화) 오후 7시

4.입 학 금 · 일십만원

5.졸업자격 · 3년과정의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찬 경전을(매주 2강좌) 이수자에게 연구원 졸업장(전법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 본 연구원 사무국(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732-1206~8, FAX 732-1207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 2회(매년 2월, 8월)

■ 모집정원 : 150명

1 교과목

1학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반야사상법화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화엄사상
2학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종사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2 정규반, 통신반 개설

3 문 의 처 : ☎732-1206~8/FAX 732-1207

4 특전사항 :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1999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 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9년 3월 6일 (토) 오후 2시

지도법사 :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 아침 · 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 · 돌 ·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 · 매장 · 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장	99년 2월 6일(토) ~3월 5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00~3:00 (동산법당)

3.입 학 금 · 일십만원

4.원서교부 ⊙ 본교육원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100-170)종로구 견지동 13번지

5.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천태종 금강불교대 내년 개교

교계 대학설립 준비현황

새로운 세기 불교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과 대학원대학설립 불사가 추진되고 있다. 천태종이 내년 정규대 개교를 목표로 대학설립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태고종과 보문학원도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태고종과 천태종, 보문학원은 96년 교육부의 대학설립 자율화 방침이 발표되면서부터 정규대학과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해 왔다. 97년 대학설립인가를 받은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4년제 정규 단과대학인 금강불교대학을 2000년 3월1일 개교할 계획이다. 금강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동양철학과 2개학과에 입학정원 각 50명씩 1백명(총정원 4백명)으로 문을 연다. 이에따라 천태종은 이미 충남 논산에 2만46㎡(6천7백50여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금년내로 교사신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천태종의 한 관계자는 "금강불교대학은 천태종 승려 양성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이땅의 인재 육성을 위해 개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천태종은 금강불교대학 입학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종비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96년 2월 대학설립인가를 받았던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지난해말 정규대학 설립을 포기하고 올해 다시 '동방불교대학원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동방불교대학은 교양대형식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태고종은 경기도 용인지역에 대학설립을 추진했다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에 따라 서울·경기도내 대학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와 난관에 부딪쳤었다.

동방불교대학 홍성복 교무처장은 "정규대학대신 현재의 총무원 건물을 학사로 활용할 수 있고 수익용재산 5억원만으로도 설립 가능한 대학원대학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고종은 종단 사찰재산전용, 종도성금, 동문성금 모금 등을 통해 소요자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방불교대학원대학은 우선 불교학과 단일 석·박사 과정(총정원 1백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방불교대학원대학이 원활히 운영될 경우 범패과와 불화과를 증설, 불교문화전문대학원대학으로 특화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보문학원(이사장 덕혜스님)은 '한국불교대학원대학' 설립 계획을 세우고 96년 교육부로부터 법인정관변경인가를 받아놓고 건립기금 조성에 진력하고 있다. 보문학원은 98년 3월1일에서 99년3월1일로 한차례 학교설립인가를 연기신청해 놓고 있으며, 2002년내에 서울 서초구 일대에 '한국불교대학원대학'을 설립할 방침이다. 1천80여평의 부지에 불교학과 단일학과로 문을 열 한국불교대학원대학은 종립 보문중학교, 보문고등학교를 거친 청소년들이 한국불교대학원대학에서 불교전문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마스터플랜 아래 추진된다.

태고종, 천태종, 보문학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들 학교는 대학교육의 보편성과 함께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1세기 불교인재양성의 새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태고종 정규대 포기 '동방불교대학원' 추진
보문학원 '한국불교대학원대학' 기금 조성



◇ 태고종·천태종·보문학원이 대학과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이 위치한 태고사.

작년 11월 실시 포교사 고시
'8번 문항' 놓고 의견분분
승가해석 '출가 2부중' - '4부대중' 논란

지난 해 11월 실시됐던 조계종 포교사 고시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지선다형 8번 문항. 상가(samgha. 승가)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예문으로 '①출가자와 재가신자로 구성된다 ②4부대중으로 이루어진다 ③불교 이전의 의미는 공화국이나 조합이다 ④불탑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가 제시됐으며, 정답은 4번이다.

그러나 상가는 출가자와 재가신자로 구성된다거나, 사부대중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상가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해석일 뿐이지 맞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대지도론' 제3권에서는 상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많은 스님들이 한 곳에서 화합하는 것을 승가라고 부른다. 비유컨대 큰 나무들이 떼를 지어 모여 숲이 되는 것과 같다. 낱낱의 나무를 일컬어 숲이라고 하지 않으며, 낱낱의 나무를 제외하여도 숲이 되지 않는다.…여러 스님들이 화합하기 때문에 승가라는 이름이 생긴다."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은 "전통이 곧 정통은 아니다"며 엄밀한 해석을 요구했다. 홍 주간은 "승가가 사부대중으로 구성되었다면, 재가 2부중에게도 적용되는 율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승가는 출가 2부중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주간은 또 "신념이나 학설, 주장 등을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혼동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승가가 4부대중의 공동체라면 율장의 규약은 재가자도 따를 수 있도록 느슨해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승가는 비구, 비구니 2부중을 말하지만, 역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승가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넓게 해석해 4부대중으로 불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문제를 출제한 포교원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 승가를 넓게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사부대중이 종단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홍 주간은 이밖에도 '야사의 부모의 귀의'를 '출가'로, '고구려 최초의 사찰은 초문사'를 '성문사'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단의 권위를 반영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인식해 문제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윤 기자(swjung@buddhapia.com)



◇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이원우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부터 정부의 대불교계 공약에 대한 입장설명을 듣고 있다.

"대장경전산화 계속 지원"
97년 대통령선거 불교계 공약
"중앙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어렵다"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불교계에 공약했던 사항들에 대한 정부측 입장이 조계종에 전달됐다.

이원우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은 2일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 1월 21일 고산스님과 증앙종회의장 법등스님이 김대중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달한 불교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전달했다.

-문화부문 예산의 1%확보 및 불교문화재 보수 지원 예산의 증액

△99년도 문화부문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의 0.7%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불교문화재 보수 예산도 97년 160억, 98년 206억, 99년 21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찰 주변의 개발 방지

△전통사찰 보존법의 개정 등으로 불교계 의견을 대폭 수용해 왔다. 향후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반영 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

-사찰문화재 도난방지

△도난방지 시설설치 권장과 사찰 유물전시관 건립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범인 검거 및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전담 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 사찰문화재 수사 전담반 운영도 검토하겠다.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허용 및 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감면

△현재 법제처가 심의 중인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까지 처리할 계획이다.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계속 협의하겠다.

-중앙성보박물관 건립 지원

△타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중앙성보박물관 건립 예산 지원은 어렵고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황룡사지 미륵사지 등 복원

명확한 고증과 고건축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후 복원 여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려대장경 전산화 사업 지원 확대

△내년을 사업 완료시점으로 정하고 계속 지원할 방침. 총 사업비 54억 중 국고부담이 27억인 점을 감안, 금년 지원 예산 10억8천4백만원 포함해 그간 19억3천8백만원이 지원됐다.

-동국대학교 불교종합병원 건립 관련 의료시설 지원금 지원

△경기도 일산 지역에 설립중인 동국대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병원건립 재정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융자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함.

임연태 기자(ytlim@buddhapia.com)

목어
불교TV 살리는 길

부산 수영구는 10원짜리 동전 100만개를 모아 실직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고 생계비도 지원했다.

1천만 불자들이 10원씩 모으면 1억원이 된다. 100원씩 모으면 10억원, 1000원씩 모으면 100억원이 된다. 100억원이 있으면 지금 교계에서 가장 시급한 발등의 불을 끌 수 있다. 부도위기에 처한 불교TV를 살리는 일이다.

우리 1천만 불자들은 불교TV를 살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불교TV는 많은 사람들을 제한없이 교화할 수 있는 법당이고 법사이기 때문이다.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면서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원한 사람이다. 불자는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눠야만 보살일 수 있다. 따라서 불자가 법을 전하고 법당과 법사를 외호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불교TV를 살리는 일은 절을 세우고 종을 주조하는 불사보다 수승하다. 도심과 산중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 늘 법당을 열고 법향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자들이 어찌 이 일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을 것인가. btn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불자들은 속수무책인양 바라만 보고 있다.

나서야 한다. 1천만 불자가 다 천원짜리 한장씩을 들고 나서야 한다. 남은 일은 그 일을 누가 주도하느냐다.

불교계에는 조계종을 비롯 25개 종단이 모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있다. 종단협의회는 종파를 초월하여 천만불자를 결집, 불교TV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각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에서부터 어린이 불자까지 빠짐없이 천원모금에 나서, 한국불교의 저력을 보여주자. 만약 여기서 불교TV가 주저앉는다면 한국불교는 21세기를 말할 자격이 없다. 사이버 법당을 만들고 멀티미디어 포교를 해야할때 TV포교를 포기한다면 시대를 거스르거나 시간을 멈춰놓는것과 다르지 않다.

천만불자가 천원씩 모아 불교TV를 정상화시키면 그 천원은 그냥 천원이 아니다. 법당을 세워 수많은 대중에게 법을 공양한 가피의 천원이다.

"보살은 온갖 여래의 가르침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위해 발심하며,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킨다"〈화엄경〉

천만 불자여러분, 천원 투자로 부처님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98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1998년 한 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98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98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그리고 신행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에게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 수록내용: 1998년 1년분(157호~204호)
- 가 격: 1권 60,000원(우송시 5천원 추가)
- 은행입금: 국민/023-25-0007-617 농협/053-01-227471
  우체국/010041-0255243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문 의: 기획관리부 (전화 02-737-8881)

기도의 영험이
적멸보궁의 방광(放光)으로 현현하는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1983년 9월 24일, 동생과 철야기도를 하기 위해 법흥사 적멸보궁에 갔다. 암선고를 받고 부산에서 왔다는 보살님 내외와 철야기도를 하다가 새벽 2시 45분쯤, 세수도 하고 다기물도 갈기 위해 보살님 내외와 보궁 뜰로 나왔을 때였다. 보름이 지난 지 한참이라 캄캄하던 사방이 순식간에 환한 빛으로 휩싸였다. 번개가 칠 때처럼 밝은 빛이 한동안 사자산 연화봉 쪽에서 비추는 것이었다. 암선고를 받고 기도중이라는 보살님은 적멸보궁의 부처님 방광을 목격하고 기도의 가피로 건강해졌다고 했다. 나는 그 이후 불자로서 이웃과 더불어 보살행을 닦으며 살고 있다. — 제천에서 권 대도행 —

부처님을 참배하기 위해 법흥사 적멸보궁에 간 것이 1978년 4월 21일이었습니다. 함께 간 일행 9명 중에 적멸보궁에서 기도를 하던 7명이 적멸보궁 위 연화봉에 비추는 방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색 영롱한 빛이 오렌지색 또는 황금색으로 보이기도 하였고, 소나무가 몇 그루 서 있었는데 밝은 광채 때문인지 나무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20분경이었는데 약 1시간 반 동안 기도 중이던 우리 일행을 비추었습니다. 이때의 방광은 우리 일행 외에도 인근 마을에 불일이 있어 나갔던 이진수 씨가 보았는데, 절에 불이 난 줄 알고 급히 달려와 보니 요사채는 환한 광채에 뒤덮혀 있고, 요사채 보살은 깊히 잠들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놀라움과 장엄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 부산에서 박상준 —

대한불교 조계종 **법흥사**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422-1 전화 (0373) 374-9177 · 팩스 (0373) 374-9178

• 천일 기도 기간 내내 기도 동참 및 10만등 불사 접수를 받습니다. 직접 또는 전화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사자산 적멸보궁 법흥사
중흥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및 10만등 불사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이자
신라 구산선문 가운데 사자산문의 개산 도량이었던 법흥사가
기울어가는 국운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모아
중흥 불사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번의 중흥 불사로 거듭나게 될 법흥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희망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2001년 9월 20일(음) 회향

법흥사의 중흥불사는 온 국민의 동참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나라의 흥륭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는 창건정신에 투철할 것이며
참배와 기도를 위한 불자들에게는 내집처럼 편안한 정신적 귀의처가 될 것이며
21세기의 인류를 위해서는 선불교 중흥도량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교차로

모범교사에 표창패 수여



일면 광동학원이사장(조계종 교육원장)은 12일 광동중·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모범교사로 추천된 이강석(광동중 수학)·신택용(광동종고 국어)·박성기(광동여고 일본어) 씨등 교사 3명에게 표창패 및 상금 1백만원을 수여한다.

동화사 영산전 탱화점안



성덕 동화사 주지는 1일 영산전 후불탱화 및 16나한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캄' 우나롭사원 방문



지원 삼보사 주지는 1월 25일~30일까지 삼보사 국제문화교류위원 12명과 캄보디아 프놈펜 우나롭 사원을 방문하고, 의류와 학용품 위문금 등을 전달했다.

日 2·8선언 80돌 행사참석



진관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스님과 도관 불교인권위원회 사무처장 스님이 8일 일본 YMCA에서 열리는 '2·8 학생 대한독립선언'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 스님은 20일 귀국한다.

용화사서 대장경 후원법회



종림 고려대장경연구소장은 7일 인천 용화사에서 사부대중 1천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팔만대장경 캠페인 후원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봉축행사 주관처 모집



심산 부산봉축행사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마련하고, 사찰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주관처를 모집한다. (051)867-0501

양지마을에 팩스·의류 전달



운달 공주 미타암 주지는 신도들과 함께 설날을 맞아 7일 양지마을을 방문, 내의 2백벌, 쌀 2가마, 팩스기 1대 등을 전달했다.

복지공로 서울시 표창 받아



각우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은 결식아동 및 불우노인 지원사업을 적극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향상에 공헌한 공로로 1월 25일 서울시 표창장을 받았다.

서예 4백17점 고려대 기증

김응현 옹(서예가)은 4일 자신의 서예작품 1백91점과 다른 작가들의 소장품 2백26점 등 4백17점(시가 1백억원 규모)의 예술품을 모교인 고려대에 기증했다.



中 국청사 학술조사후 귀국



이영자 동국대 교수는 '대각국사 의천' 관련 학술자료 조사를 위해 1월 15일~24일 중국 국청사 등을 방문하고 귀국했다.

문학평론가협 총회장에



홍기삼 동국대 국문과 교수는 1월 30일 열린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총회에서 제7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LA등 美 현대건축물 답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는 이상건축 초청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을 도는 현대건축물 답사를 위해 20일 출국한다.

전국신도회 사무총장에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은 2일 사단법인 조계종 전국신도회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어린이 도서관 개원

이가을 불교 동화작가는 최근 경기도 분당 이매촌에 사제를 털어 20평규모 열람석 12석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개원했다. (0342)706-0677

종단협 국난극복법회 공로 본사에 감사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고산스님은 1월 30일 제35차 종단협 정기총회에서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과 불교방송 성낙승 사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감사패는 지난해 8차례에 걸쳐 봉행한 국난극복법회에 두 언론사가 적극 지원한데 따른 것. 감사패를 받은 김광삼·성낙승 사장은 "불교 발전을 위해 매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이웃 고통 함께 나눠야죠"

'자비의 쌀 모으기' 태고종 사회부장 호명스님



태고종이 경제한파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나섰다. 1월 11일부터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에 착수한 태고종은, 4일 입춘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첫 수거법회를 가졌다.

"종단차원에서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비의 쌀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총무원 사회부장 호명스님의 말이다.

스님은 "쌀 모으기운동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나누는 기쁨을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데 큰 뜻이 있다"면서 "보다많은 종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비의 쌀 나누기 운동'은 설날과 부처님오신날, 백중, 연말연시 등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수거된다. 수거된 쌀은 각 종무원별로 지역내 실직가장과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무의탁노인을 위해 쓰여진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화장문화 선도 조성범·최복선씨

조씨 봉분형 납골묘 발명특허 출원

최씨 1만평에 가족 납골공원 조성



◇조성범씨



◇최복선씨

화장문화를 선도하는 두 불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한민족 납골묘'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성주개발 조성범(36) 대표이사와 최근 서울 서초동에 납골문화전시장을 개설한 최복선(49·보현행) 라경장수탑컨설팅 사장이 그들.

탱화작가이기도 한 조성범씨는 최근 화장후 남은 유골을 납골 항아리에 담아 특수 제작된 납골 안치장에 모시는 봉분형 납골묘인 한민족 납골묘 발명특허를 출원했다. 이 납골묘는 석실과 외실로 구분된 왕릉형태의 이중구조로서 석실아래 흙으로 제작한 배수관을 통해 석실 내부 누수 및 결로(結露)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 약 1.3평의 면적에 12구의 유골을 안치해 경제적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조상을 한 곳에 모셔 선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제례문화를 계승함은 물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집단납골시설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조씨의 말이다.(문의 02-3275-0120)

최복선(49·보현행·라경장수탑컨설팅 대표)씨는 "화장 유언을 남기는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유해를 모시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5억여원을 들여 납골문화전시장을 개설했다.

부모님의 장수를 비는 마음으로 수의를 만드는 것과 같이 납골묘를 조성하는 것이 백마디 말보다 효과적이라는 의미에서 였다.

그래서 최씨는 경기 양수리 용수사 주지 임엽(96)스님과 함께 1만4천여평의 부지에 장수천불동산(02-588-7800)을 조성하고 있다. 지장보살상의 좌대부위에 가족 납골탑 등을 모시는 방법으로 납골탑묘원을 건설하고 사찰에서는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원 등을 건립해 산자와 죽은 자의 광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광명 되찾고 싶어요"

하현수군·차명식씨 호소



실직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은 불자 차명식(36·경남 진주시 거평동)씨와 하현수 어린이(8·경남 통영시·사진)가 '화농성 홍채질환'을 앓고 있으나 2백만원의 수술비가 없어 불자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 성금을 기탁할 분은 새생명광명회(0591-758-6611)로 연락하면 된다.

최재구씨 49재 현성정사서



98년 12월 28일 숙환으로 별세한 최재구씨의 49재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홍은동 현성정사에서 봉행된다. 최씨는 동국대 경기대 교수, 동국대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8, 9, 10, 1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국회의원시절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불교청소년회 명예회장, 월간 〈불교사상〉 회장, 대한체육회부회장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019)322-3548



가산불교대사림 출판기념회

가산불교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은 1월29일 서울 타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가산불교대사림(伽山佛敎大辭林)〉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이종찬 국가정보원장 김광삼 현대불교사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박철언 부총재 고산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2일 박철언 자민련부총재(자민련불자회회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박부총재는 "종단 사태의 후유증을 극복하며 안정을 되찾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종도들이 합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언론인회 회장단 고산스님 예방

한국불교언론인회 회장단은 4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 불교발전과 언론의 역할 등에 대해 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신광식회장(방송개발연구원사무처장)과 강신철(경향신문편집부국장) 최정희(현대불교편집국장) 부회장, 김대곤사무처장(한국경제마케팅부장)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무원 상반기 연수회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상반기 연수회가 1월 29, 30일 이틀간 강원도 원주 자연학습원에서 열렸다.

종무원들은 연수에서 '종무원 자질향상과 업무활성화'를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각 부서간의 긴밀한 업무협조, 단합 등을 통해 종단 안정과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종무원들은 치악산 상원사를 참배하기도 했다.

이전안내

「불교이벤트」가 "불교이벤트 선우기획"으로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기묘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IMF체제라는 전대미문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교이벤트 선우기획"을 아껴주신 대덕스님과 불자제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불교방송 지하 1층에 있던 사무실을 지상 8층으로 확장 이전하고 "불교이벤트 선우기획"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교계의 발빠르고 성실한 마당쇠가 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산업의 주도하는 정보화 시대입니다. 시대가 급변할수록 우리 불교계의 역할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불교이벤트 선우기획"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발맞추어 작은 힘이나마 불교계의 각종 행사이벤트, 홍보활동, 디자인, 출판, 법률, 세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드리고자 힘을 모았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을 서비스 해 드리는 성실한 불자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불교이벤트 선우기획의 주력 서비스 부문

1) 교계의 각종 행사이벤트 기획 및 대행
- 종단 및 사찰의 주요 법회행사, 서화전, 도예전 등 행사 기획 및 대행

2)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
- 종단 및 사찰별 CIP 기획 제작
- 캐릭터 개발
- 카렌다 주문 제작
- 사찰 이미지 부각 공익 광고물 기획 제작 (사보, 신문, 잡지, 사찰용 각종 인쇄물 기획 제작)
- 봉축현수막, 불교용품, 행사용 각종 현수막, 배너 제작
- 신문·잡지 광고 제작 및 포스터·카탈로그 제작

3) 불교 서적 출판
- 불교 서적 편집 출판
- 불교 관련 전자 서적 제작 (CD-ROM TITLE, VCR)

4) 컨설팅
- 사찰의 법률 관련 자문 (전문 법률고문 위임)
- 사찰의 세무 회계 관련 자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 B/D 불교방송 8층
전화: (02) 716-7790~1 / 전송: (02) 716-7792

불교이벤트 선우기획
대표 정 영주·임직원 일동 합장

'99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972년 9월에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대중불교의 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불교전문교육의 요람지로서 2년제 야간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포교사 자격고시대비생 (교리 및 의식교육) 불자
3. 강의시간 주4일 수업 (오후 7시부터 ~ 8시 30분까지) 4. 교육과목 20개 과목 년간 총 28주 교육

학 년		교 육 과 목
1 학 년	1 학 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 학 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 학 년	1 학 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2 학 기	◇기신론 사상 ◇천태사상 ◇화엄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학기 : 의식이론 및 실습교육 / 동·하계스쿨링교육(특강 및 의식실습 실시)
※ 교수진 :
권기종교수(동국대) 강건기교수(전북대) 권탄준교수(동국대) 장희옥교수(동국대) 최종석교수(동국대)
최봉수교수(동국대) 김사업교수(동국대) 김종명교수(동국대) 김응기교수(동국대)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2월 28일 18:00까지(본대학 서무과)
6. 제출서류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서무과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직장직능단체 활성화 '청신호'

조계종, 단체장 간담 · 연수회등 예산 지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직장·직능단체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포교원은 이를 위해 1천22만원의 예산을 책정, 직장·직능단체장 간담회와 2개단체를 선정하여 연수회를 지원키로 했다.

4월경 열릴 예정인 직장·직능단체장 간담회는 60여개 단체장을 초청, 현장의견 청취 및 직장불자회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금융단, 공무원, 법조인, 방송·언론인등 직능단체 연합연수회를 포교원이 후원하여 1박2일간 2회 열기로 했다.

또 자체수련대회 등 행사가 열릴 경우 포교원 담당자가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불교입문' 단행본 등을 제공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포교원의 이같은 계획은 올해 긴밀한 연대와 협조로 직장·직능단체 운영을 정상화하고, 단체간 정보교류를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것. 이는 전국 직장·직능단체연합회 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차원으로도 풀이돼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직능단체의 경우 연관단체와의 교류가 절실하다. 사진은 세무사 불자회원들의 입정수련모임.

포교원 김병주계장은 "단체장 간담회와 연수지원을 통해 침체된 직장불자회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이다"며 "올해 2곳의 직장·직능단체 연수회 지원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기독교계는 직장·직능단체연합회의 법인설립은 물론 신문까지 발간하고 있으며 연합회관 건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계의 한 관계자는 "타종교의 경우 직장·직능단체를 선교의 최적대상으로 생각하여 담당 목사와 신부를 배치하는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계단체에 스님이나 전담 포교사를 보내는 방안과 법회와 수련회 공간을 제공해주는 현실적인 난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식욕은 인간의 근원적인 본능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⑥

찰밥 벌식에 오후 입선 10여명 결석
多思는 정신 죽이고 포식은 육체 죽여

■11월15일 본능과 선객

상원사의 동짓달은 매섭게 차갑다. 앞산과 뒷산 때문에 밤도 무척이나 길다. 불을 밝히고 먹는 희멀건 아침 죽이 굴맛이다. 오후 다섯시에 먹은 저녁은 자정을 넘기지 못하고 완전소화가 되어 위의 기능이 정지상태였으니 그럴 수 밖에 없다.

"상원사 김치가 짜냐? 주안 염전의 소금이 짜냐?"고 물을 정도로 상원사 김치는 짜기로 유명하다. 그런 김치를 식욕이 왕성한 젊은 스님들은 나물 먹듯이 먹는다. 식욕을 달래기 위해서다. 하기야 상원사 골짜기의 물은 겨울에도 마르지 않으니까 염도(鹽度)를 용해시킬 물은 걱정 없지만.

선객에게 화두 다음으로 끈질기게 붙어 다니는 생각이 있으니 그것은 식사(食思: 먹는 생각)다. 출가인은 욕망의 단절상태에 있지 않고 외면 내지는 보류상태에 있을 뿐이라고 이 식욕은 강력히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이 바로 식본능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공포가 바로 기아에서 오는 공포라고 결론 지어준다.

화두에 충실하면 견성이 가능한 것처럼 식사(食思)에 충실하다보니 먹는 공사가 벌어진다. 대중공사에 의해 어려운 상원사 살림이지만 초하루 보름에는 별식을 해 먹자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별식이란 찰밥과 만두국이다.

절에서 행해지는 대중공사의 위력이란 비상계엄령보다 더한 것이어서 일단 통과된 사항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소를 잡아 먹자고 의결되었으면 소를 잡아 먹어야 하고 절을 팔아먹자고 의결되었으면 절을 팔아 먹어야 한다. 대중공사의 책임은 대중 전체가 지는 것이며 또 토의는 극히 민주적이고 여러가지 여건에 충분히 부합되어야만 결의되기 때문에 극히 온당하지만 약간의 무리도 있을 수 있다. 상원사 김치를 먹어보면 원주스님의 짭짤한 살림솜씨를 알 수 있지만 대중 공사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보니 어쩔 수 없이 원주실에 비장해 둔 찹쌀과 팥과 김이 나왔다.

부엌에서 팥이 삶아져가자 큰방에서 좌선하고 있는 스님들의 코끝이 벌름거리더니 이내 조용히 입맛을 다시고 군침을 넘기는 소리가 어간에서나 말석에서나 똑같이 들려왔다.

사냥개 뺨칠 정도로 후각이 예민한 스님들이고 더구나 거듭되는 식사로 인해 상상력은 기막힌 분들이라 화두를 잠깐 밀쳐놓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찰밥을 기름이 번지르한 김에 싸서 입안에 넣어 우물거리다가 목구멍으로 넘기면 뱃속이 뭉클하면서 등골에 붙었던 뱃가죽이 불쑥 튀어나오는 장면까지 상상하게 되면 약간 구부러졌던 허리가 반듯해지면서 밀쳐 놓았던 화두를 꼭 붙잡게 되고 용기백배해진다. 이 얼마나 가난한 풍경이냐. 이 얼마나 천진한 풍경이냐. 찰밥 한 그릇이야말로 기막히게 청신한 활력소이다.

인간의 복수심과 승리욕은 자기 밖에서 보다 자기 안에서 더욱 가증스럽고 잔혹하다. 별식은 넉넉히 장만하여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식량(食量)대로 받는다. 주림에 무척이나 고달픔을 겪은 선객들이라 위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발우 가득히 받아 이제까지의 주림에 대한 복수를 시원스럽게 한다. 찰밥이고 보니 격에 맞춰 상원사 특유의 산나물인 곰취와 고비나물까지 곁들여 상을 빛나게 해 준다. 발우 가득한 찰밥과 나물을 비우고서는 포식과 만복이 주는 승리감에 젖어 배를 내밀고 거들먹거리면서 "평양 감사가 부럽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합창한다. 생식하는 스님에게 죄송하다고 고하니 자기도 찹쌀을 먹었으니 뱃속에서야 마찬가지라고 대꾸한다.

불경은 가르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갖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 괴롭다'라고.

애증을 떠나 단무심(但無心)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이다. 이 경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선객들이지만 주림에 시달림을 받다보니 스스로 경구를 어기고 포식을 했으니 그 과보가 곧 나타났다.

오후 입선시간에 결석자가 10여명이 넘었다. 좌선에 든 스님중에서도 신트림을 하고 생목이 올라 침을 처리하지 못해 중간 퇴장을 하는 스님들이 너 댓명 되었다. 결가부좌의 자세를 갖춘 스님중의 몇분은 식곤증이 유발하는 졸음을 쫓지 못하여 끄덕거리는 고개짓을 되풀이한다.

통계에 의하면 선객의 9할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위장병 환자라 한다.

식본능에 무참히 패배당한 적나라한 실상이다. 노년에 이르도록 견성하지 못한 선객은 만신창이가 된 위장을 어루만지면서 젊은 선객들의 눈총을 받아가며 뒷방 신세를 지다가 마침내는 골방으로 쫓겨가서 유야무야 사라져 간다. 그래서 선객은 이중으로 도박을 한다. 세간(인생)에 대한 도박, 출세간(僧伽)에 대한 도박.

언제나 모자라는 저녁 공양이 남아 돌아갔다. 위가 소화불량을 알리느라 신트림을 연발하는 스님들은 공양시간에 참석하지 않았고 끼니를 거르기가 아쉬워 참석한 스님들은 물에 말아 죽처럼 훌훌 들러 마신다. 그렇게도 죽 먹기를 싫어하는 스님들인데도, 저녁 시간 큰방은 결석자가 많이 휑뎅그렁하여 파리 몇마리가 화를 치면서 제 세상을 만난듯 자유롭다. 대신 뒷방은 만원사례다. 뒷방 조실의 코믹한 면상에 희색이 역연하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옆에 누운 지객스님이 말을 걸어왔다. 학부출신에다 대교과를 마친 분이지만 과묵해서 시비에 끼어들지 않는 스님이다.

"인간의 본능억제란 미덕일까요? 부덕일까요?"

"정신적인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선 약간의 미덕이 될 수 있지만 육체적인 조화를 위해선 부덕이겠지요.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겐 악덕이겠고 노인들에겐 무덕이겠지요."

한참후 다시 물어왔다.

"선객은 반드시 본능억제를 행해야만 견성이 가능할까요?"

"본능을 억제한다고 해서 반드시 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선객에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 있지요. 본능억제는 필요조건에 해당되고 견성은 충분조건에 해당되겠지요. 필요조건은 수단같은 것이어서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본능억제가 하나의 수단이라면 그 역(逆)인 본능개발도 또한 수단이 되겠지요. 필요조건인 본능억제가 없더라도 충분조건인 자성이 투철하면 견성의 요건은 충족 되겠지요."

"함수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변수가 본능억제라면 다른하나의 정수는 자성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함수관계에서 변수가 없어도 함수관계가 성립될까요?"

"수리학적인 공리를 선리(禪理)와 대조 내지는 결부시킬 수는 없잖을까요. 전자는 형이하학적인 것이고 후자는 형이상학적인 것인데."

"선객의 필요조건인 본능억제와 충족조건인 자성에서 필요조건은 없어도 충분조건만 있다면 견성이 가능하다는 결론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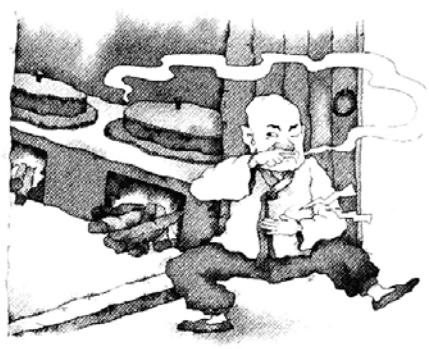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박봉 쪼개 9년간 보시행

광동여고 교사 39명 장애인등 도와

9년간 남몰래 보시행을 실천해온 교사들이 있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참교육이 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 광동학원(이사장 일면) 산하 광동여고 39명의 교사들이 90년부터 박봉을 털어 어려운 곳에 보시하고 있는 것.

동참하는 교사들은 모두 익명으로 참여하며 월 2천원에서 몇만원까지 십시일반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매월 적립된 34만8천원가량은 장애인 포교모임인 조계사 원심회와 대부도 통지청소년의 집에 전달하고 있다. 물론 보시하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 종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보낸 것이라는 것 밖에 모른다.

이학송교감은 "불교종립학교 선생님으로써 순수하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하자는 의미로 시작했다"며 "9년째 접어들었지만 시작했던 마음그대로 자연스럽게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28년 공직생활 · 미담엮어

경찰이 수상집 펴내



대구경찰청 불교법우회 회장인 조구이씨(수사 1계장)가 최근 수상집 〈밝은마음 밝은세상〉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수상집 〈밝은마음 밝은세상〉에는 조구이회장이 28년간 경찰생활하며 듣거나 자신이 겪은 주변 사람들의 자비행이 실려있다.

조회장은 "주위의 미담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게 됐다"며 "인지대금으로 노인들에게 영정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포부다.

우리 모임에선

금융단불자회장 김윤하씨

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는 1월 29일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제3대 회장에 김윤하(수협 어업조업부 부부장)씨를 선출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 연 2회 합동법회와 명찰순례, 가족동반 수련및 수계법회, 산행, 보시활동등을 확정했다. 특히 분기당 1회씩 가족수련회를 갖는등 기도중심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금융단불자연합회는 상임위원회를 25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2)398-6464 이충훈간사

교사불자련 가족법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강릉 등명낙가사에서 가족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족법회는 법회에 이어 철야정진기도로 진행된다. 문의 011-446-2517

동대문경찰서 정기법회

동대문경찰서 동불회(회장 김화철)는 18일 12시 청사 3층 법당에서 법회를 개최한다. 법문은 김진홍 포교사(대한불교경찰포교회장)가 맡는다. (02)3675-1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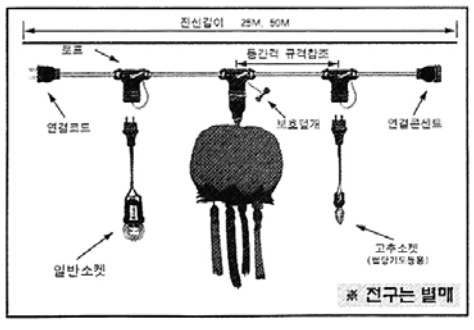
PC통신 불동 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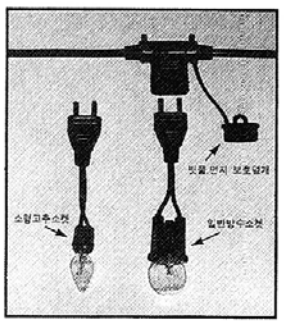
PC통신 불교동호회는 6일부터 7일까지 99년도 동계수련회를 개최했다. 나우누리 부처님마을과 넷츠고 불교동호회가 연합행사로 개최한 동계수련회는 공주 마곡사와 수덕사, 등을 참배했다. 수련회는 도응, 법안스님의 강의와 1080배 정진기도, 수계식 순으로 진행됐다.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 · 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 · 사찰 · 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 · 납품)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 · 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 · 호 남 지 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3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전국의 초·중·고·대학이 졸업식과 입학식을 연이어 갖는다. 한 단계 높은 공부를 위해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을테고,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도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방향은 각기 다를지 몰라도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위한 발원과 굳은 다짐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정서상 새로운 한 해를 의미하는 설도 입학과 졸업이나 다를 바 없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만큼 더욱 용기있고 실천적인 다짐이 필요하다. 시작의 다짐은 와 중요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의 으미를 새겨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통해 사겨보자.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졸업과 입학

"이루고자 하는 뜻에 흔들림없이"

▨곧고 바른 것을 길(道)이라 하고 두려움 없는 곳을 목적지라 한다. 고요하고 한가한 수레를 타고 진실의 가르침을 덮개로 삼고 부끄러움을 고삐로 삼으며 바른 생각을 재갈로 하여 지혜를 훌륭한 말몰이 삼고 바른 소견을 안내자로 삼는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라도 이것을 타면 생사의 험한 숲속을 지나 편안하고 즐거운 열반에 도달하리라. 〈잡아함경〉

▨불자들이여, 보살마하살에게는 열 가지 마음이 있다. 그 열 가지란 이른 바 용맹스런 마음이니 시작한 사업을 다 이루기 때문이요, 게으르지 않는 마음이니 온갖 선근을 쌓기 때문이며, 용맹하고 견실한 마음이니 일체의 악마를 다 항복 받기 때문이요, 바로 생각하는 마음이니 일체 더러운 번뇌를 다 없애기 때문이며,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니 도량에 나아가 보리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화엄경〉

▨고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여기 현재의 일에서 가져야 할 것이니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없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야 하리.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흘려 노력하라. 〈중아함경〉

▨"선남자야,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우바새계경〉

▨첫 발심할 때 정각을 얻는다. 이 때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알고 지혜의 몸을 갖춰 스스로 깨달음의 눈을 뜨기 때문이다. 〈화엄경〉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불반니항경〉

▨모든 중생들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한가지이나 땀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으리라. 사업을 이룸에는 참아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하면 먼저 인욕함을 배워야 한다. 〈별역잡아함경〉

▨예의와 질서가 없고 남의 뜻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다. 공경할 줄 아는 이는 예의와 질서가 있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는 안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공경할 것이 있어서 예의와 질서를 지니게 되고 남에게 순종하면 의롭고 이로와서 크게 만족해 진다. 〈잡아함경〉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빗방울이 떨어져 시원스레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은 점점 모였기 때문이니, 무시윤회(無始輪廻)의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량에 앉아 불과(佛果)를 성취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제법집요경〉

▨높은 관직을 탐내는 사람은 고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그것을 위한 행위를 하게 마련이다. 무릇 욕구의 선악을 막론하고, 그 마음에 먼저 목표를 세운 다음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보리를 구하는 사람도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구하는 것이다. 〈발보리심론〉

열린마당

조계종 교육제도 진단과 전망

'종단 교육구조 및 제도의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한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교무국장 세미나가 법주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고운사, 금산사, 화엄사, 송광사 등 10개 본사 교무국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2일 길상사에서 열렸다. 지난 4년간의 승가교육 사업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방향모색을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의 발제, 토론 내용을 소개한다.

전통강원의 장점 살려야

지운스님〈송광사 강원 강주〉

강원의 명칭을 지방승가대학으로 변경한 것은 선교겸수의 맥을 이은 수행의 장이라는 강원의 전통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된 것이다. 또 승가기본교육기관을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강원 등 4곳으로 인정함으로써 학인들이 강원을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강원에 다시 들어오는 등 8년이라는 기간을 기본교육이 투자하는 모순을 발생시키고 있다.

고학력 출가수행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승려교육을 굳이 대학식 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강원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편입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전통강원교육을 현대에 되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과 대학을 배타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각기 특성을 살린 상보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수확보-한글교재 시급

현진스님〈포교원 포교부장〉

현행 승가교육체계는 기초교육(행자교육원), 기본교육(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 강원), 전문교육(승가대학원, 학림, 율원, 어산학교), 재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 제도의 대안으로 두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하나는 행자교육원을 2년으로 늘려 연 2회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기본교육기관 가운데 기초선원은 전문교육에 편입시켜 전문선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또 하나는 행자교육을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로 일원화시켜 기초교육 이수자에게 사미(니)계를 주고, 기본교육 4년은 강원에서 전담하는 형태로 해 강원을 졸업해야만 비구(니)계를 주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체계의 개혁과 기본교육기관 교과과정의 개선, 교재의 한글화, 교수 인력의 안정화 등 교육내용을 개선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행자교육 공통교재 필요

각정스님〈동화사 교무국장〉

최근 들어 행자교육 기간 연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각 소속사찰에서 행자를 가르치는데 사용할 공통 교재와 지침서 부족, 본사별 행자교육의 주체인 교무국장스님들의 행자교육원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와 연계등에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본말사 주지연수는 지난해 70% 이상의 참석률을 보였으나 사설사찰 주지스님의 참석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불참자에 대한 재교육과 경책 등의 뚜렷한 대책마련과 4년간의 연수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현재 비구계 수계산림을 총무원 총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일원화를 위해서도 하루속히 교육원으로 이관해야 하며, 10년 단위의 기성승려의 분한신고도 서류에만 의지하지 말고, 재교육의 의미를 담아 구체적인 프로그램 준비로 변화시켜야 한다.

토론내용 강원의 계율교육등 의견 다양

'자주 모여서 전법을 말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무국장스님의 역할 강화, 습의 교육의 강화와 통일, 사미(니) 의제법 시행 등 승가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날 참석한 교무국장 스님들은 본사에서 강원이 세력화 분리화되면서 행정직 교역직으로서의 교무국장 역할이 점점 퇴색됐다면서 교무국장의 역할 개선을 위해서 승가교육령을 정비하고, 행자교육원 등 교육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습의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론교육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습의를 소홀히 다루게 된 원인 이라고 지적하고 행자교육에서부터 본말사까지 습의를 통일시켜 습의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승가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강원교육에 계율에 대한 기초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지운스님은 "대부분의 강원이 주입식 교육으로 학인과 강사간의 교류가 전무하다"면서 "강원의 습의를 율원의 스님들이 담당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승가의 대중생활을 통한 기본의식 연마와 전통강원 형태의 논강 등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승가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단행된 사미(니) 의제법은 대부분의 본사와 강원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새로운 의제 모델 연구 등이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출가자 학력-연령제한 폐지 안된다

제언



밀원스님
前 조계종교육원 율학연구소장

조계종 신임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발표한 교육개혁안 가운데 출가자 학력과 연령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한국불교를 대표한다는 조계종이 고졸학력 이하자를 승려로 양산하면서 승려 자질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모든 승려가 참선만 한다면 사회적인 교육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화를 담당하는 승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조계종도 타종교처럼 수도를 전문으로 하는 자와 사회의 일반적 개념인 성직자로 구분하여 임무와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스님을 수도자 겸 성직자로 양성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 무조건 고졸학력 철폐를 단행하고 승려자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수도자 제도를 두어 이 과정을 지원하는 행자에게는 고졸학력을 폐지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현행 교육법은 출가연령을 15세에서 50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행자교육 수료자 가운데 기본교육 미입과자 즉 기피자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40세 이후 출가자로 나타났다.

수도자 지망 행자에게는 출가연령을 폐지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그 대신 성직자 지망 행자에게는 장차 최고의 교육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출가연령 제한은 반드시 해야 한다. 35세까지만 허용해야 한다.

"진짜 부처님 사리입니까"

목탁소리

정 성 운
〈취재 1부 차장대우〉

본지 208호(1월 27일자)에 석가세존 진신사리 친견대법회가 열린다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독자들이 항의전화를 해왔다.

독자들의 항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아직도 사리친견법회냐는 것이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형상에 얽매이는 신앙행태를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또 하나는 석가세존 진신사리를 미얀마에서 이운해 왔다는 것에 대한 의문의 표시였다. 미얀마불교에 대해 정통하다는 한 독자는 미얀마에는 3과의 석가세존 진신사리가 있는데, 어떻게 12과나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아무튼 이 법회는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치러졌다. 사리친견법회에 이어 진행된 마정수기에 대한 항의도 있었다. 수행자가 미래에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리라고 부처님이 약속하고 예언하는 것인데, '자모(慈母)'라고 부르는 사람이 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수행에 진력했던 스님들의 유골이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사리신앙은 뿌리깊다. 신라 후기 고려시대에 매우 성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이 남기신 법(法) 이상의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 '팔천송반야경'은 이같은 점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반야바라밀이야말로 진정한 여래의 몸이다. 불타세존은 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비구들은 결코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신체를 부처님의 신체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반야바라밀을 법신의 완성으로 생각해야 하다."

이 말씀을 이번 사리친견법회가 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swjung@buddhapia.com)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입생 모집 요강

1989년 설립된 불교 전통 의식 교육
대학에서는 범음·범패, 요잡 작법 및
예경의식 등 불교 전통의식을 보다 높이
계승 발전 시키고져 하오니 뜻 있는
스님, 포교사 및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혜 산 合掌 -

1 모집학과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고
초급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20명	1년
연 구 과 정	요잡, 작법, 안차비 등	10명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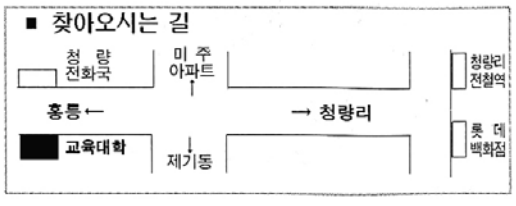
2 응시자격
(다음 사항중 한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1) 수계 득도한 자
2) 오계를 수계한 자
3) 각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면접)

4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수계증명서 사본
3) 추천서
4) 반명함판 사진 4매

※ 교육시간 : 주 4회(월~목)
▶ 접수일자 : 1999년 1월 27일~3월 7일
▶ 개 강 : 1999년 3월 8일

■ 찾아오시는 길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967-7093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창작국악교성곡 '혜초'

"음악으로 오천축 순례"

2월 문화인물 지정기념 27일 국립중앙극장서 초연

"… 길 떠나네 길 떠나네
몸과 마음 다 비우고 오천축으로 길 떠나네
천년 세월 저편으로 등 돌리는 혜초스님
정법을 구하러 가세 정법을 구하러 가세
부처님 태어나신 나라 오천축으로 떠나는 여행…"

세계정신을 탐험한 최초의 한국인 혜초스님. 부처님의 자취를 찾는 혜초스님을 따라 오늘날의 불자들도 오천축국 순례에 음악으르 동행하게 됐다. 2월의 문화인물 혜초스님 지정을 기념하는 창작 국악교성곡 '혜초'가 오는 27일 오후 7시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초연되는 것.

시인 장지현정사의 작사에 김희경씨(국악실내악단 오느름 대표)가 곡을 쓴 국악교성곡 '혜초'는 혜초스님의 구법정신과 순례의 발길이 장엄하게 담겨있다.

"지극한 불심과 굽힐 줄 모르는 모험심, 탐험심을 지닌 혜초스님의 정신이야말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루게 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새 밀레니업을 맞아 새 희망을 가져야 하는 현대 한국인들에게도 꼭 필요하고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정신입니다. 혜초스님의 높은 기상과 불굴의 용기, 온갖 어려움을 다 극복하며 불법을 찾아 떠난 그 깊은 구도심을 가사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장지현정사의 사(詞)는 혜초스님과 같이 순례를 떠나듯 생생하면서도 시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가사에 김희경씨는 힘있고 드라마틱한 선율을 붙였다. 흥겨운 국악의 선율을 기본으로 혜초스님의 정신을 표현하면서 그레고리안 성가, 인도의 전통 선율을 중간중간 도입해 머나먼 이역에서의 험난한 여정을 상징했다. 또한 남도창과 인도고대악기 오카리나의 선율도 등장해 혜초스님의 굳센 구법의지와 고향을 그리는 애절한 마음도 표현해 냈다.

"국악과 서양음악을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불교음악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진각 청룡사 묘각사 길상사 불광사 인천 보명사 수원포교당 중앙불교 조계사청년회 합창단과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등 총 3백명이 연합으로 무대에 서고 중앙국악관현악단 60명이 협연한다. 도신스님과 관소리계의 샛별 최진숙씨, 바리톤 유훈석씨 등도 솔로로 동참한다.

또한 이번 음악회에는 작곡가 유승엽씨가 직접 인도전통악기 오카리나로 자신이 작곡한 '선(禪)음악 혜초'를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음악회의 총감독은 반영규씨(불교문서포교회 대표), 총지휘는 작곡자 김희경씨, 연습 총지휘는 정옥녀씨(지휘자)가 각각 맡고 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김희경씨


◇장지현정사


◇유승엽씨


◇도신스님


◇최진숙씨

"영산재 4개 분야로 나누어 문화재 지정한 것은 실책"

진철승씨 '무형문화재 공청회'서 지적

"영산재를 4개 분야로 나누어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실책이다."

전통문화정책포럼 주최로 1월22일 출관문화회관에서 열린 '전통문화정책의 전환과 모색' 공청회에 참가한 진철승(성보보존위원회 전문위원)씨는 이렇게 지적했다. 불교의식 가운데 최고로 꼽는 영산재를 범패 작법무 도량장엄 범악 등으로 나누어 지정해 놓은 것은 영산재의 본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진씨의 주장. 영산재 뿐만 아니라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따로 지정한 것 역시 실책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다.

주강현(민속학자)씨는 "무형문화재 지정의 문제점은 수십여년간 독과점적으로 운영된 무형문화재 정책에 있다"며 문화재 위원들이 수십년간 재위촉돼온 현 문화재위원의 전면 교체 등 정책 시정을 요구했다.

인병선(짚·풀문화연구회 회장)씨는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의 인정은 보유자 쪽에 의해 승계되서는 안 되며, 보유자의 사망 이후 새 보유자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화재 전수자들에게 국가가 전수비명목으로 생계보조비를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기예를 전수받지 않은 이도 전수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제자'들에게 고액 과외에 버금가는 돈을 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사찰건축 공모전 연다

조계종문화부 올 사업 발표

조계종 문화부(부장 양산)는 △사찰시설물 공모전 △북한문화재 조사 △불교문학현상공모 △성보문화재조사 △사지실태조사 △사찰안내서 발간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99건축문화의 해를 기념해 갖는 사찰건축공모전과 사찰건축관련 세미나.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우리 전통건축의 근간을 이뤄온 사찰의 문화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전통사찰내 공공시설물의 모형 공모전이 3월중 실시된다. 전통사찰 경내에 있는 매점 전화박스 자판기 식수대 휴식공간 매표소 관리소 가로등 간이 화장실 등은 천편일률적인 모습으로 사찰의 고풍스런 모습과 어울리지 않아 그동안 비판받아 왔다.

문화부는 이번 건축공모를 통해 전통사찰과 잘 조화되면서도 편리함과 현대적인 세련미까지 지닌 시설물의 새로운 모습이 찾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뜨 가을에는 '전통사찰의 역사 문화환경과 고건축물의 보존'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통일원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게 될 북한문화재 조사는 북한 불교문화재와 북한소재 전통사찰의 현황을 파악해 통일후를 대비함과 동시에 남북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문화재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넓혀가자는 취지로 시도된다.

이외에도 지난 96년 처음 실시해 불교문학계에 자극을 준 제2회 불교문학현상공모를 시와 소설 분야로 국한시켜 실시한다. 신도용 찬불가집을 제작해 불교음악의 대중화에도 역점을 둘 예정이다.

화엄사 등 성보문화재 조사와 사지실태조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찰과 연계한 지역문화 전반을 다룬 사찰문화안내서도 발간한다. 이 안내서에는 사찰연혁과 소장 성보에 대한 소개 뿐 아니라 찾아가는 교통편, 지역특산품, 숙박시설, 향토문화제 등의 안내도 담을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21일 예술의전당에서 창단연주회를 갖는 니르바나 실내악단. 강형진단장(앞줄 가운데)의 원력으로 창단된 실내악단은 앞으로 서양음악을 통한 불교포교에 앞장설 예정이다.

'니르바나 실내악단' 21일 창단연주회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현악기를 전공한 불자 예술가들 17명이 '니르바나 실내악단'을 결성, 21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는다.

서양음악을 전공하는 기악인들 대부분이 기독교신자인 현 음악계 풍토에서 서양음악을 전공한 불자들이 모인 니르바나 실내악단(단장 강형진)의 창단은 불교계로는 처음으로, 니르바나의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니르바나 실내악단 창단의 원력을 세우고 2년동안 준비한 단장 강형진씨(46·선화예고 강사)는 "그동안 불교계에 실력있는 전문 실내악단이 없어 아쉬웠다"면서 "종단이나 사찰의 행사에도 동참하고 산사음악회나 젊은 불자들을 위한 음악회 등을 열어 불교포교에도 앞장서겠다"고 의욕을 보인다. 이경숙 기자

전통공예 특별전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한양대 전통미술원(원장 김경자)은 이달말까지 한양대학내 백남학술정보관에서 '전통공예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는 전통 공예 장인들의 작품인 문방사우, 전통악기, 옹기, 도자기, 소목, 화각, 은세공, 목공예 등 2백여점이 전시된다.

한편 3월 개원하는 한양대 전통미술원에는 신응수(대목장) 박찬수(목조각장) 유영기(궁시장) 조찬형(보령 소목장)씨 등 인간문화재들과 김익홍(도금·불교미술) 허길룡(목공예·불교미술) 김광렬(석공) 씨등 불교 전통장인들이 대거 겸임교수로 출강하게 된다.

욕망너머 사랑의 깨달음

하재봉 장편소설 '황금동굴'



시인이자 소설가인 하재봉씨가 내놓은 장편소설 〈황금동굴〉(이레 刊)은 주인공의 깨달음을 통해 가장 고전적인, 욕망의 세계너머 있는 본질적인 사랑의 해법을 제시한다.

2000년 1월 남자 주인공이 1년간 동거했던 한 여인을 되돌아 보며 시작되는 이 소설은 스피디하면서도 감각적이다.

태고의 신화와 새 밀레니엄,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첨단시대의 사랑법을 가장 고전적인 색채로 그려내면서 진정한 마음의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작가는 '황금동굴'이 모두의 내부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문화재 소식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DB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올 7월까지 지방 9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을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정보화 공공사업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부의 지원금 6억여원을 들여 실시하는 소장유물 DB화 작업은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4만8천여건을 멀티미디어 DB화 하는 것이다.

각 지방박물관별 가공 대상 데이터량은 경주박물관 6천건, 공주 5천5백건, 전주 6천건, 부여 8천건, 대구 3천5백건, 청주 4천5백건, 진주6천건, 공주 6천건, 김해 3천건에 달한다.

춘천 7층석탑 이전 새단장

보물 제77호 춘천 7층석탑이 보호구역 중앙으로 이전 복원된다. 춘천시는 21일 소양로2가 서부시장 앞에 있는 춘천 7층석탑을 1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석탑주변에 조성한 1백86평 규모의 보호 구역 중앙으로 10m 가량 옮겨 새단장한다고 밝혔다.

7층석탑 이전 복원건은 지난해말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이전 허가를 받음에 따라 3월 설계에 들어가 늦어도 10월까지는 석탑 이전 및 주변 조경사업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춘천 7층석탑은 고려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으로 화강암으로 조성하였으며 고려시대 연화문 배열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문화재대관 사적편' 개정판

75년 문화재관리국이 펴낸 〈문화재대관 사적편〉 상권 개정판이 나왔다.

사적편 상권 개정판은 경주 황룡사지를 비롯한 사지 13건, 김해 회현리 패총 등 선사유적 6건, 경주, 부여, 공주, 나주 등지의 고분 29건, 신라 무열왕릉 등의 왕·비릉 54건, 도요지 11건, 묘·비 7건 등 모두 1백20건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개정판에 새로 수록된 사적지는 요지 1건이지만 그동안 이뤄진 각종 발굴성과 등이 반영되어 해당 사적마다 일괄적인 개설과 함께 관련 사진, 지정도면, 유적배치도 등이 실려 있다.

무령왕릉·천마총등 CD롬 발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는 최근 중요 유적의 발굴조사 보고서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보고서 모음집Ⅰ-무령왕릉, 천마총, 황남대총 남·북분' CD-ROM을 발간했다.

이번 CD-ROM에는 73년도에 발굴된 무령왕릉, 74년 천마총, 85년 황남대총 북분과 93~94년에 발굴된 황남대총 남분발굴조사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감은사지 안압지 등의 발굴보고서는 11월경 발행할 예정인 모음집Ⅱ에 수록할 계획이다.

199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東邦佛教大學

(우 136-022)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292-1
전화: (02)763-0229, 763-8536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바랍니다.

1. 모집 과정 및 학과
가. 대학과정 (2년제)
1)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OO명(편입생 약간명)
2) 범 패 과 : OO명
3) 불교미술과 : OO명
나. 교양과정(1년제) : OO명

2. 응시자격(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대학과정
1) 신입생
가)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나)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다)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2) 2학년 편입생
가)정규대학 졸업자 나)불교교양대학 졸업자
나. 교양 과정
1) 교임 및 사찰 관리인, 승려 권속 및 신도회 간부
2)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타 자격이 인정되는 자

3. 전형방법
가. 대학과정 :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나. 교양과정 : 서류심사 및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1월 18일(月) ~ 2월 20일(土)
(평일은 10:00~17:00, 토·일요일은 15:00까지, 공휴일 휴업함)

5. 전형일자 : 1999년 2월 21일(日) 10:00 ~ 17:00

6. 전형장소: 본 대학 강의실 및 실기실

7.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8. 제출서류
가. 대학과정 :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4)고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5)주민등록등본 1부 6)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7)반명함판 사진 6매
나. 교양과정
1)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2)이력서(반명함판 사진 6매 포함)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재직증명서 1부

9.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10.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대학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법계(대선)를 품수케 함.
나. 교양과정은 매주 2~3일 사이에 5강좌 강의함.
다. 기숙사 운영(지방학생 문의 바람)

11.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함.
나. 제출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해도 됨.
다.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라.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12.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 8536)
나. 태고종 서울종무처(☎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5~6)





공사상의 참모습 논리적 제시

김성철씨 '백론·십이문론'-'회쟁론' 번역 출간

대승불교의 공사상을 가장 잘 설명해 놓았다는 이른바 '삼론'이라 불리는 〈중론〉〈백론〉〈십이문론〉은 불교를 공부하는 학인들에게는 그야말로 필독서 중의 하나다. 공사상은 연기법의 바탕을 이루는 불교의 핵심사상이기 때문이다.

김성철씨(동국대 강사)가 번역 출간한 〈백론/십이문론〉과 〈회쟁론〉(경서원 刊)은 공사상을 밝혀 놓은 것으로, 국내 학자가 원본을 저본으로 삼아 번역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현재 〈백론〉과 〈십이문론〉에 대한 번역본으로는 〈한글대장경〉만이 유일했으나 오역이 많은 것이 흠으로 지적돼 왔다.

또 〈회쟁론〉의 경우는 원문 없이 번역문만 실은 동봉스님의 〈용수의 대승사상〉(진영사 刊)이 있으나 일본 역서를 저본으로 했다.

특히 김씨가 번역한 〈회쟁론〉은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함께 티벳어역본, 한역본을 서로 대조해 볼 수 있도록 한 대역본(對譯本)으로, 우리나라 불교학 연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작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십이문론〉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도 용수보살의 저술로, 반야 공사상을 중도 연기설과 연관시켜 논리적으로 설명한 〈중론〉(용수보살 著)의 내용을 축약시켜 놓은 것이다. 그의 제자 아리야 제바가 저술한 〈백론〉은 정교한 논쟁을 통해 공사상을 치밀하게 밝혀놓은 책이다.

이 두 권을 한데 묶어 번역한 〈백론/십이문론〉은 독특한 구성이 특징. 본문 내용은 저자, 즉 용수보살과 제바가 설명한 원문은 '내왈(內曰)'로, 이에 대한 해석은 '중관론사'로 구분돼 있다. 또 저자의 원문에 대한 반박적 논리를 띤 내용의 원문을 '의왈(外曰)'로, 그 해석을 '반대론자'로 구분함으로써 논쟁의 초점을 명확히 밝혀 놓고 있다. 원문만의 번역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에 대해서는 역자 나름대로 파악한 행간의 의미를 괄호 속에 넣어 번역론 사이에 삽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일본 〈대정신수대장경〉에 실려있는 〈백론〉과 용수보살의 〈십이문론〉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각주를 달아 원뜻을 훼손시키지 않고 전달하려 노력했다.

국내학자 첫 원본 번역
이해 어려운 구절
각주 달아 쉽게풀이

용수보살의 〈회쟁론〉은 "공사상이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 아닌가" "공사상은 허무주의가 아닌가"라는 외도들의 반론에 대해 정교한 논리로 반박함으로써 공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 놓고 있는 저술로 꼽힌다.

김씨의 번역서 〈회쟁론〉은 산스크리트어 원전과 함께 티벳어 역본, 한역본 등 3개 언어의 원문을 그대로 싣고 이들 언어에 맞는 번역을 해놓음으로써 그 의미의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쟁론〉의 내용만을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산스크리트어 번역문만 발췌한 후 역자 나름대로 행간의 의미를 삽입해 의역한 '풀어쓴 〈회쟁론〉'도 책 말미에 실어 놓았다. 각 권 1만8천원.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인도 구법기 | 도오스님 번역

현장법사 구도과정 소설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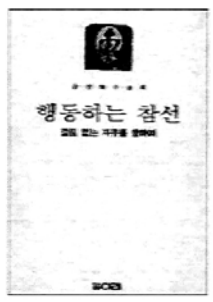
당대(唐代) 불교문화가 찬란했던 것은 인도 불교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장법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며 걸었던 5만리 여정은 바른 정법을 전하기 위한 굳은 의지와 인내의 과정이다.

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었던 도오스님이 펴낸 〈당나라 현장법사-인도구법기〉는 종국에서 발간된 〈현장전〉을 번역한 책이다. 하지만 딱딱한 역서와는 달리 현장법사의 일대기를 소설처럼 구성해 놓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대화체 문장으로 현장감을 높여 실감나게 읽힌다. 부록으로 〈현장전〉 원본도 함께 수록해 놓았다. 〈경서원, 7천원〉

화제의 책

행동하는 참선 | 장명학 지음

세상사 선의 대상 아닌 것이 없다



불교의 체험담을 소개했던 〈농고 비우고 버리기〉에 이은 장명학 거사의 두 번째 책.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선(禪)에 대한 생각을 펼쳐 보이고 있는 수필형식의 수상록이다. 주제는 세상 어떤 것이라도 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없다는 것. 그래서 선의 대상을 선지자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는다. 일상사에서 순간순간 접하게 되는 사소한 것들도 바르 그 대상임을 생활의 단편들을 통해 보여준다.

중간중간에 섞인 다소 어려운 문장이 수필형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흠도 있지만 선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접근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는데는 도움이 될만 하다. 장명학 거사는 현재 양재동 우곡선원에서 참선지도를 하고 있다. 〈여래, 8천원〉

"경허스님을 보면 나를 바로 볼 수 있다"

한중광씨 평전 '경허-길 위의 큰 스님'



소장학자 한중광씨가 펴낸 〈경허-길 위의 큰 스님〉(한길사 刊)은 경허스님의 평전이다. 경허스님의 깨침과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 사람의 길, 참삶의 길을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을 보여준다.

경허스님의 탄생과 성장과정에서부터 출가, 수행과 성도,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가감없이 전하면서, 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상황에 맞는 스님의 법어를 삽입해 놓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또 경허스님에 관한 다른 책들과 비교해 단순히 전기식 나열에만 그치지 않고 때로는 문학적 수법으로 일화를 다듬으면서 경허스님의 분래면목을 살려내려 애쓴 것도 특이하다.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5,000Km를 달렸다. 경허스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았다. 그러면서 얻은 깨우침 하나. '나를 바르게 보고 싶으면 경허스님을 바르게 보라. 경허를 바로 보면 나를 바르게 볼 수 있고, 나를 바르게 보면 바로 부처가 아니겠는가.'

그런 저자의 깨우침은 책 곳곳에 묻어난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삶을 허공에 새기는 법'이라든지 '대자연과 하나 된 무심도인의 마음'과 같은 경허스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그렇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낀 것일까. 저자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상상을 초월한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중생들에게 회향하려 한 그 뜻은 무엇인가. 경허스님의 삶에서 21세기를 눈 앞에 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값 1만원.

"부처님 대기설법 카운슬링의 핵심"

김용택교수 번역 '카운슬링 불교'



카운슬링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의 역할 증 소홀히 해서는 안될 본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정신적 빈곤상태에 놓인 현대인은 그만큼 많은 카운슬링을 요구한다.

일본 불교사회은등가 후지타 기요시의 〈카운슬링 불교〉(시공사 刊)는 카운슬링 불교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과 함께 그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경전에 나타난 카운슬링의 예와 함께 카운슬링 불교의 성립과 발전, 카운슬링을 대하는 불교적 태도와 방법, 실천방법 및 실습 등의 내용이 폭넓게 설명돼 있다. 역자는 김용택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

저자는 천차만별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법을 설했다는 부처님의 '대기설법(對機說法)'에서 브듯이 카운슬링은 그 개념 도입 이전부터 불교에서 행해졌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같은 불교정신의 구체적 실천방법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카운슬링 불교는 바로 이같은 개념을 담은 현대적 접근법임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제시된 '사찰 인생 상담소'의 성립과 운영방식, 카운슬러의 자세 등과 함께 대학생 집단을 통한 카운슬링 실습 과정 및 결과는 불교에서 카운슬링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료로 삼을 만하다. 값 7천원.

한명우 기자

'현행경의 세계'

거정스님 번역 법보시

경남 하동 성지트글에서 수행증인 거정스님이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현행경〉의 정법을 널리 알리고 수행하는 불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현행경의 세계〉(대명인쇄 刊)를 펴냈다.

〈현행경〉은 고려시대 원참조사가 영현 거조암에서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경전으로 정토왕생의 참법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 〈현행경의 세계〉는 이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골라 뽑아 번역해 놓았다.

거정스님은 "많은 분들이 〈현행경〉을 통해 불법의 깊이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이 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법보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591)737-0407

새로나온 책







▲서원건축= '빛깔있는 책들' 시리즈 222권. 서원건축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조선시대 건축을 대표하는 소중한 건축 분야다. 성리학자들의 정신이 깊이 투영된 서원에는 절제와 추상의 정신, 우주와 인간을 일체화시키려 했던 노력들이 깃들어 있다. 이 책은 서원 건축의 역사를 비롯해 입지와 배치형식, 기능, 건축 자산으로서의 가치 등 모든 것을 시원한 컬러화보와 함께 담았다. 저자는 한국여술종합학교 미술원 김봉렬 교수. 〈대원사, 4천8백원〉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농촌으로 들어가 농사짓기를 금구어 귀농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엮은 책. 농촌의 의미, 생태적 가치추구, 유기농법 등 귀농에서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치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귀농은 직업을 바꾸는 삶의 전환이 아니라 갖가지 병폐로 들든 현대문명을 버리고 새로운 문명을 찾아 나서는 선택임을 강조했다. 〈두레, 1만원〉

▲반종력의 과학=현재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과학 기술 중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금의 신기술을 개척하는 과학자들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개한 교양 과학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반(反)하는 반종력 현상을 응용한 장치 등 신에너지 장치와 무한 동력 장치들을 만날 수 있다. 과학에서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재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책. 저자는 한마음에너지연구소 신과학정보센터 허창욱 박사. 〈모색, 9천8백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기저기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참선요지	대 성	여시아문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4	불자의 기본예절	일 타	효 림
5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6	산은 산 물은 물	정 찬 주	민 음 사
7	한국불교 기도성지	정성문화	불교시대사
8	불교와 과학	밥 운	불교춘추사
9	현장푸교의 방법과 실제	이 동 성	정우서적
10	불교신행의 주춧돌	우 룡	효 림

구입문의:(02)737-0695

부적을 지니면 행운이 보인다
운담 지음/ 값 9,500원

아직도 부적을 돈으로 사십니까 ?
"원하는 부적을 오려서 지니세요."



한장의 부적이
위기는 찬스로,
실패는 성공으로,
불행은 행복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문답 형식 값 10,000원



生命工學과 Mantra Yantra
생명공학과 부적
문답 형식 값 10,000원

도서출판 계침의 소리 전화: 02)444-3575 총판 운주사 02)720-9372

영험도량에서
소원성취한 이야기



진현종 지음
'한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의 저자

생생하고 감동적인 신행의 현장, 방방곡곡
영험도량에서 부처님의 은력(恩力)을 체험한다!

10년 지병을 3일만에 낫게 하고, 30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보내주시며, 죽을 고비마다 나타나 삶으로 이끌어주신 부처님. 참회와 발원이 바탕을 이룬 청정한 마음, 그 속에 희망이 있다. 간곡한 기도로 운명까지 바꿔버린 우리들의 영험담!



신국판값 5,000원



대원정사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우:140-190)
대표전화(02)757-6717 팩시밀리(02)775-8043

■교계 학술단체 99년 계획 사전발간 – 학술대회 등 알차게

사회문제 불교적 해답찾기 역점

교계 학술 연구단체들은 경제위기 등 각종 사회문제에 불교적 해답을 제시하고, 심층적인 교학 연구를 통해 불교위상을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려대장경〉 전산화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린스님)는 불교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이체자 자전 발간과 함께 기초자료 전산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고려대장경〉 내 이체자를 총 결집, 올 연말 발간될 〈고려대장경 이체자 자전〉은 국내 최초의 이체자 자전이 된다. 3만5천여 자에 이르는 이체자의 그 사용예와 이체자-정자(正字)를 분류하여 밝힐 예정이다. 또 '전자불교사전'을 제작,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자불교사전'은 지난해 출간된 〈고려대장경 해제〉 색인집에서 1만여 항목을 추출하여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관련 항목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3월부터 작업에 착수, 활용 프로그램 개발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대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 '비판불교에 대하여'를 총 6차에 걸쳐 진행한다. '비판불교와 관련한 불교학의 조명'을 주제로 전통불교학과 한국불교학에 대한 다양한 비판론 전개를 통해 불교성찰의 올바른 방향성을 토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선사상과 경제생활'을 주제로 4월30일 동국대에서 제3차 학술회의를 갖는다. 선사상과 경제를 접목하는 첫 시도가 될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선사상이 경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현실적 고찰과 함께 '선사상이 청규(淸規)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내적인 고찰을 통해 불교경제론의 기초를 마련 한다.

지난해 '대장경의 영역화 문제'를 주제로 진행됐던 백련불교아카데미는 올해 '선사상'에 초점을 맞추어 선어록에 관련된 논의를 전개한다. '선어록에 나타난 고유의 언어문제' '선어록이라는 형태의 특성' 등을 주제로 3월부터 총 6회 진행된다. 또 기초학문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학술연구비 지원 '우수연구논문 공모' △불교원전 윤독회 지원 사업도 계속한다.

그동안 '종교와 국가' 등 거시적 주제를 선정해 온 학술세미나를 개최해온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도 올해부터 불교 내부의 문제로 주제를 전환,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불교 전래에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행할 방침. 첫 세미나는 '한국불교의 전래설에 대하여'를 주제로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며, △가야불교 △한국불교의 일본전파 등에 문제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개원한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스님)은 대각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세미나를 9월9일 개최한다. '백용성스님과 노동·경제문제'를 주제로 근대 일제하 백용성 스님의 노동문제에 대한 관심을 집중 조명하고, 중국선사상에 나타난 노동문제 등 불교사 전반에 걸쳐 나타난 노동·경제문제를 폭넓게 고찰한다.

이밖에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보조어록 강독 △'선전연구발표회' 등 월례발표회를 계속 진행한다. 10월에는 '지눌사상의 집중적 탐구' 제2차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권기종)은 현재 약 70%의 작업이 진행된 〈불교문화사전〉 영문판을 탈고하여 발간할 계획이다. 또 영문판 학술서 제5권 〈한국 천태사상연구〉를 3월 펴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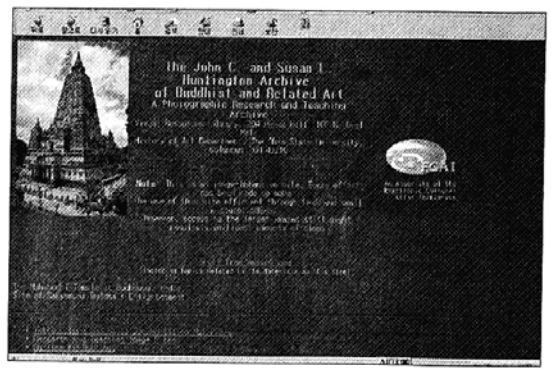
1월22일 개원한 한국불교선학연구원(원장 이은윤)은 '경허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5월28일 '경허선사 87주기 추모 제1회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또 학술논집 〈덕숭선학논집〉 첫권을 5월 발간한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장경硏 – '대장경 이체자 자전' 올 마무리
성철硏 · 대각사상硏 '禪과 경제' 세미나
불교문화硏 영문 '불교문화사전' 탈고

●학술연구원 신년계획

연구단체	신년사업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대장경 이체자 자전〉 및 〈전자불교사전〉 발간, '비판불교에 대하여' 학술세미나 6차 진행 등
성철선사상연구원	'선사상과 경제생활' 3차 학술회의, '선어록 연구' 백련불교아카데미 등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의 전래설에 대하여' 학술세미나, 〈한국불교연구〉 16집 발간 등
대각사상연구원	대각회 30주년 기념 '백용성스님과 노동 · 경제문제' 학술세미나 등
보조사상연구원	'지눌의 집중적 탐구' 2차 세미나, 보조어록 강독 및 선전연구발표회 등
불교문화연구원	〈불교문화사전〉 〈한국천태사상연구〉 영문판 발간
불교선학연구원	'경허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 학술회의, 〈덕숭선학논집〉 발간 등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헌팅턴교수의 '불교예술'

지구촌 불교예술 사진자료 열람
도난 성보 알려 매매막고 환수도와

세계 각지의 불교예술을 한눈에 조망하고 싶을 때, 주저없이 존 헌팅턴교수(美 오하이오대 예술사)의 사이트를 찾아가 보자.

불교예술 부문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존 헌팅턴(John Huntington) 교수는 20여년간 네팔 · 아프카니스탄 · 인도 등 아시아 각지를 방문, 그곳의 불교예술을 사진에 담아온 인물이다. 불교예술에 관심있는 네티즌이 이곳을 방문하면 헌팅턴교수의 사진 자료 수천장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단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회비는 매달 5달러(한화 7천원).

△지도서비스

어느 곳에서 어떤 불교예술들이 꽃피었을까. '지도서비스'에서는 중국, 일본, 네팔, 부탄, 파키스탄, 태국등 아시아 25개국의 지리적 특징, 불교사, 불교예술품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중 '간다라지역',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네팔과 카투만두 계곡' 등의 고화질 전자지도들이 백미.

△도난당한 성보(聖寶)들

네팔과 아프카니스탄의 불교성보(聖寶) 중에서 지난 1백여년동안 도난당한 성보 3백여점의 사진 자료들이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불교예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학술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골동품 수집가들이 도난된 성보를 거래하지 않도록 홍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헌팅턴교수는 "동남아시아에서 성보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지역 불자들이 성보 보호에 경각심을 갖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

△아시아 불교예술사 연구

중국, 캄보디아, 네팔, 티벳 등의 불교예술사를 요약하고, 사진 자료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이중에는 네팔의 초기불교 유적지인 삭티(Sakti)지역의 불상과 탱화들, 그리고 낙산대불과 같이 암벽을 깎아 만든 중국의 석불 사진등 1천여점의 고화질 사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또 각 지역 불교예술사 및 작품과 관련된 연구논문들도 소개되고 있다. 헌팅턴교수는 올해 1월부터 중국의 석불사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도 자료를 입력하고 있다.

△사이버 전람회

'중국-5천년' '마음의 거울' 등을 주제로 기획된 사이버 전람회를 관람할 수 있다.

이중 '마음의 거울'은 미국의 남부 앨러게이니 박물관에서 지난해 10월 전시됐던 티벳 불교예술품 185점의 사진 자료를 제공한다. 불상, 나한상, 탑, 만다라, 타탕카(탱화)등 티벳예술품을 담은 사진들에서 티벳불교의 독특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인도학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들의 모임인 'AIIS', 남아시아 문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는 'CIC' 등과 연동서비스를 제공, 논문 · 관련 서적 등을 소개한다.

존 헌팅턴교수는 '전자문화지도프로젝트(이하 ECAI)'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이 사이트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동 · 서양의 학자들에게 문화지도 사이트의 모델이 되고 있다.

http://kaladarshan.arts.ohio-state.edu/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양주동전집' 완간

4일 학술발표회등 가져

향가 연구에 독보적 업적을 남긴 무애 양주동(1903~1977) 선생의 저술을 모은 〈양주동전집〉이 완간됐다.

양주동전집 간행위원회(위원장 임기중 동국대교수)는 양주동 선생의 22주기를 맞아 5년간 꾸준히 작업해온 〈양주동전집〉 전12권을 완간하고, 4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1~9권은 신라향가 25수를 풀이한 〈고가(古歌)연구〉 등 양주동 선생의 저서를 영인했으며, 10~12권은 동국대 국문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간지 · 월간지 등에 남긴 글을 후학들이 모아 편집했다.

한편, 출판기념회에 앞서 열린 추모 학술회의에서는 △무애 선생의 한시(漢詩)와 한문학(이종찬) 등이 발표됐다. (02)2260-3483

"승조 자연관의 체험적 직관 중국 선종 성립 절대적 기여"

김주경씨 주장



"승조(僧肇)의 '물아동근 만물일체(物我同根 萬物一體)' 사상은 선종(禪宗)의 우주만물에 대한 철학적 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최근 펴낸 〈백련불교논집〉 제8집에서 김주경씨(동국대)는 '선종의 승조 자연관 수용에 관한 문제'를 통해 "선종의 선사(禪師)들은 우주에 대한 승조의 사상적인 관점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종은 인도에 기원을 두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체험적 직관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전통에서 생겨났다 봐야 한다"고 전제하며 "그런 의미에서 인도불교를 중국식으로 다시 체계화하고 중국인에게 맞는 논증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승조가 선종에 끼친 영향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구마라집(鳩摩羅什) 문하 4철(哲)의 한 사람인 승조(383~414)는 구마라집이 역출한 〈중론(中論)〉 등 삼론(三論)의 대승 중관사상을 전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긍정적인 논술방법을 사용했던 인물.

김씨는 "승조가 말한 '물아동근 만물일체' 사상은 선종에 직접 영향을 미쳐 선사들이 중생들에게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고 마음이 곧 부처인 세상에서 초연하게 속마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해설 모든 사물이 다 '진여(眞如)' 그 자체이니,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으며, 가는 일 오는 일도 없으며, 또한 머무는 장소조차 없다. 그렇건만 중생들이 망령되이 분별하는 까닭에 이 부처님도 계시고, 이 세계도 있게 되는 것이니, 법성(法性)을 살살이 이해하고 보면 부처님도 안계시고 세계도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해 · 태 · 상 · 사 · (주)

그린홈 매트

구정 효도 특별세일 50%

국내 굴지의 수출 선도기업 해태상사(주)가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건강제품.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돌침대의 건강효과와 침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해태상사 그린홈 건강매트는 첨단 맥반석 코팅 방법으로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 내 최 고 다 섯 가 지 장 점

♣ 온화한 온열감
- 34M 특수 카본열선에서 제공하는 찜질효과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 양질의 원적외선 방사
- 원적외선 방사율이 가장 우수한 천연 맥반석만 사용합니다.
- 천연 맥반석을 무공해 돌침대 형태의 특수 코팅 공법으로 제조하여 원적외선 효과를 체험하십시요.
- 원적외선은 생체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 유해 전자파 차단
- 100% 동성분의 동직물로 전자파를 차단하고 조절기로 전자파를 뽑아내 유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합니다.
- 부모님, 임산부, 아기까지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편안한 건강매트
- 국내에서 가장 크고 두텁게 제작하여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200 × 140 × 50, 2인용)
- 전문 디자이너가 제작해 제품이 산뜻합니다.

♣ 경제성
-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신비의 약돌 맥반석을 사용하여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료가 매우적게 드는 경제적인 건강매트입니다.

사찰을 통한 단체구입 주문 (5장이상)을 받습니다.

- 단체 구입시 샘플을 원하시면 샘플을 보내 드립니다.
- 건강매트 수익금 중 일부는 불교 포교기금(노숙자 지원, 결식아동지원 등) 조성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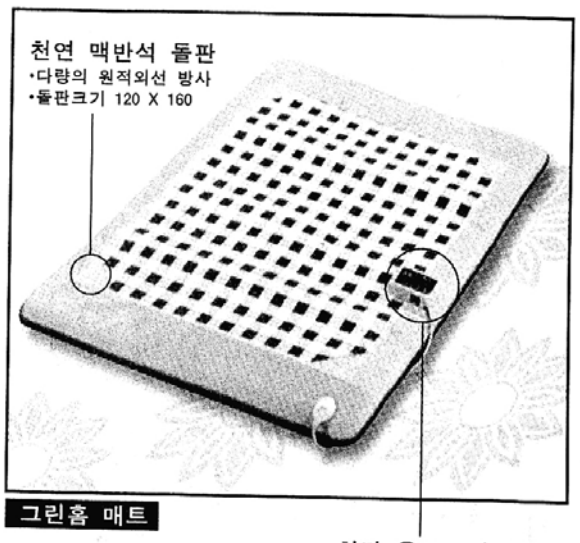
◐ 구입문의: 몰.부다피아 쇼핑몰 02)732-1522

◐ 특판가격: ~~₩660,000~~ ₩298,000

· 사용중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1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합니다.
· A/S기간:1년 TEL. 02)613-8098

해태상사(주) 그린홈매트

제조원 : (주)MCI



생활선 가르친 '교리의 경전'

중 · 장아함경 〈하〉

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선이 내면세계의 치열한 탐구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선수행은 말뜻 그대로 닦고 행하는 것, 깨달음이 현실 속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선정의 힘은 없는 것이 된다. 선의 참된 가치는 자신의 인생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실행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떻게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능력이며 결정의 힘이다.

장아함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다. 특히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세경〉은 모두 열 두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물론 전륜성왕, 지옥, 용과 금시조, 수미산 사방에 있는 사천왕들의 세계, 지구종말론, 아수라와 범천의 전쟁 등등 많은 신화들이 등장한다. 이 기세경은 불교의 우주관을 대표하는 경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집경〉과 〈십상경〉에는 530개의 법에 관한 내용들이 상세히 말씀되어 있다. 때문에 현장법사는 장아함을 일컬어 '교리의 경전'이라 부르기도 했다.

장아함은 선정의 수행을 초선(初禪) 이선(二禪) 삼선(三禪) 사선(四禪)으로 구분해 구체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아함은 구태여 선(禪)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행동의 규범적 요소로 지칭하는 선한 길의 표시가 있을 뿐이다.

"만일 어떤 목적으로 누가 나와 법과 너희들을 헐뜯더라도 너희들은 분노에 맺힌 마음을 내어 상대방을 해치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나와 법과 너희들을 비방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분노에 맺힌 마음을 내어 해칠 뜻을 일으킨다면 너희들은 스스로의 합정에 빠지게 된다."

글쓴이



돈연 〈두타초암〉

경전 속의 禪 사상 6

비방이나 칭찬에 들뜨지 말라
상상의 세계도 설해 수행도와

〈범동경〉

선정은 천박하지 않는 삶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비방이나 업신여김에 대해 은근한 침묵으로 대하는 것은 선 수행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중한 태도를 숫타니파타에서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또는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이라고 해서 인생의 신중하고 과묵함에 대한 태도로 비유했다. 장아함은 선을 수행하는 사람의 인생태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나와 법과 너희들을 칭찬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기뻐하며 우쭐거리지 말라. 무슨 까닭인가. 만일 그대들이 너무 기쁨에 들뜬다면 곧 스스로 합정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칭찬들은 잘못 듣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탐속과 세속은 겉모양에 있지는 않다.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는 것처럼, 일상적인 삶의 현장 그 속에도 무수한 탈속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은 혼재되어 있다. 세속과 탈속은 형태로 구분할 수는 없다. 인생의 향기는 칭찬에 우쭐거리지 않는 과묵함에 상당한 분량이 있다. 선정의 수행은 반드시 인생의 태도에서 그 힘이 발휘되는 것이다. 우쭐하지 않는 과묵한 태도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가능하다. 비단 선수행에서 독특하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만이 유일하게 최선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장아함경〉은 넓은 세계의 다양함도 아울러 얘기하고 있다.

"하나의 태양이 세계를 비추듯, 천개의 세계가 있다. 그 곳에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있다. 사천개의 수미 산, 사천개의 바다, 사천개의 용, 사천의 금시조 등등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없어진다." 〈기세경〉

선정에는 장아함의 이와 같은 상상의 세계를 현실로 느끼게 한다. 하룻밤에도 만번 죽고 만번 태어난다는 〈천수경〉의 말씀이 선정의 수행에서는 현실로 나타난다. 선정의 수행에는 천상의 세계뿐이니라 지옥의 세계도 체험하게 된다.

"무간지옥이라는 큰 지옥은 모두 열여섯 개의 작은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다. 오랜 시간만에 문이 열리면 그 속에서 쇳물에 몸이 담그어지는 고통을 받던 죄수들이 다투어 문을 향해 줄달음 한다. 선두의 사람이 문에 손을 댄 순간 문이 닫히고 그들은 다시 쇳물에 몸을 담그는 형벌이 계속된다. 그들은 그들의 죄값이 다 없어질 때까지 죽지 않는다." 〈기세경〉

장아함에 나오는 이 지옥형벌의 잔혹함은 인간의 역사가 지닌 어떤 혹독한 고문보다 더 악독하다. 선정은 산 채로 그런 지옥경험을 느끼는 수행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장아함의 결론은 끝내 교훈적이며 실천적이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삿된 음행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꾸밈말 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삿된 생각 갖지 않는다면 이 인연으로 생기는 착한 마음의 기쁨은 마치 지친 나그네가 깨끗한 목욕탕에서 목욕하고난 뒤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과 같다. 이것을 숙업의 광명이라고 한다. 〈기세경 세본연품〉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5

마음챙김 ①

〈Satipatthanasutta(정념발취론)〉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마음챙김(正念)은 모든 존재를 순수로 이끌며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게 하고, 고통과 슬픔을 진정시키며 바른 방법으로 이끌고 열반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음챙김은 빨리어로 'sati', 산스크리트어로 'smriti'로 사용되지만, 하나같이 '기억하다'라는 어원에서 파생된 말이다. 기억이 '흘러가 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건망증과 부주의함과 혼란에 대항하는 기억의 행위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챙김에 대한 다양한 서술은 경전 도처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덕'으로서 마음챙김의 역할이다.

요가적인 전통에서는 마음은 불가분(不可分)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한다. 고요한 심층과 혼란스러운 표층. 표층은 끊임없는 동요와 혼란 속에 있다. 현대심리학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의식과 무의식을 넘어선 마음의 밑바닥에는 매우 고요한 중심이 있다. 그러나 이 깊은 고요는 지나친 소란으로 항상 뒤덮여 있기 때문에 가슴 깊은 곳에 이러한 고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을 의심한다.

마음챙김은 내적인 고요를 발전시키거나 회복시키는 덕이다. '정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점차 증가되는 내적인 고요함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이 고요한 영역을 둘러싸는 경계선이 그어지는 데 그 경계선은 정신적인 고요함을 해치는 근본적인 적 즉 에고(Ego)와 결합된

내적 고요 회복하는 德

감각과 열정 · 산만한 생각 벗어나면
다르마 실재모습 꿰뚫어 볼 수 있어

감각과 열정, 산만한 생각들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감시된다. '마음챙김'과 관련된 수행법 중에서 '감각의 억제'가 철학적인 관심을 가장 많이 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뒤에 다룰 것이다.

마음챙김은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외적인 자극들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받지 않을 때 얻는 내적 통찰을 증가시키는 훈련이다. 감각들에게서 우리의 관심을 철수시키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관심을 버림으로써 마음챙김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슴 속에 항상 남아있는 내적인 고요를 회복한다. 마음챙김의 특징은 주관적으로는 온화하고 고요하며 진정된 수동성이다. 객관적으로는 우리를 이 세계로부터 들어올려서 감각적인 경험보다 훨씬 명확한 출세간 적인 경험의 세계로 몰두시키는 것이다. 부처님도 "마음챙김을 하는 사람은 실제의 모습을 알고 본다"라고 말했다. 마음챙김이 선정과 지혜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현대의 보통사람들에게는 마음챙김이라는 말은 현명함, 신중함, 세련된 가치감각, 침착함과 세계의 작용형태를 이해함으로써 얻는 세계의 지배권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물을 뜻하는 듯이 보인다. 부처님의 마음챙김의 개념도 이와 다르지 않지만 더욱 정밀하다. 그것은 처음에는 암시를 주고 다음에는 현실적인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명백해진다. 마음챙김은 다르마(dharma)들의 실재 모습대로 다르마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르마들을 감추고 있는 미혹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마음챙김'은 모든 사물 속에서 분할되어 있는 표층과 심층이라는 이원적 대상들 자체에만 머물지 않는다. 다르마로서의 그들의 진실한 실재는 상식적인 그들의 외관에 의해서 감춰진다.

따라서 마음챙김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기만적인 외관을 버리게 하고 다르마들의 실재 모습대로의 진실한 실재를 꿰뚫어볼 수 있게 하는 정신의 힘이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생명탄생의 시나리오 ②

■ 세포의 발달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물음인데, 이것은 아직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초의 세포막은 극히 단순한 것이었고, 그것이 각종 성분이 부가되어 현재의 세포막이 되었다는 것이다. 30수억년 전이 되자 DNA를 세포막으로 둘러싼 현재의 세균에 가까운 원핵 세포의 조상이 나타났다. 현재에도 원핵 세포의 구조는 간단하고, 세포내에는 DNA가 존재하는 장소를 칸막이하는 막(핵막)은 존재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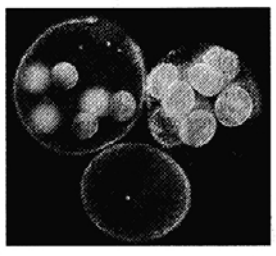
원핵 세포에서 진핵 세포로의 진화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여 핵막이 생겼는가 하는 것과 동시에 세포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기원도 중요하다. 미토콘드리아의 기원은 산소 호흡을 하는 어떤 종의 원핵 세포로, 산소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것이 다른 유형의 원핵 세포 속으로 들어가 공생한 결과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다. 한편 그것을 받아들인 쪽의 원핵세포 즉 진핵세포의 원형이 된 것은, 현재의 고세균에 가까운 혐기성 세포였다고 여겨진다. 혐기성 세포에 있어서 산소는 독이다. 이 설이 옳다면 혐기성 세포와 호기성 세포가 공존해야만 하고, 그래서 세포 내에 칸막이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이유로 핵막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생긴 원시 진핵 세포에, 다시 약간 뒤에 다른 원핵 세포인 어떤 종의 남조류가 세포 내에 공생하여 이것이 엽록체(색소체)의 조상이 되었다.

여기서 왜 원핵 세포와 진핵 세포의 중간 단계 생물을 볼 수 없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답은 간단하다.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공생은 한 번뿐이었기 때문이다. 산소가 매우 적은 환경에 사는 생물 중에는 핵을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진핵 생물이지만, 미토콘드리아를 갖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이 가장 원시적 진핵 생물이 아닌가 생각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2차적으로 미토콘드리아를 상실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다.

초기의 진핵 생물은 모두 단세포였는데 그 중에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의 이행은 엄밀히 말하면 수수께끼이지만, 다수의 단세포 개체가 어느 정도의 유기적 연락을 가지면서 모이는 군체라고 하는 것의 존재가 그 힌트가 될지도 모른다. 모여서 생활하는 세포끼리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고, 각 세포의 유기적 연계가 긴밀해짐으로써 다세포 생물이 생겼다는 설이 유력하다.

원핵세포→진핵세포→다세포로 진화
최근 복제양등 생명합성 연구 활발

클론(복제) 양 돌리가 1996년 7월에 탄생하고, 그 후 소와 생쥐의 클론 만들기도 성공하였다. 생물의 종에 따라 난이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생물로부터 클론 만들기는 가능할 것이다.



◇녹조류인 볼복스. 다수의 단세포가 군체를 이루고 있다.

클론 기술은 어떤 의미에서 생명의 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술에서는 핵을 제거한 난세포에 밖에서 핵을 집어 넣어 개체 발생의 경과를 재발족시키기 때문이다. 핵을 제거한 난세포는 그대로 방치하면 얼마 안 있어 죽어 버리기 때문에 진실로 살아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거기에 밖으로부터 세포핵을 집어넣음으로써 개체 발생을 계속할 수 있는 '산' 존재가 다시 합성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 클론 만들기는 생명의 합성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 소재가 된 난세포와 핵은 살아 있는 동물에게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소재를 제공하는 생물 없이 실험실에서 난세포와 핵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래 살아 있는 생물 없이는 클론 기술을 추진할 수 없다. 현대의 생물학에서 '생물의 합성'이라고 할때는 생물에 유래하지 않고 산 세포를 손에 넣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초기의 생명진화에서는 'RNA 월드'가 우선 성립하고, 그리고나서 뒤에 그 기능중의 촉매 활성(대사)과 정보 전달(유전)의 면을 단백질과 DNA가 각각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선 단백질과 DNA에서 출발하는 것도 관계는 없다. 아미노산을 연결하는 단백질 합성 장치라든가 뉴클레오티드를 연결하는 DNA 합성 장치에 의하여 상당히 긴 연결을 가진 단백질이나 DNA 분자도 지금은 합성할 수 있다. 이것에 입각하여 단순한 대사와 유전을 하는 시스템을 조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역시 훌륭한 생명 합성의 제1보라고 할 수 있다.

물질로부터 조립하는 방향과 세포를 해체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방법, 이 양쪽으로부터의 연구가 연결될 때 과학은 생명 합성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간 〈과학 Newton〉서 발췌

혼돈의 시대, 김윤보 큰스님이 던지는 연꽃 에세이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이라네

인생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내가 괴로움과 시련으로 희망을 버린다면 사람이기를 저버리는 것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만났기 때문에 헤어지듯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괴로운 사람들아!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임을 명심하자. '아뇩다라 삼먁 삼보리'

"스님,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오늘부터 당신이 아들이 되고 아들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효도를 한번 해보면 전생에 당신이 아들에게 진 빚을 갚을지 압니까?"
"예, 스님. 저 아이만 좋아진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식으로 인해 한이 맺혔으면 자식에게 자식 노릇을 하면서 효도까지 하겠다고 할까?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방법을 말했다.

- 자식에게 효도하는 부모가 편하다 중에서

김윤보 (자옥산 대흥사 조실 · 염불종 종정)/신국판 336쪽/값 8,000원

연속 중판 돌입



경주시 안강읍 자옥산에 있는 염불종 총본산 대흥사(大興寺)



효형출판 TEL 756-0262 FAX.779-0263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자리신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인도불교 중흥 '희망의 씨앗' 심는다

한국JTS,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운영 5년

유영굴 순례객에게 구걸하던 아이들
94년 2월 전정각산밑 시타림터
수자타아카데미에 모여 공부 시작
5년이 지난 요즘 그 아이들은 인근마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JTS 기본방침은 '인도의 발전은
인도인의 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수자타아카데미는 개교 5년만에 지역의 명문 사립학교로 부상했다. 맨 앞줄이 유치원 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중학생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실습실 및 교사기숙사와 전정각사다.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전에 수행하셨다는 인도 보드가야의 전정각산(前正覺山). 서울 남산 높이의 산 허리에 부처님께서 고행하셨던 유영굴(留影窟)이 있고, 산 아래에는 옛날 시체를 버리던 곳인 시타림(苦行林)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 전 인적이 드문 이곳에 머물면서 하루에 대추 한 알 정도의 끼니만으로 극도의 고행을 했다고 전한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모하나강을 건너면 고행림에서 수행하다 쓰러진 부처님께 수자타가 우유죽 공양을 올렸다는 공양터가 나온다.

전정각산 바로 밑 시타림터에는 한국 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 법륜스님)가 '수자타의 공양' 정신으로 건립한 수자타아카데미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1월21일 오후 12시, 전정각산 학교 주변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한국에서 온 법륜스님과 50여명의 성지순례단을 반기는 환영식이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과 교사, 동네 주민들에 의해 정겹게 펼쳐졌다. 또 이날 오후 2시에는 수자타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인근 마을의 가람비가유치원 개원식이, 이튿날에는 학교 부설 전정각사 개원식 및 개교 5주년 기념행사, 마을 순회 쌀나누어주기 행사 등이 이어져 연일 잔치 분위기였다.

1월22일 오전에 거행된 개교 5주년 기념식은 학교 설립·운영과정에서 숨하게 겪었던 어려움을 보상이라도 하듯 엄숙하게 진행됐다. 보드가야 대탑 주변 각 나라 사찰의 스님들과 나란다대학의 부총장을 비롯한 십여명의 교수들, 가야시의 관리 등 3백여명의 내빈이 대거 참석, 수자타아카데미의 발전에 경이와 축하를 보냈다. 며칠전부터 5주년 기념식 등 이틀간의 행사를 준비해 온 10여명의 교사와 4백여명의 학생들도 자랑스러운듯 입가에 미소가 그치지 않는다.

지난 94년 2월 마을에서 기증받은 5백여평의 땅에 학교 건물을 지으면서 시작한 수업. 건물도 완공되지 않은 가운데 마을 젊은이들이 자원봉사 교사로 나서 어수선한 가운데 출발한 학교가 이제는 보다 넓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가야지역의 사립명문으로 발돋움했다.

법당·유치원도 개원 '축제 분위기'

수자타가 부처님께 공양올렸듯
한국불교가 석가족에 '교육공양'

지난해까지만해도 수백명의 인근 국립학교 학생들이 전학을 해와 학생들이 6백여명에 달한 적도 있다. 학교측은 양민 출신의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아지자 불가촉천민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원래의 취지에 맞게 많은 학생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했다. 양민 출신 학생들이 많아지자 카스트가 낮은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게 되었기 때문.

불과 5년여만에 수자타아카데미가 지역에서 주목받는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한 것은 석가족 출신의 교장 수레스(30·석가족불교청년회 회장) 등 교사들의 무급교육과 이덕아(31) 법사 등 JTS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

유영굴에 순례온 관광객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던 동네 아이들이었다. 수업도중에 관광차 연진 소리만 나면 교실밖으로 뛰쳐나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엿한 유치원 교사들이 된 것이다. 40여명의 중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받는 대신 오전에는 9개 마을 유치원에서 각각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에 수업을 받는다. 학생 겸 교사의 역할을 하다보니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더욱 어른스럽고 교육진도도 빠르다.

학교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다. 2000년부터 중학생 기숙사를 건립하고 뛰어난 학생들은 대학교까지 진학시켜 의사·교사 등을 양성, 애향심 있는 일꾼들을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이는 JTS와 수자타아카데미가 추진해 온 전정각산 주변 16개마을 개발사업(식수·농업용수 개발, 주택개량, 문맹퇴치, 질병퇴치), 학교 부설 지바카병원의 종합병원화, 학생·주민 기술교육 실시 등과 맞물려 있다. 인도인의 교육과 발전은 인도인의 손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JTS의 기본 방침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아·질병·문맹의 퇴치가 JTS의 궁극 목적은 아니다. 이는 인도불교의 중흥, 또는 세계의 정토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JTS가 파트나 및 상카시아 지역의 석가족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 파트나의 불교신자들이 96년 1월에 개원한 아쇼카 보드 비하르(인도 절)와 웨스트 포인트 아카데미를 돕고 있으며, 1천여명에 달하는 상카시아 석가족 불교청년회의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석가족이 자신들이 부처님의 후손들이라는 자각을 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전. 인도 종교인구의 0.5%에 불과한 불교신자들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힌두교의 아성을 파고들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 불자들이 인도에 사찰을 건립하는 등 불교성지로 다시 모이고 있어 희망이 빛이 뻗어가고 있다.

JTS 인도지원 주요사업

▲1991년 ▷1월=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 인도 네팔 성지순례시 국제 봉사사업 발원.
▲1993년 ▷1월=정토 제1차 성지순례중 순례단이 부다가야 둥게스리 마을에 한국에서 준비해 간 옷들을 나누어 줌. ▷12월=3개월간 현지에서 학교와 병원 설립을 위한 준비, 주민들 의견수렴.
▲1994년 ▷1월=둥게스리 마을 사람들 땅 10가타 기증. ▷2월=전정각산 아래 수자타 아카데미 신축, 학생 120명 수업 시작. ▷5월 18일=AMERICA JTS 종교법인(회장 법륜스님) 설립. ▷6월=연변대학교에서 〈조선통사〉 〈한일투쟁유적지 소개서〉 〈고구려 발해 유적지 소개서〉 발간 지원(조선족 무료배포). ▷10월=INDIA J.T.S. 사회봉사법인(이사장 프라즈나난다 스님) 설립.
▲1995년 ▷6월 둥게스리 마을에 클레라 발병, 긴급의료지원.
▲1996년 ▷8월=한국 JTS 사단법인 인가. ▷11월=전교생 600명 대상 무료급식 시작.
▲1997년 ▷1월=수지타 아카데미 준공식. △9월=인디아JTS 마을개발사업 추진. ▷11월=뉴욕JTS, 나진-선봉 행정경제위원회와 어린이 구호사업에 대한 합의서 교환.
▲1998년 ▷1월=수지타아카데미 부설 유치원 준공식. ▷3월=인근지역 마을 유치원 건축 시작. ▷3월=나진-선봉 어린이 영양식 가공 공장 가동. ▷6월=뉴욕JTS 나진-선봉 상주대표사무소 공식 개설. ▷9월=부산-나진 직항로 이용, 매월 1회이상 어린이 영양식 원재료 전달.
▲1999년 ▷1월=수지타아카데미 부설 전정각사 개원, 가람비가 유치원 개원.

법륜스님은 석가족 앞에서 이렇게 서원했다. "나는 이곳에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수자타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듯이 나는 수자타의 후예인 여러분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니까요. 다섯 번의 생을 인도불교의 중흥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인도 보드가야=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JTS는 1월22일 학교주변 7개 마을에 20kg들이 쌀 5백여 포대를 주민들에게 나누어줬다.



◇한국JTS는 1월22일 한국에서 조성한 부처님을 모신 수자타아카데미 부설 전정각사를 개원했다.



◇1천2백여평의 대지에 총건평 7백여평의 건물 2동으로 구성된 수자타아카데미는 교실, 병원, 도서실, 교무실, 교사기숙사, 유치원 법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은 재봉 실습실.

인도 8대성지 이외의 불교성지들

불교의 4대 성지는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네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브드가야, 초전법륜이 이루어진 녹야원(싸르나트), 열반처인 쿠시나가라 등이다. 또 8대 성지는 여기에다 카필라성(카필라바스투)을 비롯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펼친 주요 무대인 왕사성(라즈기르) 비야티성(바이샬리) 사위성(쉬라바스티) 등이 포함된다. 8대 성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부처님 생애에서 의미가 깊은 곳들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쿠단 네팔 타울리하와의 카필라성 서남쪽 약 5km 지점에 위치한 마을. 부처님께서 보드가야에서 성도 후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을 때 정반왕이 이곳을 찾아와 부처님을 만난 일을 기념한 곳. 이모인 마하파사파제가 금란가사를 바친 곳이기도 하다.



니그리하와 현재 현겁(現劫) 제2불이며, 과거7불 중에 제5불인 구나함모니불의 탄생지. 네팔 틸라우라코트의 북동쪽 약 7km지점에 위치. 아쇼카왕이 즉위 14년째 되던 해 석주를 세웠다.

영불탑(迎佛塔) 녹야원 주요 유적지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탑. 부처님과 함께 수행했던 5비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중히 머리를 조아린 장소이다.

상두산(象頭山)



인도 비하라주 가야시 인근에 위치. 가야 가섭의 수행처. 가섭 3형제 및 그들의 제자 1,000을 교화한 부처님께서 빔비사라왕의 요청에따라 왕사성으로 가던중 산봉우리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을 바라보며 유명한 산상설법을 하셨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탐·진·치의 불로 인해 타고 있다. 탐욕과 어리석음의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그는 괴로움으로 여의고 해탈을 이루리라."

수자타 공양터 가야시 네이란자강 건너편 강둑에서 6분 거리에 위치.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전 수자타로부터 우유죽 공양을 받아 도를 성취한 '수자카의 공양'은 '춘다의 공양'과 함께 '2대 공양'으로 불리운다.

우루벨라가섭 수행터 녹야원에서 5비구를 교화하신 부처님께서는 가야의 네이란자 강변에서 불의 신을 섬기는 카샤파 3형제와 그들의 제자 1천명을 이곳에서 제도했다. 부처님께서는 이들 3형제중 맏형인 우루벨라 카샤파를 찾아가 그를 절복시키고 제자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당시 가장 큰 교단이 그대로 불교교단에 흡수되었다.

유영굴(留影窟)

전정각산 서쪽 산허리에 위치한 동굴. 부처님께서 성도하기 직전 수행하시던 곳. 부처님께서 수자타의 공양을 받고 나서 이곳에서 깨달음을 이루려 했으나, 산신과 천신이 두려워하며 고행림 근처의 보리수 아래에서 성도하기를 간청해 그림자를 남기고 산을 내려왔다.

쿰라하르 아쇼카시대의 궁전터로 제3결집이 이뤄진 곳. 당시의 수도 파탈리푸트라의 룩쿠타아라마(銷罐) 상가에는 수많은 외도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법을 손상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쇼카왕의 왕사 목가리풋타 틋사 장로는 천명의 비구를 모아서 이설을 배척하고 정법을 바로 세웠다. 제3차 결집으로 저술된 것이 '논사(論事)'다.

춘다의 공양터



쿠시나가르에서 동쪽으로 17km지점에 위치한 차티하우 마을에 위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파바'라는 교외의 한 과수원에 머무셨을 때 과수원의 주인 대장장이 춘다는 부처님을 비롯한 대중에게 최후의 공양을 올렸다.

상카시야 부처님께서는 성도후 천계로 올라가 마야부인과 죽은 사람들을 위해 진리를 설하신 후, 천계에서 3개월을 보낸 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곳이 바로 상카시아였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⑦

所以道吾舞笏 石霜拈弓 祕魔擊柝
소이도오무홀 석공염궁 비마경차
俱胝竪指 忻州打地
구지수지 흔주타지
雲巖師子 莫不發明這箇大用
운암사자 막불발명저착대용
於日用不迷 自然縱橫無碍
어일용불미 자연종횡무애

그러므로 도오스님이 홀을 잡고 춤을 춘 것(후학이 법을 물으면 도오스님은 홀을 들고 춤을 추었다)이나, 석공스님이 활을 당긴 것(원래 사냥꾼이었던 석공은 깨달은 뒤 활을 당겨 과녁을 맞추는 시늉으로 법을 말했다)이나, 비마스님이 작살을 든 것(작살을 들어서 법을 보였다)이나, 흔주스님이 땅을 두드린 것(땅을 치는 것으로 법을 보였다)이나, 운암스님의 사자(그는 사자를 만들어 놓고 법을 물으면 그 사자를 희롱하는 것으로 법을 보였다) 등이 모두 이 진심의 큰 작용을 나타낸 것 아님이 없으니, 날마다 작용하는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는다면 절로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 줄을 아는가 하면 시험삼아 그것을 말해보리라. 신묘한 본체(妙體)는 움직임이 없어서 온갖 상대를 초월하여 일체의 형상을 떠났으므로 본성을 깨달아 증득한 자가 아니면 그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다. 그리고 신묘한 작용(妙用)은 인연을 따라 온갖 종류에 응하여 거짓되이 허상(虛相)을 세우므로 마치 형상이 있는 것 같다. 이렇듯 유상(有相)이다 무상(無相)이다 하는 면으로 본다면 하나가 아닌 것이다.

又用從體發 用不離體 體能發用
우용종체발 용불리체 체능발용
體不離用 約此不相離理故 非異也
체불리용 약차불상리이고 비리야
如水以濕爲體 體無動故 波以動
여수이습위체 체무동고 파이동
爲相 因風起故 水性波相 動與不動故
위상 인풍기고 수성파상 동여부동고
非一也 然波外無水 水外無波
비일야 연파외무수 수외무파
濕性是一故 非異也 類上體用一
습성시일고 비리야 유상체용일

"날마다 작용하는 마음 미혹하지 않으면 절로 자유자재하여 걸림이 없다"

다."

5. 진심의 본체와 작용은 같은 하나인가 다른 것인가(眞心體用一異)

或曰眞心體用 未審是一是異耶
혹왈진심체용 미심시일시이야
曰約相則非一 約性則非異 故此體用
왈약상즉비일 약성즉비이 고차체용
非一非異 何以知然 試爲論之
비일비이 하이지연 시위논지
妙體不動 絶諸對待 離一切相 非
묘체부동 절제대대 이일체상 비
達性契證者 莫測其理也 妙用隨緣
달성계증자 막측기리야 묘용수연
應諸萬類 妄立虛相 似有形狀
응제만류 망립허상 사유형상
約此有相無相 故非一也
약차유상무상 고비일야

물었다. "진심의 본체와 작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같은 하나인가 다른 것인가?"

대답했다. "형상으로 본다면 하나가 아니나 본성으로 본다면 다르지가 않다. 그러므로 본체와 작용은 하나라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작용은 본체로부터 생기는 것이니 작용은 본체를 떠난 것이 아니며, 본체는 능히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니 본체는 작용을 떠난 것이 아니다. 이렇듯 서로가 떠남이 없는 이치로 본다면 다른 것이 아니다. 마치 물이라는 것은 습기(濕氣)가 본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본체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그 본체가) 움직임으로써 물결(파도)이라는 형상을 이루게 되는데, 이는 바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물의 성(性: 즉 습기라는 움직임이 없는 본체)과 파도라는 형상으로 본다면 움직이는 면과 움직이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파도를 떠나서 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떠나서 파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습기의 본성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은 것이다. 이상으로 미루어보아 본체와 작용이 하나인지 다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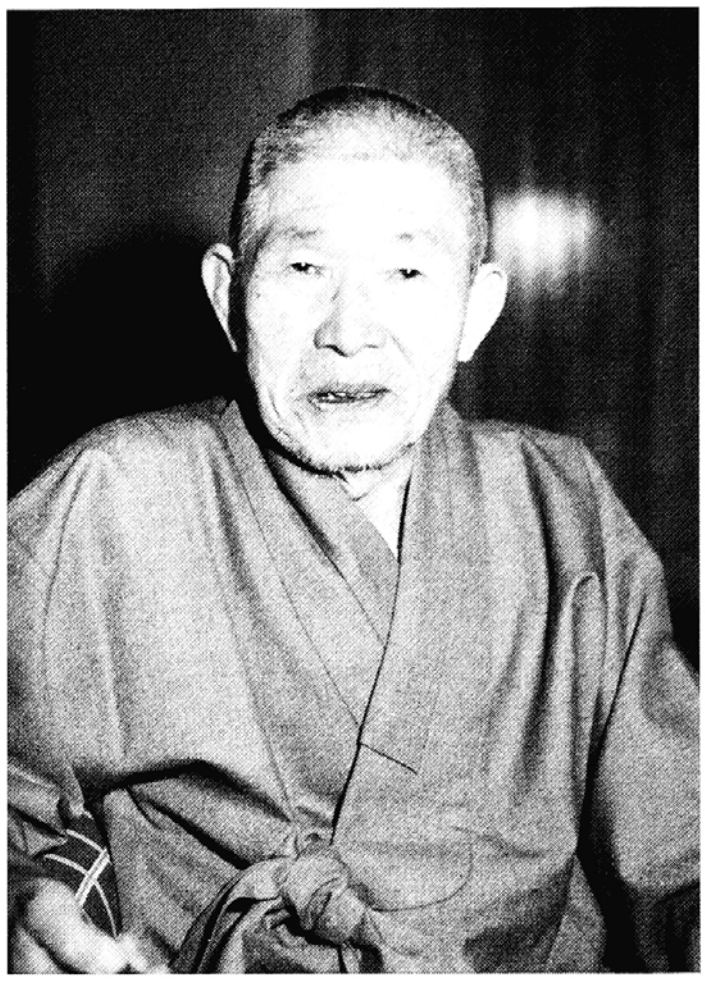
異 可知矣
이 가지의

김원각〈시인〉

큰스님 수행한담

"모든 고통 업장때문이니

일 웅 스 님 〈대구 법흥사 주지〉



- 1916년 대구 生
- 30년 동화사에서 조대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 30년 황보응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 37년 동화사 전문강원 졸업
- 39년 봉선사에서 박영호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 41년 혜화불교전문학교 졸업
- 70년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 74년 태고종 경북교구종무원장
- 85년 태고종 경북교구 종회의장
- 현재 대구 법흥사에 주석

나는 팔공산자락 바로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당시 팔공산 동화사 승통(나라에서 승려들에게 내린 직위: 지금의 주지)이셨는데 인근 고을에까지 알려진 명필이었습니다. 슬하에 딸만 하나 두었는데 아들을 걷기위하여 어머님이 동화사 금당에서 백일기도를 해서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작은 외삼촌도 영천 은해사스님으로 있는 등 친 외가가 모두 독실한 불교집안이었습니다. 태어나기전부터 출가의 인연이 고루 갖추어진 셈이지요.

내가 세살되던 해 유행성감기로 조부님과 아버님 그리고 누님을 모두 잃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후 서당공부를 어느정도 마치게되자 자연스럽게 동화사로 입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사의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찌 대장부라 하며 숙세의 불은(佛恩)은 또 어찌 갚으리오" 스스로 각오를 다지며 1년여의 피나는 행자시절을 마치고 동화사선원장으로 계시던 대우당 서화(瑞華)스님을 은사로 삭발식을 할 때는 선친의 모습이 어렴풋하게 떠올라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불연의 지중함에 감격이 복받친 것입니다.

은사스님은 제자들의 공부자리를 단련(鍛鍊)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공양 때가 되면 사소한 꼬투리를 잡아 심하게 꾸중하시기도 하고 된장국을 엎질러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행동에 소홀함이 있으면 모진 매질까지도 서슴지 않으셨는데 남들이 보는 앞이라고 사정을 봐주지 않았어요. 항상 깨어있으면서 화두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었고 흐리멍텅하게 망상에 젖어있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지요. 마음이 느슨해지면 탐진치 삼독이라는 도적이 쥐도 새도 모르게 침범합니다. 침범한 뒤에 쫓아내려면 곱절 힘이 들므로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상 마음을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중국의 임제스님같은 분은 본래 한생각 돌이켜 한 물건도 없으면 굳이 따로 도를 닦을것도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 한생각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세생생 내려오는 훈습이 있어 마음을 그대로 방일하면 탐진치 삼독에 빠져들기가 십상인 까닭이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화두다 관법이다 염불이다 해서 갖가지 수행방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화두참구법이 가장 수승한 견성법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마음공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들 해요. 그런데 요즈음 화두를 보배처럼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화두 드는걸 자랑삼아 생각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두란 평생 눈감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설익은 납자들이 깨쳤다는 둥 견성했다는 둥 하지만 부처님 말씀 가운데 '증지소지비여경(證智所知非餘境)'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진득한 지혜는 다른 경계가 없다는 뜻인데 깨쳤다는 그 말부터가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리고 다니는 꼴입니다.

염불기도는 이기적인 대가를 바라면서 욕심으로 하면 위험하지만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방편으로 한다면 다른 수행법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고 또 행주좌와 어

불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깨닫지 못하고 무명속에 있는 것 초발심으로 더욱 정진하세요

묵동정에 할 수가 있어 생활수행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복으로 기도를 한 경우에도 기도에 몰입하여 마음이 비워지고 순수해졌을 때 영험이 나타나는 것이지, 마음속에 뭔가를 바라는 욕심이나 조급함이 가득차 있을 때는 영험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는 기도의 영험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스스로 병을 치유한 나의 체험담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60세가 가까워지자 기력이 예전같지가 않았습니다. 40대시절 포교에 매진하면서 한편으로는 태고·조계종간의 분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력을 소진했던 탓인지 피로가 누적되고 쉽게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몸은 곧 마음을 반영합니다. 몸이라는 글자의 한획만 바꾸면 맘이 되는데 이는 곧 마음의 준말입니다. 예로부터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했어요. 특히 얼굴은 얼이 드나드는 굴(동굴)이라고 해서 그사람의 전체를 대변하는 곳으로 중시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인데 지나치게 힘을 쓰거나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노여워하는 것은 모두 병의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옳고 좋아 보이는 것도 순리를 좇아서 해야지 욕심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기지요. 자기몸이라도 함부로 굴리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되지요. 종단사태 이후 십수년을 쉴 사이없이 신경을 과도하게 쓰다보니 병이 올 수 밖에요. 한의원에 가서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 먹어도 차도가 없자 큰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간경화말기증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승려로 살다가 죽으니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전에 기도나 열심히 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렸는데 여러달이 지나면서 병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밤, 도저히 오늘밤을 넘길수 없겠다 싶어요.

"과거 수억겁을 지나오면서 아프지 않은 때가 있었겠는가,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은 오직 마음의 상(相)일 뿐이다" 고 한 생각을 돌이켜 몸을 간신히 추스리고는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을 향하여

여시아문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참선요지(參禪要旨)

선(禪)은 가장 궁극적인 일이며,
모든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이 일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길이 소멸해 버린 자리(言語道斷 心行處滅)이며,
생각으로는 미칠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허운(虛雲)화상 법어, 대성(大晟)스님 옮김
B6변형 278쪽/ 값5,500원/ 여시아문 펴냄



주머니속 대장경 301 - 선(禪)

허운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초심자는 공부를 해도 향상되지 않고,
구참자는 중간에 머물러 게을러지게 되니
선수행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허운 화상(1840~1959)은 1840년 중국 복건 천주에서 출생하였다. 13세 때 서울 관음보살의 일대기 등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19세 때 출가, 고산 옹천사의 묘련화상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27세에는 모든 소임을 놓고 3년간 일념으로 관조와 염불을 하였으며 31세에는 천태산 용천암 융경 노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스님은 젊은 시절 온갖 고행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불법을 구했으며, 갖은 병고와 액난에도 굴하지 않고 게을을 엄수하고 근고정진한 끝에, 종문의 심인(心印)을 깊이 깨달아 단절되다시피 한 5종 가풍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외세의 침략과 공산 정권하에서도 승도를 수호하고 사찰, 불당의 파괴를 막았으며 대소 수십개소의 가람을 복원하는 한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불문에 귀의시켰다. 그의 문하에서 출가하거나 수계한 제가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스님의 일생은 진정한 수행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 귀중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깨달음의 법(法)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통째로 던지는 하나의 거대한 실천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안일과 나태, 그리고 온갖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 대한 통렬한 질타이기도 하다. 결국 스님의 가르침은 스님 자신의 이러한 치열한 수행의 체험이 그대로 결정화된, 요긴한 말씀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옮긴이의 말 중에서)

수록 내용

제1부 참선요지
제1장 참선의 선결 조건
1. 참선의 선결 조건
2. 성불(成佛)의 방편
3. 화두 참선법
4. 공부의 어려움과 쉬움
제2장 선방 법문
1. 이끄는 말
2. 공부의 입문 방법
3. 공부의 두 가지 어려움과 쉬움
4. 결론
제3장 참선경어
제4장 제석보다시중(除夕普茶示衆)
제5장 수행과 불수행
제2부 선칠법문
부록
1. 허운 화상 약전(略傳)
2. 어휘 해설
3. 인명 해설

큰스님 수행한담

참회로 녹이세요"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열린 '제1회 한국불교 태고종 종단지도자 강습회' 기념사진. 맨 뒷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가 일중스님.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 틈을 삼독이란 도둑이 침범해요 늘 깨어있어야 도둑을 막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일체가 다 내자신이 지은 업장때문임을 참회하고 성불의 인연 짓기를 발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기도중에 하얀 소복을 입은 부인이 찾아왔는데 안면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요사채로 인도하니 "요즈음 스님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더니 어떻습니까?"고 안부를 물어요. "아직 많이 아픕니다"고 하니 부인이 "제가 아픈 곳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해 아픈 곳을 보여주었더니 부인은 손으로 환부를 만지며 약봉지를 꺼내고는 먹기를 권해요. 꼭꼭 씹어서 먹었더니 부인은 "스님, 다음에 또 들리겠습니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몸을 감싸는 것 같아 정신을 차려보니 방안이 아니라 법당에 앉아서 추운줄도 모른채 잠시 삼매에 빠져있었더라구요. 아프던 몸이 어느새 말끔하고 머리가 맑아요. 돌아서서 법당안을 둘러보니 부처님뒤 후불탱화에 그려진 백의관음께서 빙그레 미소짓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비몽사몽간에 본 그 부인의 모습이 바로 백의관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일이 있은 뒤로 차츰 병이 나아져서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내 체험을 얘기했지만 기도의 힘은 상상이상으로 큽니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거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수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에는 '나'라는 아상이 개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상을 제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이 괴로운 까닭은 분별심때문입니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 "누구는 잘사는데 나는 왜 못살까" "내가 이모양 이꼴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등등. 분별심으로부터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의 종자가 싹트게 되고 고통이 뿌리내리게 되는 거지요. 분수이상으로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재물이나 권력에 눈이 멀어 법도를 따르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무서운 도리입니다.

대구 용천사에 우익이라는 노장스님이 한 분 있었는데 배운 바가 없을뿐 아니라 성질이 고약하여 대중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병을 얻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 외상으로 약을 지어 먹었지요. 그런데 병은 차도가 없고 약값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지요. 밀린 약값 때문에 대중공의를 열었으나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자 우익스님은 종각의 기왓장을 벗겨 팔자고 제의했어요.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된 우익스님은 그날밤 종각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후 우익스님의 행패는 날로 심해졌고 견디다 못한 여러 스님들이 절을 떠나버리자 우익스님 혼자 남게 되었는데 자기멋대로 법당의 기왓장을 벗겨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엉덩이에 딱딱한 뿔이 돋기 시작했는데 자라나면서 거꾸로 살을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익스님은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 있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사람을 불러 톱으로 뿔을 잘라내는데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고통때문에 지르는 비명소리가 소가 우는 듯하여 듣는 사람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들이 수행은 하지않고 만고에 죄를 짓고 있어요. 진실로 마음을 닦는 공부만을 하기에도 시간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자동차가 낡으면 못쓰게 되듯 사람도 늙으면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하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아도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니 후회막급이요,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혈기들을 수행쪽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말법시대에는 마강법약(魔強法弱)이니 마음을 다잡아 수행하지 않으면 자칫 그릇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극락과 지옥은 마음안에 있습니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깨달음을 얻지못하여 무명(無明)속에 있을 때 가장 큰 지옥이라는 생각을 해야합니다.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 수행자의 마음은 늘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큰소리칠 것이 아니라 직접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불교는 바로 자신이 깨달음을 얻기위한 수행법입니다. 부처나 보살 혹은 아라한이 주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가를 하던 하지 않던, 직책이 높던 낮던, 돈이 많던 가난하던 깨달음을 얻는 자가 불교의 정수(精髓)를 마신 것이지요. 80평생을 돌이켜보아도 견성을 못하면 회한만이 남을 따름입니다.

동해바다로 흐르는 물은 백천번 굽이쳐도 결국 동해바다에 이르듯, 깨달음을 이루기로 굳게 서원을 세운 수행자는 수많은 좌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구경처에 도달합니다. 초발심이 변정각입니다. 신(信)해(解)행(行)증(證) 4과(果)로써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以心傳心 傳法信(이심전심 전법신)
晝耕夜讀 勤學解(주경야독 근학해)
時時刻刻 不息行(시시각각 불식행)
依理修行 果自證(의리수행 과자증)

"이심전심 믿음으로 정법을 전하고, 주경야독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며 시시각각 수행함이 쉼없이 이어지면, 본래자리 나타나서 저절로 성불하리"

우리 태고종에서는 전통적으로 금까마귀와 옥토끼를 수놓은 홍가사(紅袈裟)를 수하는데 여기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 신라나 고려시대 조사스님들의 영정을 살펴보면 가사색깔이 붉은 색임을 확인할수 있는데 붉은 색은 탁한 색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꽃이 더러운 물속에서 오염되지 않듯 세상이 나를 더럽힐수 없다'는 교리상의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금까마귀와 옥토끼는 일월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도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지요.

옛날 전라남도 남원읍 교룡산에 교룡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중창을 위해 가사불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읍에 대복이라는 아전이 살고 있었는데 성질이 아주 꼬장꼬장하고 불교를 몹시 멸시했습니다. 어느날 점쟁이가 왔기로 부인이 신년운수를 물어보았더니 남편은 물에 빠져죽고 부인은 화살에 맞아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부인이 교룡사 스님께 대책을 물었더니 마침 가사불사를 시작하였으니 동참하고 날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하라고 했답니다.

회향하는 날 부인이 남편 몰래 교룡사로 떠났는데 이를 안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뒤쫓아갔습니다. 자신을 거역한 부인을 죽일 작정으로 활을 두번이나 쏘아 맞추었는데도 요행히 부인은 죽지 않았어요. 절에 당도하여 스님에게 드릴 가사를 꺼내니 그 속에서 화살촉 두 개가 나왔습니다. 가사를 펴 보니까 두군데 구멍이 나 있어요. 이를 본 대복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님과 부인에게 참회했습니다. 대중들은 일월과 같이 부처님의 영험을 증명한 활촉 구멍에다 금까마귀와 옥토끼를 수놓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일월광을 붙인 가사는 인도 중국 일본에는 없고 오직 우리나라에만 전해지고 태고종에서 계승하고 있습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아무리 옳은 일도 순리에 따라해야지 욕심 부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나의 수행일기



김 필 성 〈능인의사회 회장〉

"좋은 직업을 가지셨네요! 돈 많이 버시겠어요!"

초면에 인사를 나누고 나면 간혹 이렇게 첫인사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 이땅에서 의사라는 직업이 갖는 위치, 특히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의 단적인 예가 아닐까? 미국 생활을 오래했고, 의사이고,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대체로 "주말에는 교회에 가시느라 바쁘시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아뇨, 전 절에 가는데요"라는 대답을 들으면 신기하다는 듯이 다시 쳐다보곤 한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가정환경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직업, 거기에 비교적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의 내게 치과의사만큼 적당한 직업이 생각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첫인사부터 날 면구스럽게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구차한 해명이 될런지 모르겠다.

불교에 내가 불자이면서 의사라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사실 다른 종교들은 우리 불교에 비해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 불교는 너무 사회와 동떨어진 느낌이 가끔은 아쉬울 때도 있어 능인의사회가 더욱더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능인선원과의 인연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부터다. 부부가 한 몸으로 하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첫단추라는데 가족모두의 의견이 모아져, 아내와 함께 능인선원 불교대학을 나가기 시작했다. 힘든 일과를 마치고 일주일에 두번 아내와 데이트반, 공부반으로 다닌 불교대학에서 경전공부를 하면서 종교인의 도리와 함께 부부로서의 도리도 새삼 깨우치게 되었다.

아내와 함께 불교대학서 경전공부 환자의 고통 느끼는 순간 약사보살 돼



치료가 끝난 뒤 이제야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느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느니, 고통없이 밤을 보냈노라며 감사해하는 환자들을 보고있노라면 내가 내 머리를 두어번 쓸어내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진심어린 정성만큼 좋은 전략이 없다는 삶의 지혜를 배운다.

치과치료란 것이 사람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는데다 환자의 표정을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가 고통을 참으면서 치료를 받는 걸 보면 여간 마음쓰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치료를 하다보면 이심전심의 마음이 된다. 주제넘지만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순간만큼은 약사여래의 마음이 되어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지금 힘을 보태고 있는 능인의사회 활동도 미력하나마 내가 의사이기에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봉사활동이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달에 한번 있는 의료 강연, 무료진료, 이런 것들은 만약 내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감히 할 엄두도 못 내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불자이면서 의사라는 사실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처음 강의를 듣기 시작할때 어려우면 어떡하나 걱정도 많이 했었다. 다행히 지광스님의 강의는 과학적이고 아주 쉽게 이해되었다. 사실 불교대학을 다니기 전 아내와 나는 말다툼도 많이했고, 특히 내가 아내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다. 어느날엔가 지광스님의 강의중 "내가 상대에게 못마땅해 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때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라"는 구절에 우리 두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웃었다. 그후 그 말씀대로 행하니 모든 것이 너무도 편안해졌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잊지않고 있다. 능인선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안에서의 시간은 그날 배운 경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생활 속에서의 실천방법, 의사로서 불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또 부부간의 신의를 다지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기억된다. 물론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불교의 이념에 따라 수행하고 행하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위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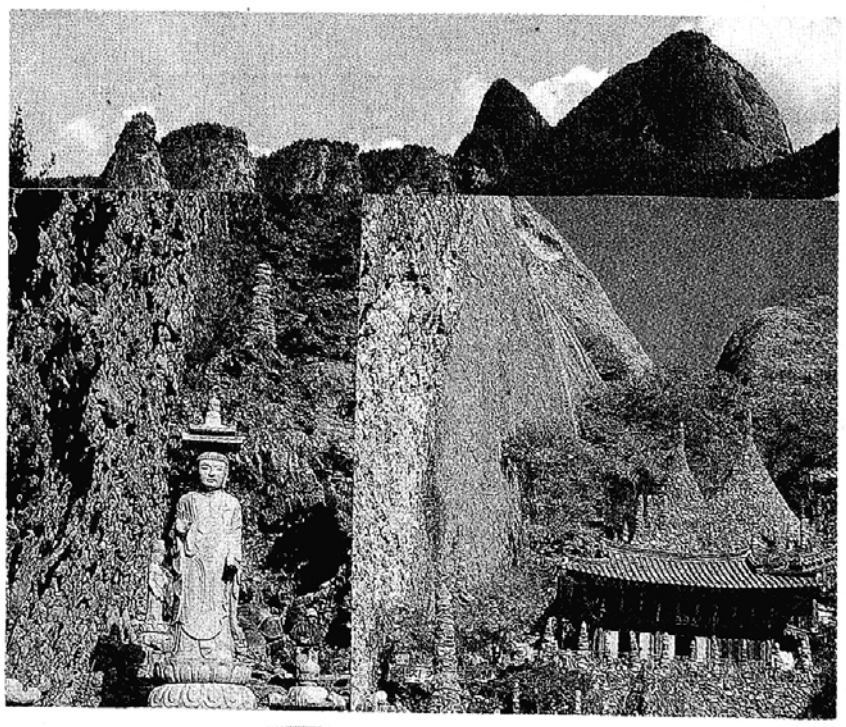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차별없이 품어주는 만물의 어머니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땅에 머물고 계신 지장보살. '지장(地藏)'이란 이름은 땅을 주처로 하여 항상 머물고 있다는 의미이다. 통도사 명부전.



◇조선 성종(性宗)스님이 정토신행(淨土信行)을 권유하기 위해 지은 '정토보서(淨土寶書)'.

월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24

땅

"땅은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땅은 '이것은 깨끗하다. 이것은 더럽다'고 분별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땅과 같이 해야 하리라.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대해야 한다." 〈증일아함경〉

'중생들의 세계'인 땅은 하늘과는 또 다른 정기를 간직한 공간으로, 만물의 존재양상을 다스리는 힘이 존재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동·서양 가릴 것 없이 땅은 '어머니' '고향' 등을 상징하며 온갖 생물·무생물을 품어주고 키워내는 곳이다. 모든 것을 분별없이 품에 안을 수 있는 '어머니'에 견주어지기에 '풍요'를 상징하며 만물을 생산해 내기에 근본으로 여겨진다. 만물을 이루고 있는 4대 요소로 지(地)·수(水)·화(火)·풍(風) 가운데 땅(地)은 '인체의 골격과 같이 물체가 오래 지속하게 하는 작용을 하도록 기본을 이루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원효스님은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에서 '중생심(衆生心)의 성품은 허공과 같이 걸림없이 자유로운 것이니 어떠한 모습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불국토니 예토니 하는 구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중생 스스로가 미혹하여 갖가지 혼탁한 흐름에 빠지는 것일 뿐이며 이러한 일들은 모두 거대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꿈을 깨고 보면 이 곳과 저 곳의 구별이 없어지고, 예토니 불국토니 하는 것도 본래 일심(一心)으로 나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우리들의 현실세계인 예토도 마음먹기에 따라 불국토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불교에서의 땅은 중생들이 사는 현실세계이면서 부처님이 화현하는 '도량(道場)'을 총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사복이 말을 마치고 풀뿌리를 뽑으니 그 아래에 명랑하고 청허한 세계가 전개되었다. 힐보 난간에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들어가니 땅은 금방 닫혀졌다." 삼국유사의 이 기록은 땅길이 축은 이의 세계(저승)이면서 동시에 또다른 불법의 세계, 곧 화엄의 세계임을 말하고 있다.



◇극락의 모습을 그린 '관경변상도'. 서방 극락정토의 주불인 아미타여래가 설법하고 있는 가운데 왼·오른쪽에 시방불이 극락정토를 내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도사 서운암.

"수행자는 마음을 땅처럼…"

정토 번뇌 여읜 청정한 불국토

피안 생사바다 넘은 깨달음의 세계

■서방정토

정토(淨土)는 번뇌를 여의고 깨달음의 경지에 든 부처님이나 보살이 사는 청정한 국토를 상징한다. 즉 번뇌의 더러움을 여읜 깨끗한 세계이다. 경전에서는 미(迷)한 인간이 사는 세계가 아닌 곳으로 '불찰(佛刹)'이라고도 한다. 서쪽 방향을 가리키는 '서방'이라는 이름과 함께 쓰이는 까닭은 인도인들의 방위관과 시간관에서 유래한다. 인도인들은 동쪽을 보면서 앞은 과거, 뒤는 미래라고 믿어 극락이 서방에 있고 내세에 왕생할 세계로 믿었다. 정토의 위치를 〈화엄경〉에서는 '연화장세계 가운데 불찰 미진수 찰종(刹種)이 있으니 찰종은 모두 이십중(二十重)이 있으며 찰종은 모두 이십중(二十重) 세계로 되었다. 찰종의 제십삼층(第十三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있으니 십삼불찰 미진수 세계로 둘러 싸였으며 사바세계의 서쪽으로 십만억세계를 지나가서 정토세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정토의 모양을 〈아미타경〉에서는 '대지(大地)는 금·은·산호·호박 등 칠보(七寶)로 되어 아름답게 광명이 비치고 있고, 이 칠보의 땅은 갓이 없이 넓으며 항상 온화하여 적응하기 좋은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사찰이름에 '정토사'가 유난히 많은 것도 '서방정토'에 이르고자 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토삼부경

〈무량수경(無量壽經)〉과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 〈아미타경(阿彌陀經)〉 이 세가지 경을 합해서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르는 습관은 일본에서 생긴 것이지만 모두 다 서방극락정토, 아미타불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정토신앙에 관련한 경전이다. 정토삼부경의 요지는 '칭명(稱名) 염불을 통한 정토왕생'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지옥

'지옥(地獄)'은 산스크리트 'Naraka(奈落迦·奈落)'의 의역인데 '행복이 없는 곳' 또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두운 곳'을 가리킨다. 죄업에 따라 생사를 반복하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六道) 중의 하나로 죄의 과보를 받는 고통스러운 곳.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중생들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거운가를 일깨워 나쁜 짓을 그치고 착한 일을 널리 행하도록 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

경전에 나타난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는 '지장보살도' '육도그림', '시왕도(十王圖)' '감로왕도(甘露王圖)'가 있다. 절에서 명부전(冥府殿)과 시왕전(十王殿) 등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역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극락에 가고자 하는 염원의 상징이다.

■지장보살

지장(地藏)보살은 도리천에서 석가여래의 부촉을 받고 매일 아침 선정(禪定)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며, 모든 생명을 기르는 대지처럼 세상을 큰 가슴에 보듬어 안고 중생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머금고 있는 분이다. 지장은 땅(地)을 주처로 하여 그 대지 안에 항상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지장보살은 일체중생의 선근(善根)을 키우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옥중생의 마지막 하나라도 제도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서원을 세운 까닭에 육도 어느 곳이든지 몸을 바꾸어 나투며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한다.

■피안

건너편, 저쪽 언덕이라는 뜻으로 '이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피안(彼岸)은 미혹의 차안(此岸)에 대하여 깨달음의 세계를 말한다. 즉 생사(生死)의 바다를 건넌 깨달음의 언덕, 열반의 경지를 의미하고 있다.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고자 하는 중생들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염송하는 반야심경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자.'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자는 멋있고 힘이 넘치는 주문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 철원에 '도피안사(到彼岸寺)'가 있다. 865년 신라 도선(道詵)스님이 창건하여 '모든 중생을 피안의 해탈세계로 건너가게 하겠다'는 원력을 담아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김정은 기자(jekim@buddhapia.com)



◇'일체 중생을 피안의 해탈세계로 건너가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긴 강원도 철원군 '도피안사'.



◇지옥을 관장하고 있는 시왕들. 조계사 대웅전의 시왕상.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량의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약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naum

법공양 페이지

눈 한번 깜짝 않고 自性佛에 놓고 관하면 그게 바로 문 두드리는 소리

다리 구부리고 앉은 사람은 펴고 앉으세요.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말 같지만 누가 다리를 아프지 않게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뛰는 공부이며 실천하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쉽게 뛰어넘을 줄은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재밌게 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재밌고 진실하게 들으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것이죠.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일상생활을 재료삼아 공부하라고 하죠.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둘이 아니라고요. 하다못해 변소에 똥을 누러 가도 참선이라고요. 요만한 거 하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가 하기 때문이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몸을 움죽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시간이 있어서 15분이고 얼마 동안이고 시간나는 대로 앉아서 좌선할 때는 반드시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오직 그것만 관하라구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너만이 증명해 줄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곧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든지 닥치는 대로 주인공에다 놓고 '너만이 길을 정돈해서 잘 가게 할 수 있어' 하며 관하세요. 용도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쓸 수 있으니까 닥치는 대로 자기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굴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땅 속으로나 밖으로나 물이 사방에서 흘러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바다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어요. 모두가 한군데로 보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물이 흘러 들어갈 때는 흙물도 스며들어가고 똥물 핏물 고름물 등등이 어느 물 하나, 더럽고 깨끗함이 없이 그저 흘러 들어갈 뿐이죠. 흘러 들어가서 바다가 되면 그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물이 정화되어 내려가고 그러면 모두 평등하게 그릇대로 먹을 수가 있죠. 그게 생수입니다. 이름해서 정수라고도 하죠. 우리 공부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안 되는 것이든 되는 것이든 모두를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으라고요.

모두들 욕심을 끊어라, 번뇌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욕심을 끊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 것도 아니예요. 가는 것 잡지 말고 내 앞에 오는 것 마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게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스스로 자기가 방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것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는 것 거절하지 말고 가는 것 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걸 억지로 좇아가면 그것은 욕심이 되고 오는 걸 자꾸 거절을 하는 것은 무능하게 되는 이치죠. 그러니까 오는 것을 마다하지도 말고 가는 것을 잡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고 쉽게 말하면서 쉽게 뛰어 넘을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오는 것을 억지로 마다하지도 않고 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하다못해 불사하는데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아요. 단 하나 있다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뿐이지요. 여러분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난 그게 아니죠. 네가 있다면 하고 없다면 그만 둬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부처가 있다면 할 것이고 부처가 없다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라는 말이죠. 물에 파도가 치면 파도치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어떠한 용도의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최고가 됩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일체 만물에는 다 불성이 있거든요. 생명의 근본이 다 있다구요. 저 돌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하다못해 미생물 하나에도 불성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놓고 '네가 있다면 하고 네가 없다면 못하지' 하고 맡겨 놓으면 됩니다. 진짜 거기서만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보살로 화해서 응신으로 화해요. 정히 급하고 아주 큰 문제라면, 예를 들어 나라의 일이라든가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든가, 뭐 지구가 잘못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일어난다면, 저런 나무 하나도 그냥 있지 않고 모든 일체가 전부 한마음으로 모아서 응신이 돼 줍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프니까 꽃 한송이를 보고서 말을 했더래요.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말이어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 꽃에다 살려달라고 매달렸겠어요. 물론 관했겠죠. 그랬더니 꿈에 이렇게 보이더래요. 아주 예쁜 선녀가 꽃으로 장식을 했는데 그 꽃 이파리 하나하나를 떼어서 자기한테 붙여 주더랍니다. 그 길로 병이 나았대요. 그럼 그게 꿈일까요? 이런 소리가 거짓말로 들리십니까?

전력이 들어올 때, 그 전기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 들어온 걸 보고 불 나가는 걸 보고 전력이 와서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진짜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지 못하시죠.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꿈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입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때로 '아, 나는 그것까지 공부를 못해서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실천해 보라고요.



그림 · 최주현

늠름하고 과감하고 물러서지 않는 진정한 그 마음이라면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겠습니까. 자기 자성을 왜 자기가 못 믿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못 믿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다 하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죽고 사는 것을 생각해서 무섭다 두렵다고 물러선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은 육신에만 치우쳐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이죠.

예전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엉금엉금 기다가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나와서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일어났어요. 그것도 꿈일까요? 이 마음이라는 게 보이질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 뿐이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입니다.

또 이런 예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뭐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것을 그러냐고 알았다고 이랬으니 내가 움죽거리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지극하든 지극하지 않든 간에 한번 내가 대답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거짓보다 진짜 이런 거짓을 한다면 그 거짓의 대가는 반드시 있게 되거든요. 그 얘길 듣고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보니까 많은 묘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 묘지에 있는 분들을 다 동원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했죠. 그러나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위급할 때는 주인공으로 하여금 전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말이예요.

그래서 그분은 후에 일이 잘 됐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그 사람한테 고맙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남한테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고 또 무엇을 받으려고 하고, 주면서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공부와는 어긋나는 것이죠. 평소에 그냥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 일상 생활을
> 재료삼아
> 공부 하세요
> 좌선 입선 행선
> 둘이 아닙니다

말고 그대로 하는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한마음의 도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공부해야만 이 깊은 뜻을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성이 수 억겁을 통해서 형성되게 한 장본인이어요. 그리고 진화시켜서 이렇게까지 이끌고 왔구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보배입니까, 꼭 알아야 돼요. 못났든지 잘났든지 말이어요. 한 생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모습, 주어진 삶, 주어진 어려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항거를 합니까? 자기가 몰랐을 때 모두 그렇게 잘못 행한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을 말입니다.

내가 항상 말하죠. 이 정수에 정수봉이 있는데 그 정수봉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라고요.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새로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앞서 한 건 없어집니다. 아주 쉽게 가르치는 얘기죠. 관하면 거기에 입력되면서 앞서의 입력은 자꾸자꾸 없어지니까 소멸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든지 관하는 그 당시에, 바로 무명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라는 게 참 위대하고 말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04)

'나' 하나 죽는다면 계율은 절로 다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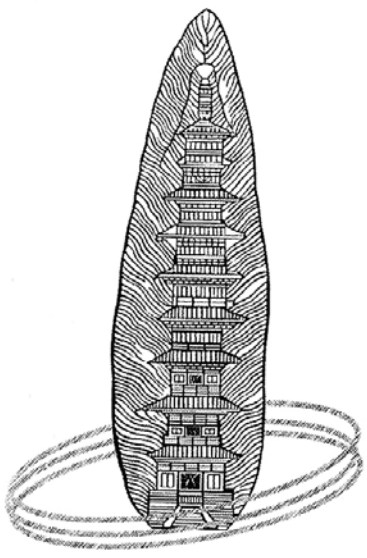
더러우면 닦고 흐트러져 있으면 가다듬고 망가지면 고치고 하는게 계행이니 생활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계율 아닌 것이 없다. 올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행하며 사는 것이 계행이다.

부처님의 계율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가 본 뜻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많이 하다 보면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용도와 분수에 따라서 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오계만 해도 '하지 말라'로 일관되어 있지만 요즘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살생하지 말라'를 '평등한 자비심으로 생명을 사랑하라'로, '도둑질 하지 말라'를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어라'로, '사음하지 말라'를 '몸과 마음으로 청정행을 닦으라'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를 '진실만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로, '술 마시지 말라'를 '언제나 밝고 바른 지혜를 가져라'로 해 놓으니까 계율이란 안 함으로써 지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뜻을 받아 행해서 지키는 것이 된다. 근본 마음이 청정하고 바르면 따로이 세울 게 없다.

계율을 세우려면 2백50개가 아니라 수천 개도 세울 수 있다. 세상 전체가 계율 아닌 게 어디 있는가. 문제는 겉으로 세워 놓은 계율이 아니라 근본 마음이다. 가령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하는 행을 한다면 계율을 범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을 한 번 일으켰다면 그것 또한 계율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든 계율이 한군데서 나고 드는 걸 알면 계율이 몇 개이든 전체 계율을 다 지키는 것이고, 그것을 모른다면 전 계율에 다 어긋나는 것이다. 2백50계다, 3백48계다 할 것이 없이 전체가 계율이니 한마음으로 지키고 행해야 한다.

계율은 주어지면 짐이다. 그러나 일체 경계를 다 근본주처에 놓아 가면 구태여 계율의 자로 재지 않아도 저절로 계율이 지켜진다. 그때의 계율은 자유의 날개이다. 계율에 자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잇는 계율이 우러나오도록 하라.

모든 것을 주인공 자리에 맡겨 놓는다면 구태여 팔정도니 육바라밀이니 사성제니 십이인연이니 따지지 않더라고 계율을 다 지킬 수 있고 더불어 다 같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일일이 따져서 이렇게 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소리를 다 해야 하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면 복잡해서 언제 자기를 알 수 있게 되겠는가. 그러기에 이론 따지고, 경전 따지고, 학식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할 사이 없이 '곧바로 들어가라!' 하는 것이다.



중생인 나를 못 미더워 한 나머지 나를 부정하며 계율로 얽어 매기보다는, 부처인 나의 근본을 믿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하라. 그것이야말로 계율을 초월하여 계율을 지키는 긍정의 방법이다. 본래 부처인 우리들은 자신의 빛으로 사는 것이다.

불법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공부이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계정혜가 세워졌다. 그러므로 자유인이 되기 위한 계정혜가 새로운 굴레가 되어 부자유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주객이 뒤바뀐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계율이 이러하고 청규가 이러하니 이렇게 해야만 한다, 저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계율을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계율을 다 놓은 사람이 진실로 계율을 지키게 된다. 그렇다고 계율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다. 인연 줄이 얽히고 설킨 데서 일어서려면 먼저 관념의 굴레를 벗어 던지는 작업부터 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 가 아니라 상대와 때와 장소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야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중생들은 모르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나온다. 그때에 다시 굴려서 되놓고 또 놓고 가면 바로 굴레에서 벗어나려 애쓰지 않아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 따라서 남이 주는 계율에 매이기 전에 먼저 안으로 놓는 작업부터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직접 들어가는 순리이다.

마음으로부터 계율이 우러나오려면 모든 경계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누구로부터 까닭 없이 한대 맞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 안으로 굴려서 녹여야 한다. 그때야 자연스런 계율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고로 마음법에서는 인욕이 이미 인욕이 아니다.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참을 것도 없음'이다. 그렇게 크나큰 마음, 대장부의 마음으로써 세상을 보아야 하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불법의 생활화인 것이다.

원통을 벗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자재로이 통 안팎을 들고 날 수가 있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걸림이 없다. 그러나 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는 통 안의 이치로 보고 듣고 행동하고 느끼고 하니까 걸림이 많다. 따라서 제가 걸리지 않더도 다른 사람의 눈에, 귀에 거슬려 그로 하여금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해서는 안된다. 제아무리 저 언덕을 넘나든다 해도 일체는 개별적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돌아가므로 모르는 사람에게 죄업을 지어 주어서는 안된다.

협찬 : 한 마 음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잘된다' '안된다'에 연연하지 않아야

☞ 15면에서 계속

로는 헝용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였던가, 제가 스물 몇살 때 길을 가다가 기운이 없어 소똥에 머리를 박고 쓰러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나를 개천에다 놓고는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누구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근처에 갈대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 갈대조차도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통하질 않지만 말이어요.

그런데 그 갈대 속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더군요. 거기서 주동을 해서 나를 씻어 준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씻어지지 않았겠죠. 정신을 차려서 내가 스스로 가서 머리를 전부 씻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몸으로 가서 머리를 씻었는데 그에 앞서 모두 와서 머리를 씻어 주었고, 씻어 주니까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씻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씻어 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단 일체제불의 한마음인 것입니다.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어떤 거라도
바다에 물 흘러
들어가듯 하면
저절로 정화돼요

일체제불의 그 마음이 일체 만물과 더불어 같이 하는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일체제불의 마음이 모두를 관찰해서 모든 일체 중생들을 다 이끌어서 진화되게 하거든요. 하다못해 나무 잎새 하나라도 나무가 악신으로 되지 않고 착한 목신으로서 자기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응신으로 화해서 그렇게 진화를 시키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바다가 되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보림해서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어떤 거라도 바다에 물 흘러 들어가듯 그렇게 되면 저절로 다 그 물이 정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어요.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일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오물이나 세균 덩어리 같은 것들이 그대로 내려오게 될텐데 정화를 했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나무도 크면 큰 대로 먹고 작으면 작은 대로 먹어요. 산길을 걷다 보면 요만한 떡이파리가 하나 나와서 나볼나볼 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 생긴 대로 먹어요. 그래서 평등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 돼서 모른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나는 더하고 덜함도 없이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먹을 것이고, 닥치는 대로 할 것이고, 닥치는 대로 걸을 것이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투철하게 가지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관해 주어서 그 사람을 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모르는 사람에게는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내버려 두는 수가 있거든요. 내버려 뒤도 그 길을 터득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도 너그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공용을 하시고 공용으로 공식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게 전부 일체 만물 한생이 다 공생하는것 아닙니까? 작게 보시면 여러분 몸 속에서도 모두 공생하고 있죠. 그리고 공체이죠. 내가 본다고 내가 혼자 볼 수 있나요? 다 몸 속의 생명들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보는 거죠. 한 군데만 무너져도 그냥 쓰러지게 돼 있다구요.

이것은 현재의 일들이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에 지금 그렇단 얘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그대로 가는 길에서 물러서지 않고 뚜벅뚜벅 갈 수만 있다면, 정신계에서는 보이지 않는데서 대처해 나가고,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육체로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걸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는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는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세균 하나가 악성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주둔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하게끔 돼 있는 게 모두 공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둘 아니게 대처하거든요. 내쫓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음법이라는 게 그렇게 묘하고 광대무변하단 얘기죠. 여러분 마음이 한 번 바뀌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립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 놓고 안된다고 펄펄 뛰는 걸 봅니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는 아프다고 합니다. 이 몸뚱이는 그냥 넉넉하게 자기 가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고 '주인공!' 하고만 관하세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병만 나고 쓰러지게 되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주인공 하나만 불들면 이 몸 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불잡을 수가 있죠. 또 주인공을 믿고 나가는 데는 급하면 하다못해 풀이파리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잎새 하나마다 영혼이 돼서 다 합쳐 준다면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옛날 얘기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박부인전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얘! 박부인은 이 세상에 아주 못나디 못나게 태어나서 시집을 갔는데 장군인 남편이 붙들려서 갇혀 있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그리고 만약 군사들이 너희 집으로 쳐들어온다면 너는 어떡하겠느냐?"하고 물으시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박부인은 남장을 하고 말을 타고 가서 포위된 남편을 꺼내 주고는 남편이 알까봐 서둘러서 집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남편이 급할 때마다 박부인이 장군으로 와서 구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 장군이 이거 오기만 하면 누군지 한번 좇아가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그 장군이 또 와서 포위가 된 것을 꺼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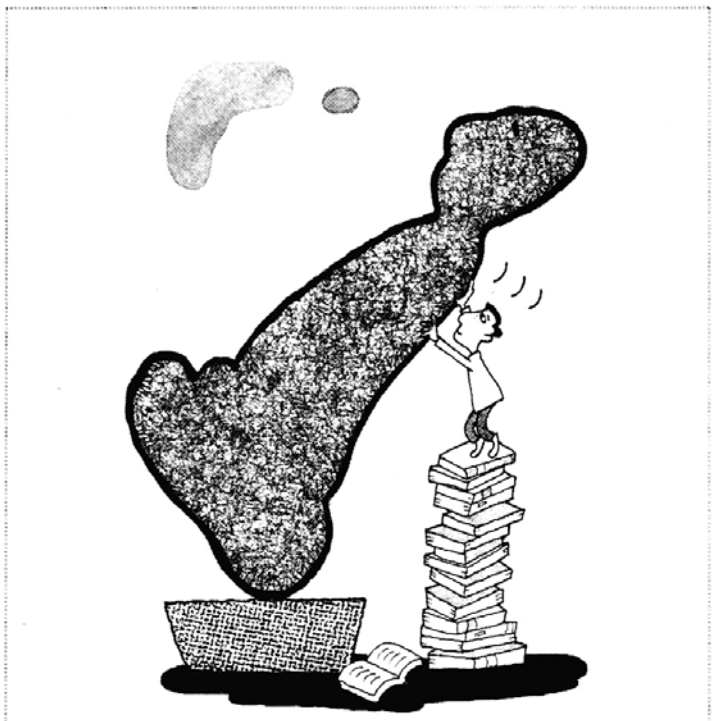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99%는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99%! 그것은 왜냐하면 마음 하나만 까딱하면 100%가 된다는 얘기죠.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자격이 100%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마음으로 그렇게 수없이 살아오던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관습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게 탈이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 말이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자기 마음을 가지고 왜 자기 마음대로 못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들어오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까짓 것 하고 내팽개치는 것인데, 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내가 그 말을 가끔 해요. 처음 여기 오던 해에 김장 때인데 그릇이 없었어요. 그릇도 없고 고무통도 하나 없고, 항아리도 없었어요. 그때는 신도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생각 내기를 '이거 참, 김치는 해먹어야 될 텐데 그릇도 항아리도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 하곤 그냥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추를 뽑아다 놓고 그런 지경에 있으면 아둥바둥했을 테지만 나는 김치를 하든 못하든 그건 상관하지 않았어요. 김치를 못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소저라는 할머니가 청량리에서 사셨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별안간에 그냥 여길 오고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김장 때도 됐을텐데 그릇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는 고무통 큰 거 몇개를 사고, 항아리도 다섯 개 있는 걸 다 싣고 온 거예요. 그 큰 것을요. 거기다가 쌀 두 가마니도 싣고, 그렇게 밤중에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허 참! 있긴 있구만, 허허허. 있긴 있구만…' 하고요.

지금 울산지원에 불사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있다면 할 것이고 없다면 못할 거니까 그거 1년이 간들 어떻고 2년이 간들 어떻고 10년이 간들 어떻고 100년이 간들 어떠냐. 꼭 지으라고 너에게 꼬리표 붙여 놓은 게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이 계시다면 할 것이고 안 계시다면 안 할 것 아니냐. 그게 바로 네 자성불이다. 자성불이 있어야 모두 통하는 것이지 자성불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라' 고 그랬지요.

우리가 돈을 쌓아두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어요. 우린 항상 털털이로 살아요. 털털이요! 털털이 아세요? 사람이 털털이로 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도둑이 들어올까봐 걱정도 없겠죠. 여러분은 감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그렇게 감추는 마음으로 죽었더니 큰 구렁이가 됐더랍니다. 큰 구렁이니까 비늘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비늘 속에는 그 스님에게 시주했던 사람들이 전부 구더기가 돼서 있는 거예요. 구더기가 돼서 돈을 줬으니 대가를 내 놓으라구요. 그렇게 구더기가 돼서 비늘 속에서 웅성거리니 그놈의 몸뚱이가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 절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구렁이 하나가 남아서 도를 통한 스님 하나 만나기를 기다렸대요. 오직 도를 통한 스님 하나 만나기를 수 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날 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꼭 그 댁의 조상이 와서 참 고맙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이 그냥 아프지 않고 잘 가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공덕을 짓는 거고 공심으로써 공덕을 짓는 거고 공심으로 또 받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공심이 돼야 주기도 하는 것이구요.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은 길에 나서도 하다못해 풀잎 하나도 그냥 보는 게 없어요. 통해서 다 알죠.

옛날에요, 내가 처음에 배울 때니까 그렇겠지만 말이어요. 산에 들어가다 보면 큰 나무가 서서 인사를 해요. 인사를 받았으면 저절로 절하게 되는 것 있죠. 처음엔 그것을 응통성 있게 못해서 남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미쳐도 곱게 미쳤다고, 세상에 산중에도 거지가 있느냐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들볶였는지 경찰서까지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린애들이 더 무섭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하면 아이들 몇명이서 요만한 참외 하나를 훌러 내려오는 물에다 띄워서 그거를 누가 와서 먼저 집나 하는 경주를 한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고 있는데 어디서 참외가 하나 뚝 떨어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라도 요기할 생각으로 집는 순간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집는 순간에 그 애들이 다가오면서 저 미친 거지가 우리 참외를 집었다고 해서, 경찰서까지 끌려갔잖아요. 경찰서에 끌려가니까 신분증이 있어야지요. 모두 다 떨치고 나와 버렸으니 말이어요. 그래서 집에다 연락을 해보고 조회를 해 보고 놓아 준 것이 사흘 나흘이나 걸렸어요. 조회를 해 보기 전에는 그 플섶에다 그냥 앉혀 놓고는 방처럼 가둬놓았죠. 왜 가둬놓았느냐 하면 거기 앉았으라고 하니까 가둬놓은 거죠. 나는 옴짝도 안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증엔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어요. 빨치산으로 붙들려서 고문을 당하고 그래도 그 사람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내 자불이 바로 나를 단련시켜 주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죄 없이 맞은 매는 금방 낫는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돌아서서 얼마 안 갔는데 다 나았어요.

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간첩으로 오해를 받고 붙들렸는데 형사들이 나를 가둬 놓았어요. 그렇게 한참 있으니까 밖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내 안에서 '야, 문 좀 들어보자.' 이래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드니까 돌쩌귀가 쑥 빠지면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책상을 두 개를 놓고 양쪽에 앉아서 모두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겁니다. 건빵을 먹다가 놓아두고 자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건빵을 가지고 나가야겠다' 고 생각을 하곤 주섬주섬 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나갔죠. 그게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몽땅 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게 해 놓고 나가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가서 한 이틀 있으니까 상처난 것이 아물고 다 나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인가 눈이 많이 와서 어디 가 잘 데가 없어서 소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소나무에 넓적하게 이렇게 갈라진 데 올라가서 앉았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예요. 눈이 좀 녹으면 내려가야지 하다가 잠이 들었나 본데 아마 잠이 들은 채로 밑으로 떨어졌나봐요. 떨어져서 앞니 두 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생긴 모습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무척 고생했죠.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잘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못생기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못생기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잘 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증노릇하고 있겠습니까? 약삭빠르고 똑똑하고 그러면 이 공부를 못해요. 좀 듬직하고 못났으니깐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되 세세생생을 얻는 것이지요. 자유권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식 낳고 세간에서 산다고 해서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그것도 역시 공부라고 생각하세요. 식구가 모두 내 스승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상대적인 스승이 없다면 내 생활도 없고 공부도 못해요. 둘 하나, 나무 한그루도 없다면 내가 그걸 보고서 깨우칠 수가 없잖아요. 공부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깐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전부 내 스승이예요. 1천7백공안이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는 이유를 대 볼까요?

내가 항상 말하지요. 어떤 것을 봐도 금방 또 다른 걸 봐야 하고 또 금방 없어지고, 벌써 앞서 본 건 과거로 돌아가고 현재 또 봐야 합니다. 듣는 것도 현재에 금방 이것을 들으려고 하면 저게 없어지고 한 발 떼어놓으면 또 한 발이 없어져요. 한 번 어떤 사람을 만나면 또 딴 사람 만나야 돼요. 이렇게 하니 그게 어디 만났다 안 만났다 봤다 안 봤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빠르게 화해서 돌아가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 법에서

공심으로 공덕 짓고
공심으로 받고
공심으로 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풀잎 하나와도
통해서 다 알게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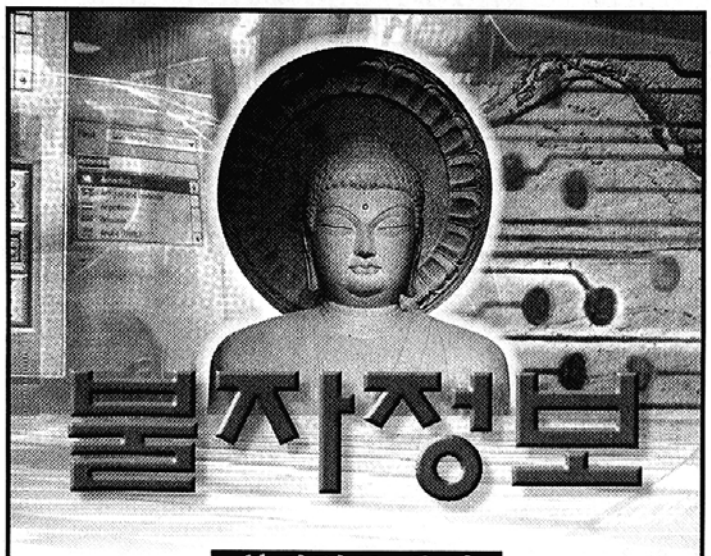
는 나툼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을 나툼이라고 그래요. 화해서 나툰다, 건너뛴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대로 먹을 뿐이고 그냥 걸을 뿐이고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만났을 뿐입니다. 그냥 모두가 공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착을 두고 애를 쓰고 울고 불고 그립니까?

어떤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다른 부인을 하나 또 두고 산다고 해요. 자식들도 있는데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이 세상 부인을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나 싫다는 데 어떻게 해' 하며 순순히 놔주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 있는데 자식들을 또 희생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을 침착하게 근본에다 관하고 그저 '당신만이 그렇지 않게 해 줄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기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줘라 합니다. 일부러라도 더더욱 그렇게 해 주라고 합니다. 때로는 딸 노릇도 하고 동생 노릇도 하고 어머니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고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또 남편은 남편대로 때로는 아버지가 돼 주고 할아버지가 돼 주고 오빠가 돼 주고 남편이 돼 주고 동생도 돼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라야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 몸뚱이 안에서 벗어나서 이 지구라는 통 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지구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를 바깥에서 굴릴 수가 없습니다. 내 몸뚱이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몸뚱이를 내 마음대로 자기가 굴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면 모든 것을 거기다가 몰입하고 거기다 놓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밖에 없어,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고 '당신이 있으면 이렇게 해봐' 하고 자문자답도 하다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석가세존도 자기 연등불이 바로 수기를 준 것이지, 수기 받은 놈도 없고 준 놈도 없습니다. 자기 자불이 바로 자기 연등불인 것입니다.

대가 바라지 않고 하는 마음이 한마음 도리
감추는 마음 있으니 불안 '털털이'로 살아야

협찬 주인공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당뇨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의단요법 · 무료시술

치료비 전액무료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불심과 정성으로 보살펴드리는

간 병 인 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 환자 간병 - 산모 도우미
◇ 12시간 (주간, 야간)
◇ 24시간 (상주근무)
◇ 서울 - 무-제-98-1호 허가
☎ 02)363-7884/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암

중풍 / 당뇨등
다솔민방연구원
0431)
292-9090

잠이 쏟아진다!

■ 잠시 앉아만 있어도 잠이 쏟아지고
힘이 샘솟는 「비아그라」보다 더 신비한 「건강요」와 「한방베개」탄생
만약 2주간 사용불만시 100% 환불!!
전기사용무. 온돌침대겸용.보관간편
수신자부담/080)721-8858 세광산업(주)
-7일사용후 입금가능합니다.-

강좌

수맥강좌안내

1.신비의 추 사용
2.현장실습
3.매주 목요일 오후 3시
4. 수맥관련 상담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풍수학, 동양철학, 침술 수강생 및 통신생 모집

◇모집기간 : 현재 접수중
◇연령, 학력 제한없음
◇수업시간 : 3개월(24시간)
- 이수자 졸업장 수여
- 주간 : 오후 3시~5시
- 야간 : 7시30분~9시30분
◇개인지도 수강자는 시간 및 진도 특별조정함
◇강사 : 스님(철학박사, 승가대교수)
◆풍수, 운명, 침술, 감정시무하고 있음
(철학관 및 포교원 개원시 지원 배려함)
(출가관심자 승려 수계득도 지원함)
0331)264-4582 대·불광사,승가대학교무처
(위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39번지)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 과 목
참선지도, 불교경전, 주역원문, 노장사상, 관상가상(家相), 풍수지리, 육효, 사주
◆ 강 사
김소호 거사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
출장상담도 해드림
02)914-6551/011)755-5333

전통불교의식 학인모집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 시식등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특별의식
●어산작법 : 초급과정:바라무, 나비무 작법, 어산초급과정
●원왕생과정 : 불교식 장의 장례(다비의식)
출가상담및 교육과정<기본의식 교리, 습의>
반야심경, 금강경<10폭 병풍> 사경법회
※각 과정 통신생 모집 ※ 확인스님특별반 모집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 02)511-0108 전통불교의식연구원

구인

천일기도 기도법사님 모십니다.

한라산 **영실 존자암**
011)696-8500

부천 심소산 연흥사에서는 공양주 보살 1분을 모십니다.

인연되실 분은 연락주십시오.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1동 185-29
심소산 연흥사
032)348-6602~3

공양주 보살 구함

경남 합천군 대병면
청강사
0599)
932-5706

탈종공고

탈종공고

대한불교 태고종 귀하
■ 사찰명 : 석정암
■ 위치: 전라북도 임실군 삼계면 오지리 산 89번지
■ 주지: 정하
위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1. 30.

탈종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귀하
■ 사찰명 : 상운사
■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백양리 동포부락
■ 주지: 정두지(공덕화)
위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1. 30.

탈종공고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귀하
■ 사찰명 : 지장정사
■ 위치: 부산 금정구 남산동 27-41
■ 주지: 월곡스님(김종문)
위사찰은 귀종단과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합니다.
1999. 2.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全國 佛子님께
氣龍 達磨圖를 나눠드립니다.



회향암
혜월당 합장
0564)
33-2037
017)
531-2929

달마보급 안내



연락처 : 달마보급 선양회
죽림사 0525)345-9494

황토 찜질선방 개방

모은사 주지 현공 스님이
직접 황토벽돌을 만들고
신비스런 향토찜질 선방을 지어
불치병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672-1
0593)854-8551
주지실 0593)854-8555

벽지 ◑ 바닥재 버티칼 · 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현대자동차 신차판매 안내

스님과 불자님들의 차량문제
"믿고 맡겨 주시면 불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 원응 곽영순 과장
대표전화 : (053)627-6616
휴 대 폰 : 011-509-9456
호 출 : 012-494-6181

전통 황토방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순수 황토만을 시공하며
장판을 깔지 않음.
금강황토산업
032)427-7899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기둥은 육송으로만 하고 그외도 조각 장여부연이며 4미터 이하는 거의 육송을 사용합니다.
▶시공사찰
직관사 승가사 용화사 용주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연사 보광암 비봉사 현재 은선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 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화엄경(80권)-1,400,000원
법화권(7권)- 170,000원
사 교(7권)-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2)962-6477 처 사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 · 행운 · 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예약 달마사 철학원
051)441-0089

보이차 직판합니다.

100g ×10봉지(10만원)
100g ×1봉지(1만2천원)
02)911-6798
017)406-6682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수양 · 병치료

· 양로원 성격의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는 최적의 수양 기도처로써 특히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환자들에게 친부모처럼 모시고 기도와 침술로서 완치시킴.
※침구, 숙식제공, 동참기도
※가격 : 입실 보증금 1,500만원 (월세로도 가능)
※위치 : 동대문구 전철 5호선 장안평역 3분거리
만불사 수양원 02)2245-7075

사찰안내

사찰 운영안내

◇위치 : 서울(산속)
◇법당 : 23평 ◇요사 : 40평
◇부지 : 100평(실사용평수 340평)
◇가액 : 3억
◆지방사찰 교환가능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괘법동
◆ 부지 : 30평 2층건물
1층 법당, 방2개(小) 부엌
◆ 신중당, 산신당, 칠성당, 산신 2층:방3개
◆ 특징 : 가정주택
◆ 가격 : 양도가 1억 2천 5백만 (절충가능)
051)326-9118/011)573-9118

사찰 안내(급)

이민으로 급히, 현시세 1/3가격으로
◆ 위치 : 충주댐 입구 원효종 "불암사"
◆ 대지 : 700평(진입로 포함)
◆ 요사채 : 34평 (교화당, 주방, 방6개, 현대식 샤워장)
◆ 부속물 : 5층석탑, 석가모니 석불상, 해수보살 좌불석상
◆ 발경작 하실 분 2,000평 - 3년(300만), 5년(500만) (귀농인 정착 희망자 우대)
0441)848-1766/019)485-1766
0431)211-9546(자택)

사찰(급)안내

네팔로 급히 출국하므로 급전세합니다.
※입주 즉시 법회 가능※
■사찰명:경주 무학산 성불암 토굴
■대지 : 200여평(산신당+용왕당) 합1개
■건물 : 대웅전 내 방2개, 주방, 전체 기름 보일러 목욕 샤워시설, 주차장 완비 전세금 1,800만원, 답사후 절충
011-543-4275/017-558-3450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청리면
◆ 부지 : 1,200평
◆ 법당1개, 요사채 2개
◆ 가격 : 답사후 절충
0575)874-4670

사찰부지(사정상)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저수지 및 국도접
◆ 평수 : 합 1,500평(다섯필지로 분할도 되어 있음)
◆ 참고 : 고시원,교육관,복지회관등 다용도가능,토목공사완료
◆ 가격 : 해외이민사정상 평당 현시세 70만원이상을 40만원정도에 급매함.
0575)874-4670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5분거리
◆ 법당 : 2층-35평 (약사부처님,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 가격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800만원 (역학하시는 분도 가능)
02)948-8974

사찰 월세 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신도극장 뒷편
◆ 평수 : 45평(법당,요사채), 단독주택
◆ 가격 : 500만원(보증금) 월세 16만원
◆ 시설비 : 1,300만원 (집전체수리비) 절충가능
011)705-2806/02)379-011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3평 ■ 요사 : 65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3억 5천만원
.●전국의 사찰 포교당 다량확보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양도 운영 하실분에게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온천3동 수도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액: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1)320-9355/018)311-3744

사찰(급)안내

◇위치 : 장호원 시내에서 차편 5분 (서울 약1시간대)
◇대지 : 438평
◇총건평 : 83평
- 법당, 사무실
- 요사채 방13개, 주방, 화장실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발전 요충지
※ 직접면담(급매) ※
0336)643-9051
012)925-6118

사찰(급) 안내

◆위치: 서울 노원구 (전철역 2분거리 버스정류소 2분)
◆실평수: 대지 65평 (서울 APT내에 위치 건평 100평)
◆2층 -법당 / 1층 -요사채
◆가 액: 3억 5천(융자 1억 2천만원)
02)3391-4845
011)752-4842

사 찰 (전세)

◆ 위치 : 대구시 북구 산격동
◆ 법당 : 25평(방 2개)
◆ 2층 양옥
◆ 가격 : 전세금 3,000만원
053)957-3066
011)455-6198

사찰안내

◆위치 : 고흥군 동일면 전남나로도 성은암
◆부지 : 2,500평
◆법당 : 21평(요사채 2동,자연석간수)
◆좌청룡 우백호의 어우러짐과 절뒤에 자연 탑바위 절앞바다에 거북섬 거북이 절로 올라오는 형상이며, 거북섬까지 하루 2번씩 바닷길이 열림.기도영험도량으로 전국각처에서 사찰 참배중
◆ 가격 : 3억
0666)834-4538
016)247-5363/0673)642-2965

급,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성덕면
◆ 부지 : 소나무 숲속 370평
◆ 법당 : 콘크리트 39평
◆ 요사 : 방2,거실,주방30평
◆ 기타 : 불사중 동불발견
※ 김제시 10분, 만경읍 5분, 전주시 40분거리
◆ 가격 : 급매 칠천만원
0658)542-5859

사 찰 안 내

◆위치:공주시 신풍면 백용리
◆부지: 2,030평(명당자리)
◆특징: 병풍같은 산이 뒤에 둘러싸여 있으며, 전기, 전화선 가능, 도로인접, 공주 · 천안에서 승용차로 20분거리, 지하수 완비
◆수행정진하실 스님이나 불자님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042)822-3864
011)494-2750(근암스님)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복현동 (주차시설완비)
◇ 법당 : 2층 43평, 옥상사용가능
- 개금3존불(넉자),
- 후불신중탱화 집기일체 포함
- 주지실 공양실 욕실등 완비 (입주즉시 법회가능)
◇ 가격 : 2천 5백만원 (보증금+시설비일체) 월 40만원
016)519-9551/053)957-9551

포교원 운영하실분

◆위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평수: 3층건물(3층) 50평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45만원,전세 5,000만원 가능함)
◆시설비: 3,500만원(절충가능)
◆특 징: 시설완벽함.
법및 행사 즉시 불수 있음. 전철역 3분거리 교통편리 주변 APT 주택 밀집지역, 대나무으로 수작업한 나한님 216분 모셔져 있음
02)939-3647 / 02)720-5876
012-341-3647

포교원 안내

◆위치:강동구 길동 시장통
◆19년 역사 포교원
◆방 · 법당 · 부엌 · 화장실
◆가격: 3천2백만원, 월 60만원 (가격절충가능)
◆스님의 개인사정으로 급매
011)201-2561
02)482-4550

사찰(급)안내

◇ 위치: 충주지역
◇ 산세수려, 지장기도도량
◇ 대지: 약 1천평 ◇전: 850평 (총 1,850평)
◇ 법당: 주산포 목조건물 24평 (단청된 법당), 산신각(목조건물) 8평(단청됨), 종각(단청) : 1층 -스리브 10평 일주문 2층 - 종각목조 4평
◇ 범종이 천관 ◇ 요사채-스라브건물 40평, 조립식 18평, ◇금액:4억(상담후 조정가능)▶필요한 분만 전화요망
0561)746-3510/017)366-7905

사찰건축 및 목재 안내(전문)

· 사찰 건축 · 사찰조경 · 단청 · 목조주택(한옥,황토집)
사찰 목재 안내 ※ 한국에서 마지막 원시림(육송)다량확보
♣ 대웅전:12평, 20평, 24평, 34평, 54평, 108평을 지을 목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 대웅전 기둥: 1자, 1자 3치, 1자 5치, 1자 7치, 1자 8치, 2자 2치까지
♣ 대원목: 말구 1자 이상:24자, 30자, 36자, 42자 까지
♣ 서까래: (연목)12자, 15자, 18자, 20자, 24자
◈ 대웅전 설계, 조감도 그려드립니다. ⊙불사하실 스님,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주)천운 나강민 합장 본사대표 0371)762-3938
천운목재(제재소) 0371)732-3936 휴대폰: 011)735-4168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조상재산 즉석에서 확인

(생활) 행정자치부는 3일 '조상재산 찾기 즉결민원처리' 제도를 도입, 조상의 재산을 찾기 위해 토지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 1~3시간 내에 즉석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 민원인은 상속인의 신분증과 호적등본 등을 구비해 행자부 국토정보센터에 토지정보열람을 신청하면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엔진오일 교환주기 1만㎞

(자동차) 승용차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1만km.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의 조사결과 자가용 운전자들은 평균 6천1백10km를 타고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핸드폰 바로 해약

(통신)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가입한 이동전화를 바로 해지해주지 않는 이동전화업체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1월 25일 "미성년자가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입계약을 했을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논' 앙코르방송

(방송) EBS-TV는 '논'을 땅으로서의 의미 외에 생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공존의 생태적 의미로 새롭게 조명한 자연다큐멘터리 '논'을 앙코르 방송한다. △1부 '사람의 땅, 생명의 터', △2부 '인간, 그들과의 공존'이 16, 17일 밤 9시45분 방송된다.

주부습진 예방 관리법

(건강) ▲청소 세탁 설거지 등을 할 때 미지근한 물을 이용한다. ▲자주 보습제를 바른다. 손을 씻은 뒤 2분 이내. ▲자극성이 심한 양념뿐만 아니라 과일이 직접 손에 닿는 일도 피한다. ▲반지를 낀채 일하면 세제 성분이 반지 밑에 남아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빼고 일한다. ▲물 1ℓ 녹말과 중조(소다)를 각각 5g씩 넣은 뒤 습진 부위를 10~20분 정도 담그면 피부가 덜 건조해 진다.

마늘·영지버섯 암 예방

마늘과 영지버섯에 장암과 췌장암 발생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화학과 양철학교수 연구팀은 2일 "암을 유발하는 라스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하던 중 마늘의 알리신과 영지버섯의 가노데릭산이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을 처음발견했다"고 밝혔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아난 유엔사무총장 세계경제포럼서 강조

유네스코 '21세기 보편윤리헌장' 제정 추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설을 통해 각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에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촉구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가 지구촌의 주요 테마로 떠올랐다. 이 주제를 던진 사람은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아난 총장은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책임있는 세계화, 세계화의 충격관리'를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우리는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는 세계화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강조하고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계지도자들이 개별기업 단위에서 인간적 가치를 포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간존중을 위한 3대 가치로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선언, 리우환경회담 선언에 반영된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를 제시했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환경에 대한 좀더 큰 책임감과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가톨릭의 교황 요한 바오로2세도 1월 23일 "이익과 시장의 법칙만을 강조하는 제도인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자원의 공평한 분배 등이 사회적 정의의 원칙에 따라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마침 유네스코도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에 인류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변할 '21세기를 위한 보편윤리(universal ethics) 헌장'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과 25조로 구성된 '보편윤리' 시안에는 '모든 인간은 인도적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내 자신에게 일어나길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비폭력과 생명존중' '동료애와 정의로운 경제질서' '관용과 정직성' '남녀의 동등권리와 협력자관계'가 원칙으로 포함되어 있다. 환경오염, 무력 대치, 황금만능주의, 남녀·인종차별을 넘어서 '평화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인류의 염원을 실현키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 헌장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주도로 입안되고 있으며, 유엔에 의해 '평화문화의 해'로 지정된 2000년 밀레니엄 유엔정상회의를 전후로 채택될 전망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대립과 투쟁은 탐욕에서 비롯됨을 갈파했다. "왕과 왕이 싸우고, 장자와 장자가 싸우는 것은 탐욕에 매이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불세존께서는 탐욕과 견욕(見慾)의 매임에서 벗어난 분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는 분이다." 다름이 없는 세상을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탐욕을 버려야 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석굴암과 불국사-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문화부 관광이벤트화 추진

전통문화 훼손우려 … 불교계 관심가져야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팔만대장경 등 세계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사를 관광이벤트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2003년까지 8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대적인 관광진흥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관광비전 21'을 발표했다. 국제수준의 관광자원 확충,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국제경쟁력을 갖춘 관광인프라 구축 등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틀을 제시했다.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와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등을 대비해 5년 동안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계획이 완성되면 연 7백만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해 1백2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을 7개 문화관광권으로 나눠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인사동 테마거리 조성, 공주 문화관광지 조성, 백제문화제 국제화 등 50개 특화관광 중점사업도 제시했다. 문화재, 전통문양 등을 활용한 관광기념품 개발도 지원한다.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 개발은 불교와 무관하지 않다. 문화자원, 문화재, 전통문양은 바로 불교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관광 당국과 불교계와의 협조는 긴밀해야 한다. 그런데 체험지향적 관광상품 자료에 불교문화체험이 빠진 것은 행정당국의 세심함이 결여된 부분으로 지적된다. 산사 숙박 체험, 선수련 참가는 불교문화의 정수이다. 이미 대흥사 봉은사 등 몇 사찰에서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와 문화가 훼손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지금도 해인사 인근의 골프장 건설은 해인사와 문화예술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회되지 않았다. 몇몇 업자와 자치단체의 수익성 제고이 문화유산의 보존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끔히 씻지 못하는 이유이다. 문화관광부의 감독이 요구된다.

정성운 기자

"매춘은 여성폭력"

WWC, 합법화 금지

세계각국에 촉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50개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세계여성회의(WWC)가 여성의 매춘을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해줄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다카 선언'을 발표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사흘간의 회의를 끝낸 후 1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WWC는 "매춘과 성 매매행위는 인간조건에 있어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WWC는 "각국 정부는 매춘을 합법화하거나 매춘을 직업이나 오락, 경제의 한 분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면서 섹스관광에 대한 단호한 조치, 인터넷의 성상품화 금지, 여성 인신매매 금지, 여성에 대한 재정 기술적 지원 등 28개항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시론

법조계 변해야 한다



이효범
〈공주대 교수·국민윤리교육과〉

"비판의 소리 경청 개혁 추진할때 '국민의 검찰' 된다"

2월 3일 김중권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보고 비서실 직원들에게 "지금 개혁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며 "적당히 하면 곪아 터지고 다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심재륜 대구고검장이 박상천 법무부장관 주재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결정을 당한 날이었다.

국민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심 고검장은 이종기 변호사 수임사건 비리와 관련되어 사표를 요구받자 그것이 부당하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그것이 검찰 초유의 '항명' 사건이라며 문제가 되었던 검사이다.

이런 고검장을 징계하는 위원회에서 정작 문제되었던 떡값이나 전별금 수수 부분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참작만 하였다고 한다. 징계 사유는 전혀 다른 데 있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며, 당일 대구를 떠난 것이 근무지 이탈이며, 재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이 명령불복종이라는 것이다. 이런 징계들은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평생을 살아온 7명의 징계위원들이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옳고 하자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의 첫 발단은 무엇인가? 심 고검장과 관련된 비리를 조사함에 있어서 과연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가? 그 진실을 가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징계의 주요 대상이 된 성명은 그 이후의 경과이다. 그리고 성명은 적어도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기보다는 용기있는 행위이며, 검찰 조직 전체가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검찰을 살리려는 충정의 표현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 자체를 문제삼아 심고검장을 면직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임시방편으로 현재 사건만을 모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발전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자연적 생명체인 사람 개인도 정신과 신체로 나뉘어져 갈등과 조화를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정신도 이성, 의지, 감정 등이 서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의 큰 조직체가 한 몸이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일이다. 또 그것이 비밀스런 깡패 조직이라면 몰라도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조직 자체에서 조직을 비판하고 늘 새롭게 도전하는 구성원이 없을 때 오히려 조직은 썩어 붕괴될 위험성이 많다. 그러므로 조직의 비판자를 이단자로 몰아 잘라내기보다는 그런 소리도 경청하고 오히려 감싸안는 지혜와 자비를 가져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국가 조직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옳은 것을 위해 기존 체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투쟁해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크게 변해야 한다. 전별금이나 전관 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과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제도개혁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심고검장이 성명에서 제기한 검찰을 정치로부터 중립화시키는 길이며, 국가의 통치자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김중권 비서실장이 밝힌 옳은 개혁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조금 늦더라도 진실 위에서 추진하는 개혁일 것이다. 예전처럼 가시적인 효과만 노리고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해서 일을 대충대충 처리하면 다시 그르치고 만다.

시대가 달라졌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조그만 것에 이르기까지 욕석을 가리고 정직하며 온 정성을 쏟아야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온 것이다.

뜻대로 사는 길 아·봐·타

Avatar.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꼭 이루어야 할 목표가 있습니까?
'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깨달음이 당신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봐타를 경험하세요!

- 아봐타는 신념이 경험에 우선한다는 일체유심조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의식개발프로그램으로 현재 61개국, 14개 언어로 전수되고 있다.
- 아봐타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체계를 자유자재로 관리하여,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되어 원치않은 삶의 부분은 소멸하고, 원하는 삶만을 창조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 아봐타 코스는 종교색이라곤 전혀없이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로부터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으로 구도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 아봐타 코스는 불교 심리학을 실용화했으며 참선 수행등을 좀 더 보편화하여 평소 안고 있던 화두를 참구하는데 느낌을 보태어 깨달음을 점수케 한다.

"아봐타 코스는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이 코스는 인간의식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해탈을 이루게 하는 힘을 넣어준다."

아봐타는 당신이 찾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을 찾아갑니다. 아봐타의 이름으로..

- 아봐타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 영축 아봐타센터에서는 매월 첫째 목요일 오전 9시에 코스를 시작합니다.
- 아봐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전화주십시오.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영축 아봐타 센터 0523)381-1143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474(통도사 근처) 011)882-1149

건강에의 신비! 옥

春川 玉山家 玉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정신적으로도, 병고에도 너무힘들때는 옥을 갈아 사용하세요!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미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관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심장병, 당뇨, 뇌졸증(중풍), 동맥경화등의 순환기장애에는 90% 이상의 효과, 제일 못하다는 신경통에도 60%의 확율입니다. 50%의 효과면 선약이라고들 합니다.(한빙의 세계적인 권의인 북경중의병원 임상보고서)

제 옥목걸이, 반지, 팔찌, 108염주, 단주, 참선용옥방석, 환자용 옥찜질매트, 품 침구류, 복대, 무릎대, 옥비누외 기초화장품, 녹차잔의 옥도자기

신 옥분 108염주 (10mm알, ₩60,000) 목걸이 겸용 옥분 혼합제품, 무거운 것을 싫어하시는분 적합, 건강보전 기경팔맥 通氣용. 품 마음자리를 잘 볼수 있고, 탐진치의 瞋心을 줄일 수 있어 좋다.

* 옥에는 기(氣)옥과 맹물같이 기가 안나오는 벌옥이 있습니다. "옥을 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하면 그 옥은 이미 기옥이 아닌 벌옥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셔서 체크해 보셔요.

서울을지로 玉山家® (02)777-0105 (백오옥)

중앙불교합창단 단원모집

지난 1994년 3월에 창단된 사단법인 중앙불교합창단에서 21세기 불교음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단원을 모집합니다. 중앙불교합창단은 뿌리 깊은 불교음악 연구와 새로운 불교음악 창달 및 보급이라는 큰 과제를 가지고 불심으로 하나가 되어 그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불교합창단에서는 그 동안 끊어졌던 불교음악의 시대적 공백을 이어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불교음악의 발전과 더불어 민족음악의 터전을 일구어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불교음악뿐만 아니라 국악과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강습을 통해 개개인의 음악적 소양을 제고하고 종단 행사 참여는 물론 국립국악관현악단, 중앙국악관현악단 등과의 협연을 통해 각종 무대에서 보다 향상된 음악을 선보일 것입니다.

● ● ●

- 분 야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 (각 파트 30명씩)
- 자 격 : 음악 전공자 및 성악에 소질이 있는 여성
- 서 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사진(반명함) 2매
- 접 수 처 :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산 24-17 중앙국악관현악단 (등기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접수마감 : 1999년 2월 28일 도착(우편) 및 접수분까지
- 오 디 션 : 1999년 3월 3일 (수요일) 오후 1시 사풍의 노래(지정곡), 자유곡(1곡)
- 발 표 : 1999년 3월 10일까지 개별통보
- 문의전화 : (02)896-2091/2 (중앙국악관현악단)

사단법인 중앙불교합창단
이사장 박 범 훈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보일러보다 약 1/3~1/4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343)468-7200(代)
· 영업부 : 0343)445-6090
· FAX : 0343)445-3370

파라미타 정상화 서둘러야

재정난·조계종사태 겹쳐 운영답보상태
이사 직원보강·불교학생회 지원 시급

조계종 포교원장이 선출된 가운데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하 파라미타)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라미타 당연직 총재인 조계종 포교원장이 선출된 만큼 파라미타도 정상궤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파라미타는 그동안 이사·회장·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의 '인화와 책임감 부재', '재산 확보 실패'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 왔다. 또 98년말 부터 2월초까지 조계종사태의 영향을 받아 '사은(謝恩)의 밤' '문화애호활동' '지도자 연수' 등 당초 파라미타에서 계획했던 조직·교화·문화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했다.

조계종 포교원장으로 선출된 정련스님은 "파라미타가 전국조직으로 발전했지만, 운영이 순조롭지 못하고 예산 또한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빠른 시일내에 파라미타의 현 재인 성타스님을 만나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파라미타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중에서 이사선임, 예산확보, 지도자연수 등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파라미타 이사 수는 총 3명. 지난해까지는 총 7명이었지만, 지난해 9월 이사 4명이 임기를 마친 후 충원되지 않았다. 더욱이 3명의 이사 중에서 성타스님(불국사 주지)을 제외한 무상(前 봉은사 주지)·현근(前 조계사 주지)스님들은 이사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 파라미타 이사는 실질적으로 1명 뿐인 셈이다.

조계종이 올해 책정한 파라미타 지원금은 1억5천만원. 이에 대해 "파라미타 1년 경상비를 제하고, 일회성 캠프만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액수"라는게 관계자의 항변이다. 이사들의 분담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조계종 지원금은 파라미타에서 청소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총 자산이기 때문이다.

파라미타는 종립학교보다는 일반학교 학생들의 포교에 주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그러나 파라미타가 올해 운영 및 사업비로 예상하는 7억원의 5분의 1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청소년교화 및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학송(광동여고 교감) 법사는 "파라미타가 성장을하기 위해서는 전국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의 활동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불교학생회에 대한 지원을 서두르지 않으면, 3월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파라미타가 어떻게 비춰질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파라미타의 최소단위인 분회 즉, 불교학생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련스님은 "2월말까지 이사를 선임하고, 중앙사무국 직원을 충원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3월초 불교학생회 지도자연수를 비롯해 시·도의 청소년 시설위탁 등의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⑤



민 병 돈 〈前 육사교장〉

"건강관리요? 모순된 얘기 같지만, 나는 특별하게 규칙을 정해 관리를 하려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리법이라고 봐요?"

군생활로 다져진 민병돈 前 육사교장은 건강에도 틈새가 없어 보인다.

육사(15기) 생도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불문에 들어선 그는 돌이켜 생각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욕심을 버린 삶의 철학이 건강을 유지시켰다고 말한다.

"욕심버린지 오랩니다. 욕심이 없으니 분노하고 섭섭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내가 꼭 바라는 것이 없으니 애를 태울일도 없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스스로 욕심없음을 감지했다는 그는 부처님 말씀 그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자연 몸도 건강해진다고 강조한다.

"욕심을 놓으면, 우선 남의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사에 초탈하려는 노력을 하게되지요. 사적으로 또 세속적으로 이익을 탐하지 않으면 모든 밖으로부터의 시선이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어떤 이의 눈에는 바보로 보이고 또 어떤 이는 고집이 센 사람으로 봅니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욕심 버리니 몸도 따라 건강
많이 걷고 음식 체질에 맞춰

경봉스님의 법어 중에 "바보가 되거라"는 가르침은 곧바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즉효약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세상이 바보로 채워지는 그때가 바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제시한다.

또 한가지 뺄 수 없는 건강관리 비법으로 영양사인 아내 구문자씨의 사상체질에 입각한 음식관리를 꼽는다. 다행히 두 아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태음인이라 조리에서 반드시 체크된다.

심지어 외식으로 태음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취하는 날은 그 즉시 이를 해소시키는 '대안(對案) 음식'이 식탁에 올라온다. 여담으로 들려주는 '많이 걷기'도 그가 챙기는 건강법.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항상 미리 서둘러 약속장소로 출발해 전철이든 버스든 한 두 정류장 전에 내린다. 이것은 전역후 생활의 여유속에서 찾아낸 비법이다.

위영란 기자(yryui@buddhapia.com)

단 신

장애인 어린이집 개원
대구 남구종합복지관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도스님)은 장애아동의 보육과 치료를 전담하는 유리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유리어린이집은 3세 이상 12세 미관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물리·심리치료 등을 통해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는다. 교육기간은 1년이며 보육료는 15만원. (053)475-7733

수련회 활동 CD에 담아
문화부 청소년개발원

문화관광부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전국 자연권 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CD 타이틀에 수록해 청소년지도자 및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02)578-1679

대불청 지도자연수
대의원총회도 열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 이하 대불청)는 1월 30~31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대의원 및 지구·지회 소속 불청지도자 1백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8차 대의원총회 및 제16차 지도자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총회에서 2억2천만원 규모의 대불청 예산이 가결됐고, 부회장에 구재완(전 사무총장)씨, 사무총장에 이종철(전 조계사청년회사무총장)씨 등이 인준됐다.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지도자들.

"알찬 프로…시간가는줄 몰랐어요"
어린이포교련연수 1백여명 참가

1월 30일 서울 은평구 삼보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회장 지원스님)의 '제1회 불교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는 1백여명의 어린이지도자가 한마음으로 부처님노래에 맞춰 율동을 배우느라 분주했다.

연수교육 입제식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지원스님(삼보사 주지)은 격려사에서 "어린이들에게 본래의 맑은 성품을 찾아주는 여러분에게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볼수 있어 마음이 뿌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어린이회지도자들은 1박2일이라는 촘촘한 일정 동안에 '하나라도 더 배우겠다'는 의지로 교육에 임했고, 군법당에서 참가한 군종병들의 교육태도도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21세기를 위한 불교아동교육'(황학현·불교교육연구원장), '법회를 겉도는 아동지도'(임숙희·경상대 교수), '어린이 종교교육 어디까지 가능한가'(박선영·동국대 교수), '불성 계발하는 조형놀이'(이명섭·이화미술학원장) 등 총 12강좌가 마련됐다.

인천 부르나어린이집에서 온 김미선씨는 "연수회에서 배운 내용을 어떻게 새싹들에게 전할까하는 행복한 고민이 앞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법전스님(지장사 주지)은 "부처님의 가르침만큼 새싹들에게 훌륭한 교육은 없다"며 "이번 연수회에서 배운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린이지도자들이 좋은 방편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에 청소년교화 법인 탄생
옥련청소년개발원 개원…스님 30명 참가

수련캠프·시설위탁 맡아

충남지역 불교계에서 사단법인 충남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대표 종인스님, 이하 청소년개발원)을 개원해 화제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개발원에는 종인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 온양·아산지부장)등 충남지역 스님 30여명이 참여했다. 청소년개발원은 1월 23일 사단법인으로 인가 받았다.

종인스님은 "지역 청소년 육성·교화사업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지정 청소년 사업과 시설물 위탁"이라며 "청소년개발원은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도입할 수 있는 토대"라고 설명했다.

충남지역에는 청교련 온양·아산지부가 개설되어 있지만, '법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정 청소년 사업과 시설물을 위탁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온양·아산지부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옥련공부방'이 유일하다.

청소년 사업과 시설물 위탁은 청소년단체에게 재정적 도움 뿐만 아니라 대외적 공신력 또한 높여주는 이점이 있다.

청소년개발원은 이미 '어울마당' '수련캠프' 등 도지정 청소년사업을 위탁받았다. 이중 25일 아산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어울마당'은 청소년개발원 첫 사업. 온양여자고등학교, 용화중학교 등에서 3백여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하는 '어울마당-청소년 민속놀이 한마당'에서는 사물놀이, 씨름, 닭싸움 등 전통놀이가 선보여진다.

김남녀실장(청소년개발원)은 "5월 중순까지 위탁사업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지역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실태조사' 등 기초 프로그램 진행에 노력할 것"이라며 "3개월간의 활동을 토대로 5월 29일 청소년개발원 발대식을 갖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증욱 기자

불상·탑에 깃든 백제정신 조명
대전MBC '잃어버린 백제를…'

백제인들이 그들의 혼을 예술로 승화시킨 불상과 불탑. 대전MBC가 25일 방영하는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백제불상, 그들의 미소'(담당PD 임치환)는 불상과 불탑에 녹아 있는 백제인들의 삶과 정신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밤11시부터 60분간 방송되는 이 프로에서는 꾸밈없이 밝고 소박해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서산 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백제 최초의 마애불인 '태안 마애삼존불'(보물 제432호), 백제 불상 중 유일한 사면석불인 '예산 화전리 사면석불'(보물 제794호) 등이 소개된다.

또 목조에서 석조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엿 볼 수 있는 미륵사지탑(국보 제11호)과 백제 석탑의 완성된 형태로 손꼽히는 정림사지탑(국보 제9호)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임치환PD는 "백제인들은 그들의 불심과 아름다운 심성을 투박한 돌과 쇳덩이에 불어넣었다"며 "백제인의 삶과 정신을 프로그램에 담아 잃어버린 우리 고대사를 복원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방송 소식

BBS 설연휴 음악선물

불교방송(사장 성낙승)은 설날 연휴인 14일~17일까지 귀성객들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위주로 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나누는 기쁨, 이웃과 함께(오후5시5분~오후6시) △영화음악실 '스크린으로 만나보는 세계공속'(밤10시~밤11시) △즐거운 설날, 마음의 노래(낮12시10분~오후2시) △음악이 있는 곳에(오후3시~오후5시) △퀴즈놀이 한마당(오후2시5분~오후2시50분) △우리 가곡으로 여는 아침(오전9시~오전10시)

btn 종교인 시청률 1위

불교TV(사장 신허스님)가 98년 11월29일~12월5일까지 실시한 케이블TV 시청률 조사에서 종교 3사중 선두를 차지해 4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켰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불교TV는 15위를 차지한 반면 기독교채널인 KCTS는 18위, 평화방송 PBC는 24위에 그쳤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DCN(영화), KMTV(음악), 투니버스(만화) 채널 등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으며 홈쇼핑채널도 최근 들어 상위권내에 진입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철인사천왕 13일 개봉

사찰을 지키는 사천왕을 소재로 만든 불교애니메이션 영화 '철인 사천왕'(감독 김혁)이 13일 국도극장을 비롯한 전국 20여곳에서 동시 개봉된다.

이번 개봉에 앞서 제작사인 '날개달린 영화'에서는 3일 남산감독협회에서 기자 시사회를 가졌고, 6일에는 연강홀에서 '철인 사천왕' 주제곡 발표 및 로봇 애니메이션 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염불 禪 주말 수련회 (토요일 저녁9시 / 일요일 아침7시)

와서 보라! 수행비전의 완벽한 테크닉을!

-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률에 맞춰 힘차고 박력있게 경쾌하고 신명나게 재미있고 리드미컬하게 행주좌와 동정간에 자동으로 염불되고 단전호흡되는 한국불교 전래이래 처음 공개되는 염불禪 수행법
- 큰소리로 장시간 염불해도 절대 목이 아프거나 쉬지않고 오히려 목소리가 트이며 말더듬, 실어증이 극복되고 가슴이 탁트여 시원해지며 피로감을 모르는 용맹정진시 용이한 수행법
- 염불 수행시 허가 이완되어 입천장을 탁탁치면 대뇌가 각성되어 또렷또렷해지며 졸음과 혼침이 극복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의 맺힌 기가 풀리며 스트레스는 저절로 해소되고 올곧은 자세가 계속 이어진다.

♣ 근심 걱정의 악업이 가슴에 맺힌 한이, 병고액난의 괴로움이 번개치듯 녹아내리고 문제해결의 지혜가 순간 떠오르며 간절한 소원은 즉각이루는 기도 수행시 가장 용이한 염불법이다.

- 독경을 잘하려면 세로쓰기 한글 경전을 한줄씩 읽고 왼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면 오른뇌의 직관이 열리며 집중력 기억력 좋아지고 번뇌망상의 잡념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렷또렷하고 정신맑은 상태로 독경삼매 이른다.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들숨과 날숨과 숫자를 절 동작에 대입하면 자동단전호흡되고 또렷하게 숫자가 헤아려지며 삼천배를 하여도 절대 숨차거나 헐덕대지 않고 몸살나지 않으며 힘들지 않는 가장 진보된 수행법이며 최고의 건강법이다.

- 시중의 단전호흡은 부처님 호흡법이 아니며 수련을 잘못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멍치 아프고, 옆구리 결리고, 협압 오르며, 머리 무겁고, 위장 병 생기며 얼굴 노래지다 검어지며 병이 되니 돈낭비, 시간낭비 하지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저절로 단전호흡되고 기도되는 염불禪으로 불자답게 수행하십시오.

- 수행내용 : 한글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염불정근, 참선, 와선, 행선, 호흡에 맞춰 108배, 도인건강법, 축원기도 7회
- 예약수련 30명, 넉넉한 복장, 초심자 기본수행법교육(7시~8시)
- 불자기업 오스테이빙테크(주)에서 수련회비 일체를 후원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난치병치료안내

수백년 비전된 한방의술로 난치병을 치료한 고봉거사는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우리 농산물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신부전증, 관절염, 백혈병 초기 등 탁월하게 치료됨

※ 당뇨 뚱뚱한 사람은 15개월만 복용하면 20kg 이상이 줄면서 치료됩니다.

※ 난치병 지리산 요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 본사 생산제품 -
솔 선 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신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 의사인 고봉거사, 지리산 토송자 신선도인, 인체공학박사 등의 왕진, 출장도 안내합니다.

◆ 문의전화 : (011) 808-8880
(왕진,출장) (053) 655-302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觀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와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선묵가협회 초대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야)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월간 여래 Monthly YORAE

사과 말씀 올립니다

무명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드시기 위해 불법 홍포에 여념이 없으신 스님 前에, 그리고 월간여래 정기구독 회원 여러분들께 사과의 글 올립니다.

창간호를 선보인 월간 여래가 진정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 뵙고자 전 직원 100일 기도 입재합니다. 문서 포교의 원을 세우고 시작한 월간여래지고 지순 끝까지 부처님께 의지하고 가기로 한 길인만큼 내외적인 정비로 더욱 정진하고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100일 기도 회향 후 찾아 뵐 강하고 아름다운 여래의 모습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여래 자문위원 및 이사추대
지역 지사장 및 취재기자 모집
불교인으로서 포교에 뜻을 두신 능력과 신심을 겸비한 분과 함께 여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이력서는 우편발송으로 접수합니다.

정기 구독료를 입금해주신 회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확인과 관리를 위해서 본사에 전화 부탁 드립니다
미납 회원은 5월 이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여래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73-3 서영빌딩 2F
TEL.(02)535-5838 FAX(02)535-5839

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을,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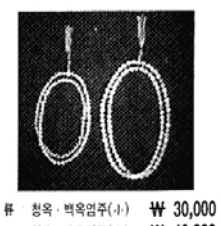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지향로(8㎝×5㎝) 1개 · 청지촛대(6㎝×4㎝) 2개
· 양초, 향 각 한집, 촛대 비림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五福臨門 猛虎圖



용 도 액자용
크 기 92㎝ × 61㎝
가 격 : ₩ 6,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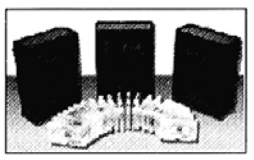
가격 (코팅형, 골동품형)₩ 350,000
(개금)₩ 580,000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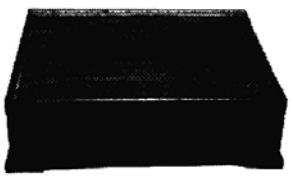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묘법연화경(전7권)



가격 : ₩ 140,000 (복장용)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찻 상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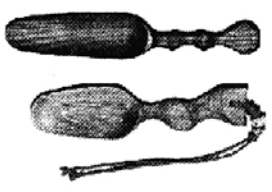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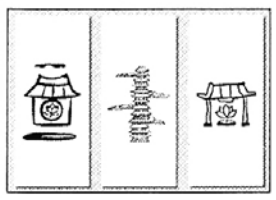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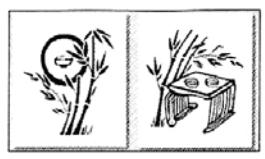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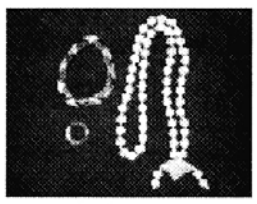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천연옥 마사지 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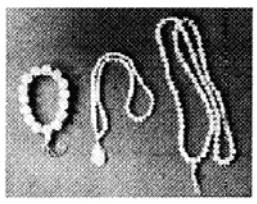
가 격 : ₩ 49,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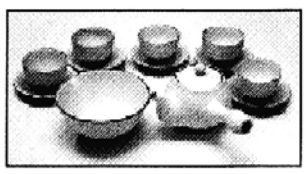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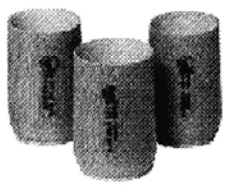
가 격 : ₩ 98,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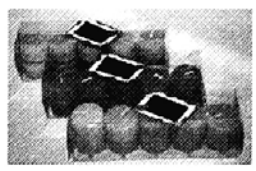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외(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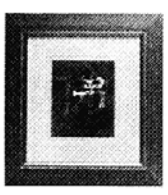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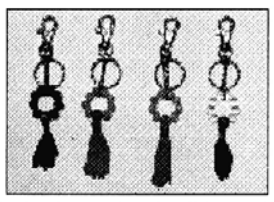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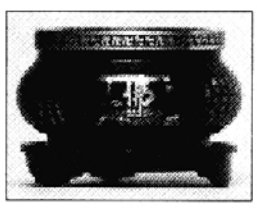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빔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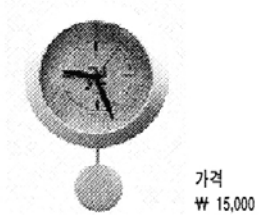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기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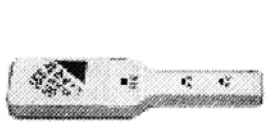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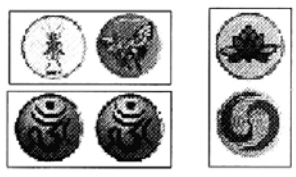
가격 ₩ 70,000 (가방 포함)

가스 누설 탐지기



가격 : ₩ 39,000 (건전지 별도)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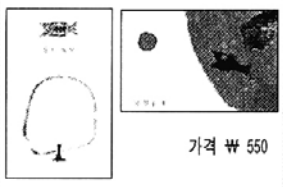
연꽃 앞치마



내부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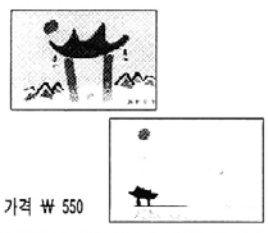
가격 ₩ 5,000

한샘 불교 카드



가격 ₩ 550

한샘 불교 카드



가격 ₩ 550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홍삼



제조원 개성인삼 협동조합
중 량 80ml/50포입

가격 ₩ 98,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우전 · 세작 작설차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대작 · 중작 작설차

대작 ₩ 40,000 / 중작 ₩ 60,000
(2통 한세트)

묘법연화경(소책자)

가격 ₩ 4,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700,000

법성게 걸망

크기 500×460 (㎜) / 색상 회색, 빔색, 진베이지색
가격 : ₩ 15,000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한국불교 총람 CD

가격 ₩ 60,000

날 개

가격 ₩ 9,500 (CD)

시나브로1집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전단향 합장주

가격 ₩ 2,000

월성 합장주

가격 ₩ 3,000

주목 합장주

가격 ₩ 2,600

주목 단주

가격 ₩ 16,000

태양주 단주

가격 ₩ 6,000

보리수 단주

가격 ₩ 9,000

전단향 염주

가격 ₩ 12,000

새광석 단주

가격 ₩ 1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원석(냉장고용)

가격 ₩ 15,000

생광석 비누

가격 ₩ 15,000(3개 한세트)

생광석 뷰티 파워

가격
₩ 25,000

생광석 파우다

가격 ₩ 38,000

생광석 허리 밸트

가격 ₩ 75,000

법회안내



서옹스님(고불총림 방장) 21일 오후 2시 부산불교교육원 '생활속의 수행' 주제 법회. (051)466-4080



법정스님(길상사 회주) 21일 오전 11시 길상사 일요법회. (02)3672-5945



무진장스님(동산반야회 법주)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 금강경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동산불교 교리법회. (02)732-1206



법공스님(광명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큰스님 초청법회. 매월 음력 19일 오전 10시30분 영가천도대법회.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 10시30분 신중기도법회. (0344)978-9782

유동호법사(한길법당) 매월 네째 일요일 오전 11시 일승보살회 법회. 매월 네째 수요일 오후 7시 여설회 법회.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4시 에카야나 법회. (0346)574-6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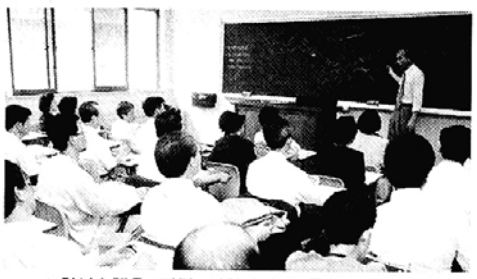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2월11일 (목)

■'선사상의 근본과 그 이해' 선학강좌=오후 2시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은 덕숭선학아카데미 예비강좌 '선사상의 근본과 그 이해'를 실시한다. 서울대 심재룡 교수가 강의하며, 저녁 7시에는 참선수행을 지도한다. (02)541-0002

2월12일 (금)



◇참선수행을 겸한 선학강좌를 통해서 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자.

■월운스님 '선종사의 흐름' 강좌=한국불교선학연구원은 덕숭선학아카데미 예비강좌로 오후 2시 참선수행을 지도하고, 저녁 7시에는 동국역경원장 월운큰스님이 '선종사의 흐름'을 강의한다. (02)541-0002

2월13일 (토)

■길상사 선 수련회=길상사 1박2일 주말 선 수련회가 14일 까지 설법전에서 일반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02)3672-5945

2월18일 (목)

■강화 보문사 참배=용진신행회는 강화 보문사를 참배하고, 사시기도에 동참하기위해 오전 6시에 출발한다. (02)279-1191

■동대문경찰서 동불회 법회=동대문경찰서 동불회는 낮12시 청사 3층 법당에서 법회를 갖는다. (02)3675-1118

2월21일 (일)

■붓다의 메아리 축제=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가 제48회 붓다의 메아리 축제를 오후 2시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연다. (02)720-9139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며 남다른 설을 맞이하자.

가족과 함께 사찰서 차례를…

무진법장사등 설 합동제사 접수

온가족이 사찰에서 차례를 지내며 불자로서 남다른 설을 맞이하려는 사찰 설날 합동차례가 새로운 신행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사찰합동차례는 영가 천도나 영구위패 봉안 등을 목적으로 치러져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한파로 저렴하고 간소한 차례를 원하는 불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러한 욕구도 충족시키고, 부처님 도량에서 여법하게 설을 맞을 수 있는 방편으로써 사찰합동차례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무진법장사는 설날합동차례와 함께 설날 새벽기도도 봉행하며, 천중사는 외식을 한글화해 차례를 지낸다. 또 금강사는 영단을 하루종일 차려놓아 하룻동안 언제든지 참배할 수 있다.

현재 조계사, 대각사, 봉은사, 천중사, 삼보사, 능인선원, 철원 심원사 등 전국의 사찰과 포교당에서 설날 합동차례를 접수중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설날 합동차례 사찰

사찰명	전화번호
무진법장사	(02)932-2333
봉은사	(02)511-6070
능인선원	(02)577-5800
법련사	(02)733-5322
삼보사	(02)352-6407
대각사	(02)765-0972
금강사	(02)993-3744
구룡사	(02)575-7766
조계사	(02)732-2115
천중사	(02)914-3558
사천왕사	(02)939-3900
금강정사	(02)893-2700
석왕사	(032)663-7771
봉선사	(0346)68-1951
등용사	(052)251-2791
옥천사	(0556)72-0100
백룡사	(051)758-0318
심원사	(0353)455-3468
한마음선원	(0343)472-3100

종단소식

조계종

마곡사 본말사 행자교육

제6교구본사 공주 마곡사(주지 진허)는 24일부터 27일까지 연화당에서 본말사 행자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행자교육은 발우공양, 예불 등 기초소양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동화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제9교구본사 동화사는 중앙종회의 보궐선거를 19일 오후 1시에 실시한다. 이번 보궐선거는 종단사태로 인해 성문스님이 종회의원 자격을 상실한데 따른 것.

쌍계사·선운사 산중총회

차기 주지선출을 위한 쌍계사(제13교구본사) 산중총회가 26일 오후 2시에 쌍계사에서 열린다. 또 선운사(제24교구본사)도 3월 3일 오후 2시 산중총회를 열고 차기 주지를 선출한다.

태고종

대구·경북 전북교구 종회

대구·경북교구 지방종회(의장 중산)는 1월28일 종무원 설법전에서 정기종회를 열고, 올해 예산으로 6천여만원을 책정했다. 또 실직자 쌀 모으기 운동 등을 신년사업으로 전개키로 결의했다.

이에앞서 전북교구지방종회(의장 성암)도 21일 정기종회를 개최하고 3천7백여만원의 예산과 사회복지 및 구호활동 등의 신년사업을 확정했다.

달마선원 명상강좌 열어



달마선원(원장 도각)은 3월 1일 '참나명상기공' 교양아카데미'를 개원한다. 아카데미에서는 선 심리상담 및 지도, 불교기초교리, 명상기공, 다도, 서예강좌 등이 선보인다. (02)382-5788

송정사 삼존불 점안법회

경북 경산시 송정사(주지 월봉)는 1월20일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흥사 주지 석주스님, 죽림사 주지 연운스님(중앙사정원장)을 비롯해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했다.

진각종

진각청년회 올 사업 확정

진각청년회(회장 선상신)는 1월30일 대구 진각문화회관에서 제204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진각청년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99년도를 '수련과 재정의 자기 동력 확보의 해'로 정하고, 연내에 △진각청년 등반대회 및 진각청년의 밤 개최 △지역 및 심인당 청년회 지원 △회보 〈진각청년〉과 〈회칙 및 규정집〉 발간 등의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관음종

7인 종정추대위 구성

중앙종회(의장 법륜)는 1월28일 천안 보명사에서 제36차 정기 중앙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26억 3천여만원의 신년예산과 종정추대법 4조 및 호법원법 6조가 개정, 통과됐다. 또 원로의장, 호법원장, 총무원장, 종회의장 등 7인의 종정추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자리에는 법륜 종회의장, 혜응 원로의장, 홍파 총무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종회의원이 참석했다.

원융종

중앙종회 종헌종법 개정

중앙종회(의장 성관)는 1월27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임시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종회에서는 종헌종법을 개정하고 보궐선거를 실시, 체두스님(청운사 주지)과 체명스님(용암사 주지)을 선출했다.

대한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법찬스님

총무원장 서리에 법찬스님(정릉 경불사 주지)이 선출됐다. 금파 종정은 1월28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 소재 총무원 청사에서 종회의원 22명과 전국 교구종무원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찬스님에게 총무원장 서리 임명장을 수여했다.

법찬스님은 1937년생으로 통도사 강원을 졸업하고 총무부장을 역임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 알림

▲실상사 더덕판매=불교귀농학교가 지리산 실상사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더덕을 판매한다. 설맞이 선물셋트 2kg이 2만5천원이며, 4kg은 4만5천원. 택배도 가능하다. (02)723-1884

▲청각장애인 무료 운전교습=광림사 연화복지학원은 청각장애인 무료 운전교습을 실시한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이론교육과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11시 기능교습을 지도한다. (02)2202-5831

▲'천장지구3' 상영=불교문화센터 좋은영화모임은 12일 오후 6시 천장지구3를 상영한다. (02)703-0108

♣ 강좌

▲길상사불교교양대학=길상사가 불교교양대학 강좌를 개설한다. 3월 9일부터 3개월과정으로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강의한다. (02)3672-5945

▲어린이시사토론반=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 초등학교 4학년~6학년생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등 주제별 토론과 논술을 지도한다. (02)577-5800

▲선체조=법련사 불일강좌에서는 선체조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에 2층 선방에서 실시한다. 수강료는 2개월에 4만원. (02)733-5322

▲기초경전=보조사상연구원 목우회에서는 기초경전 교양강좌를 개설한다. 아함경, 금강경, 반야심경 등을 강의하며 4개월에 6만원이다. (02)733-5322

▲성훈따주기=수효사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수효사 문화원에서 성훈따주기 강좌를 연다. (02)313-5047

▲법륜스님 1백일강좌=정토회는 3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법륜스님의 백일강좌를 마련했다. 매주 월~금요일 주야간반으로 불교기초지식과 경전, 부처님의 일생 등을 지도한다. (02)587-8993

♣ 모집

▲자원활동가=맑고향기롭게는 양로원, 장애아동시설, 영아시설 등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손발이 돼 줄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02)741-4696

▲청소년자원봉사단=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20일부터 2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활동한다. (02)577-5800

▲만대교학대학원 신입생=만대교학대학원은 포교학과, 유아교육과, 종무행정과 등 99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0582)535-1987

▲설맞이 후원자=개금사회복지관은 설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나눌 후원자를 모집한다. 현금이나 물품으로 동참하면 된다. (051)893-5034

▲종이접기 수강생=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월 과정의 주야간 종이접기 초·중급 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초급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중급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02)817-8054

▲노숙자후원자=혜명양로원 노숙자쉼터는 노숙자들이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월3천원 이상의 기금 후원자와 방한용품 등 물품후원자를 모집한다. (02)891-5732

▲청소년자원봉사단원=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20일, 27일 개최될 중·고등학생 자원봉사단 발대식에 앞서 자원봉사원을 모집한다. (042)633-1141

▲하청일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 직업훈련실 하청작업 일감을 모집한다. 전자부품, 악세사리, 문구류 등을 비롯한 조립물품과 포장 등. (02)988-4215

♣ 답사

▲터사랑 고궁순례=터사랑은 14일, 17일 2회에 걸쳐 기묘년 새해맞이 고궁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4일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 17일 창덕궁, 창경궁, 종묘 등을 둘러본다. (02)725-1284

♣ 이전

▲한라불교신문사(발행인 수열스님)는 1월 23일 제주시 삼도 1동 501-2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064)755-2203

▲불교이벤트가 불교이벤트 선우기획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무실을 다보빌딩 불교방송 8층으로 옮겼다. (02)716-7790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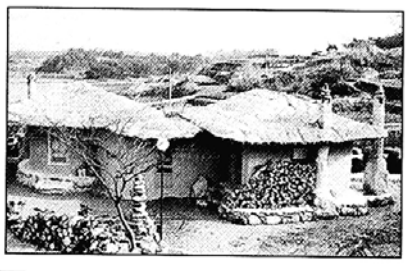
지사·지국 안내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

황토 흙벽돌 기계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634-1237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남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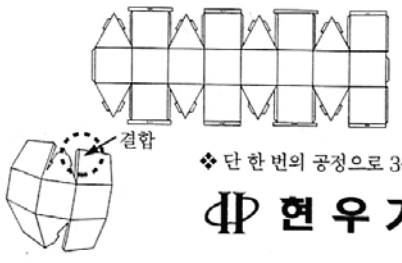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따뜻한 세상' 만드는 불자들



◇정억순보살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40여년째 이불을 만들어 보시해 오고 있다.

40년째 이불 보시 정억순 보살

이불보다 따뜻한 보살행

선방 · 고아원 등에 이불 1만여채 전달 인생 격려 편지도

"사랑이 간다."

1일 대각행 정억순(60 · 미륵원장)보살은 손수 지은 이불 3백93채를 호남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내는 자리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랑으로 한땀 한땀 지어 온 이불을 전달하며 내뱉은 "사랑이 간다"라는 말 속에 녹아 있는 대각행보살의 마음은 이불보다 따뜻하다. 20살 때부터 시작된 이불보시가 이제 40년이 지났으니, 그 세월 속의 사연이나 우여곡절은 이불만큼 많다. 선방, 사찰, 고아원, 양로원 등에 전해진 이불만도 9천여채. 2일부터 4일까지 부산 · 대구 · 전라 · 충청도 등 19개 시군구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해지는 이불 1천3백여채까지 합치면 1만여채 이불 속에 불보살의 마음을 담아 보내왔다.

이번에 전달한 이불은 설날을 맞아 추운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아이들을 포근하게 덮어주게 되었다. 한채 한채 정성껏 포장된 이불 속에는 '인생 성공은 배움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격려 편지도 담겨졌다.

평생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이불을 만들어 온 대각행보살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자신의 3형제는 보살피지 못했다. 한 채의 이불도 해주지 못했다. 마음 가운데 저절로 차오르는 어미의 자식 사랑을 전하지 못했으니, 대각행보살의 이불사랑은 한의 커다란 회향인 셈이다. 천길 나락같은 고통을 사랑으로 돌이켜 남을 향해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보살'로 부르지 말고 '할매'로 불러 달라고 당부한다. 보살행을 하지 못하는데 보살은 무슨 보살이냐면서 대각행보살은 자식들이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소년소녀가장처럼 자라났기에 이번 이불 전달은 '진정 사랑이 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달로 인연된 소년소녀 가장들에게는 옷 생필품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며 올 여름 미륵원에서 수련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특별히 좋은 일 한다는 생각도, 내가 한다는 생각도 해 본 적 없어요. 불법 배웠으니 실천하며 사는 것 뿐이죠. 남을 위해 사는 길이 바로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죠."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실직 및 결손가정 등의 청소년들에게 무료컴퓨터 교육을 하고있는 박광열씨.

무료 컴퓨터 교육 박광열 씨

불우 청소년에 꿈 심어

결손가정 · 실직자녀 학원 등록 취직 알선 음악회 열어 탈선 예방도

실직 및 결손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남몰래 무료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는 청보리가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안성 한우리정보처리학원 박광열 원장(31). 박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굴암사(주지 보덕)에 거주하는 정선화(명륜여중) · 이몽준(안정중학교)군을 비롯 결손가정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컴퓨터교육을 해오고 있다. 특히 항상 교복만 입고 다닌다는 굴암사 학생들의 생활상을 듣고 옷까지 장만해 줄 정도로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그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비가 없어 배우지 못하는 학생들을 볼 때가 가장 가슴이 저민다고 말한다. 하루는 한 학생이 학원 입구에서 울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실직해서 학원을 다닐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겨울방학동안 무료로 등록시킨 학생만 해도 10여명에 달한다. 그의 숨은사랑은 92년 컴퓨터학원 개원 때부터 시작돼 많은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배웠고 취직도 했다.

박원장은 "상처받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놓는 심정으로 시작했다"며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때까지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컴퓨터는 그에게 희망이다.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자신과 똑같은 청소년시절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시절 그는 김치 한 조각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을 정도로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삶에 대한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 92년 강사생활을 청산하고 안성에 학원을 차렸다. 이 때부터 그의 자비행은 시작됐다. 학원을 마친 청소년들이 술집 등 유흥가를 배회하는 것을 보고 청소년음악회를 마련하는 등 어려운 청소년 돕기에 나선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열정이 상처 받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한 것이다.

"예전에는 가난해서 굶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굶는다"는 박광열씨의 일관된 신념은 '끼와 능력'을 모두 동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더이상 외롭지 않게 보살펴 주는 것이다. 이번 설날에도 실직 및 결손가정 아이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송광사 '민족문화 교육관'

승보종찰의 국민정신 교육장

단기출가 1천여명 수용 각종법회 · 수련시설 갖춰

천년 역사를 머금고 한국불교 맥을 지켜온 순천 송광사(주지 현지). 승보종찰이라는 위명처럼 16국사와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한 송광사가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교육을 위한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련원으로 사용될 민족문화교육관이 바로 그것. 민족문화교육관은 4개동으로 A동(수련원), B~D동(기숙및 식당 강의실 사무실)이 건립된다. 송광사는 1차 불사로 지난해 8월 효봉영각 앞 9백평 부지에서 수련원(73평) 기공식을 가졌다.

민족문화교육관이 완공되면 겨종단적 집체교육(행자및 비구(니)계교육 등) 강원 선원 율원 염불원 스님들의 집단교육, 춘계보조국사 종재, 추계 효봉종사 추모법회 등 각종 대형법회, 출 · 재가불자들의 교육과 수련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각종 수련회 세미나 교육 등의 장소로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0여년의 재가불자 수련회 역사를 갖고 있는 송광사는 그간 시설미비로 수련회를 여법하게 치룰 수 없었다. 수련원이 완공되면 '4박5일 단기출가' 하계수련회에 참석치 못한 1천여명을 전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

송광사 주지 현지스님은 "송광사를 전국민의 정신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불사를 시작했다"며 "수련원이 완공되면 연중무휴로 각종 수련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광사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교육관 불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IMF 한파로 인해 현재 주축기단만 올라간 상태로 추운 겨울을 맞고 있다.

고승들의 위업만큼이나 한국불교의 중요한 위치를 점해왔던 송광사의 이번 민족문화교육관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면 불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지난해 8월 기공된 송광사 민족문화교육관이 경제한파로 더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원내는 주지 현지스님.

마곡사 대전지역 전법 나섰다

백제불교통신대 개설…불교회관도 추진

공주 마곡사(주지 진허)가 24일 백제불교통신대학 개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법 활동에 나선다. 마곡사는 대전지역 전법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역 11개 사찰주지스님들과 협의를 거쳐 대전지역 중장기 전법사업 기획단을 결성하고 방안을 마련했다.

대전지역 전법활성화 방안은 △대전불교회관 건립 △교육사업(통신 · 불교교양대학 개설) △조직사업(구역법회조직, 계층및 분야조직, 신행단체활동) △사회복지사업(IMF 실직자 쉼터, 노숙자 급식소, 복지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운영) △불교방송국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곡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은 포교전진기지 대전불교회관 건립이다. 이를위해 마곡사는 2백여평의 건물 임대나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불교회관에는 법당 강의실 결혼식장 장례예식장 등이 갖춰지며 각 신행단체의 신행활동 공간으로도 활용하게 된다.

이밖에도 마곡사는 충남지역의 잇단 훼불 방화사건 등으로부터 권익 보호,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 신행및 교리상담실 운영, 정기법회 개설 의무화, 각종 지역 연계활동 등도 병행한다는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김중근 기자

낙산사 홍련암 해체 복원 받침기둥 부식 붕괴 위기

양양 낙산사(주지 지흥) 홍련암 법당을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심하게 부식되는 등 붕괴위기에 처해, 해체 복원된다.

해안 절벽 위에 위치한 홍련암은 법당을 받치고 있는 구조물 부식으로 외벽이 3m이상 떨어져 나가 철근이 드러나는 등 외견상으로도 심각한 상태다.

홍련암은 이달초 해체 복원을 골자로 한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을 문화재관리국에 제출했다. 홍련암 법당 해체 복원공사는 문화재관람료 중 30%의 예치금과 보시금 등 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말까지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직지사 금오복지관 위탁

노인센터 · 탁아소 등 운영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4월 1일 개관하는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권자로 1월 28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재단 김천지부인 조계종 제8 교구본사 직지사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맡았다. 제8교구에는 상주 냉림사회복지관과 더불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금오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지 5백98평 연건평 4백70평 규모로 지하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지상 1층에는 아동시설과 유아 · 탁아실이, 2층에는 사무실과 상담실이, 3층에는 독서실과 강당등이 들어서게 된다.

직지사는 3월중으로 인력채용 및 부대시설을 완비한 후 개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결식아동에 3백만원 천안사암련 전달

천안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조 · 보광사 주지)는 1일 교육청을 방문 결식아동돕기 성금으로 3백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서 회장 묵조스님은 "현재 천안지역 결식아동이 1천2백84명에 달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회원 사찰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선도산 사적지구 지정 문화재관리국 재검토

선도산과 그 주변 역사유적 환경보존을 위해 계명기독병원 건립을 불허하는 등 선도산 사적지구 지정을 추진하던 문화재관리국이 사적지정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문교 문화재관리국 국장은 1일 경주을 출신 임진출 국회의원(문광위)의 전화 통화에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는 경주시 선도동 선도산의 사적지구 지정 계획에 대한 유보의사를 통보했다.

문화재 관리국은 지난해 1월 문화재 위원회를 열어 선도산 일대 국립공원 1백20만평 등 2백여만평을 사적지구로 지정키로 의결하고 경주시에 의견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경주시는 주민들의 반발로 회신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강지연 기자

불교합창제 · 사상 강연 전북불교회관

전주 전북불교회관(원갑 회일)은 6일 전북예술회관에서 '불교합창제 및 사상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불교회관 어머니 합창단과 판소리 대가 한승원씨, 대금연주가 최명호씨 등이 출연, 전통 고유의 소리를 선보였다.

김중근 기자

Avatar 아봐타 코스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고 깨달음과 평화를 얻으십시오.

아봐타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 및 사건들을 창조하거나 끌어 당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토대로한 강력한 **자기변성의 효과**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코-스)이다.

참된 신앙과 현실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자기자신의 신념체계를 자연스럽게 탐구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하는데 있다.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모든 만물을 낳고 자성이 본래 오고감이 없음을 아봐타 코스에서 당신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아봐타 코스는 7일~9일이 걸리며 비용은 16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에게는 무료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교통편 : 지하철 양재역 5번출구~마을버스(구룡사행) 삼호물산 하차

慧元 아봐타 센터

주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3 은혜빌딩 2층
전화: (02)579-9379 FAX: (02)572-5514

인간과 미래를 생각하는 열린교육의 장

동국대학원 사회교육원생 모집

1999학년도 봄 학기 불교교육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1. 모집과정

과정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구분
교양교육과정	불교란 무엇인가?	I	권기종	1학기	주간
		II	권기종	-	-
	좌선법의 이해와 실제	I	인환스님	-	-
		II	인환스님	-	-
	선기공 (4학기과정)	초급반	적운스님	-	-
		중급반	적운스님	-	-
		고급·시범반	적운스님	-	-
전문교육과정	불교전문교육 (4학기과정)	불교와 경전의 이해	권탄준	-	-
		불교의 증교초적 이해	최증석	-	-
		초기불교의 이해	최봉수	-	-
		대승불교의 이해	권기종	-	-
		중국불교의 이해	장휘옥	-	-
	검전연구	법화경	권기종	2학기	-
	깨침의 세계		최봉수	-	-
	불교영어		김증명	-	-
	한문해석법		심재동	-	-
통신교육과정	동국대TV 불교아카데미 (4학기과정)	천태불교의 이해	리영자	1학기	BTN을 이용한 방송강의
		근본불교윤리	조용길	-	
		불교의 증교초적 이해	김용토	-	
		대승불교의 길잡	권기종	-	
		신의 이해와 역사	정성본	-	
		한국 불교사특강	김영태	-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문엄디	2학기	주간

2. 지원자격
· 일반 성인으로 자격제한 없음

3.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2월 1일(월)~2월 26일(금)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와 사진(여권용) 3매
나) 주민등록등본(동국대 TV불교아카데미과정 등 일부과정에 한함)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TEL (02)2260-3728~9 / FAX (02)2260-3730

학점은행제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학점은행제에 의거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은 교육부 학점은행제 시범운영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98학년도 가을학기부터 5개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1999학년도 제8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란

*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며 불교 3보의 이상적 가치를 생활속에 구현하려고 마하연의 정법을 섭수정법하는 대승의 보살로서 불교 종교인의 신앙요건과 법사법위 품수 의례의 과정을 거쳐 법사의 자격을 여법히 받은 대승행자인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법사법위품수와 소정의 법사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 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 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1999년 1월 5일~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 (02) 720-1836 · 733-1959
737-5305 · Fax : (02) 737-5305

불교소비자운동 첫 결실

부도로 문닫은 '삼우화학' 2년만에 재기
종단협소비자위 불공정거래 중재나서

불교소비자보호운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로 도산했던 삼우화학(사장 배호성)이 불교계와 공동노력으로 2년여만에 재기했다.

삼우화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롱기성 필름을 개발해 연간 4천만달러의 수입대체를 실현한 유망 중소기업. 생산 전량을 유아용 기저귀와 여성용 생리대 등을 만드는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던 삼우화학은 96년 10월 부도라는 철퇴를 맞고 문을 닫고 말았다. 유한킴벌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와 효성EASF의 불량 원자재 납품이 원인이었다.

사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을 갔지만 사장 배호성씨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장장 박영춘씨, 배영욱씨와 함께 유한킴벌리와 거래은행, 중소기업청을 밤낮없이 쫓아 다녔다.

실의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내던 배사장 일행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총지종 법장원장)와 인연을 맺은 지 2년 남짓만에 다시 일어섰다. 소보위가 해당 기업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고 항의방문, 불매운동 등 '삼우화학 살리기운동'을 펼치며 중재에 나서 삼우화학과 유한킴벌리가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6개월간 거래조건 조절끝에 합의한 배사장 일행은 지난해 말 경북 점촌 문경시에 소재한 예전의 공장을 다시 인수했다. 공장은 기계 및 설비점검이 마무리되는대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삼우화학은 정상적인 생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연간 120t을 생산, 미국의 D사, 한국의 대표적 패스트푸드 가공회사 N사 등 3~4곳의 제조회사에 전량 내수 또는 수출할 계획이다.

"어느 누구도 회생 가능성을 점치지 않았던 삼우화학을 위해 불교계는 희망과 용기를 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불교이념대로 이윤을 사회이익을 위해 되쓰는 모범 불자기업이 되겠다." 소보위 산하 실직자들의 쉼터 '오뚜기모임터'에서 공장 재가동을 위해 애썼던 2년여 시간을 잊을 수 없는 배사장. 배사장은 "불교소비자보호운동이 확대돼 '힘없고 돈없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보위 서동석 기획실장은 "삼우화학의 사례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소보위 활동이 범종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보위는 96년 7월 발족해 불교소비자대학과 '오뚜기모임터' 운영, 아나바다운동, 순회강연 등을 펼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젊은층-지식인 선수련 관심높다"

길상사 수련회 평가

길상사 수련원(원장 지묵)이 지난해 12월 25일~1월 30까지 실시한 3박4일 겨울수련회 평가자료에 의하면 젊은층과 지식인층의 선 수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선수련회에서 전체 참가인원 94명 가운데 20대(25%)와 30대(31%)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했으며, 남성(27%)보다는 여성(63%)의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참가자들 직업을 살펴보면 교사 강사 교수가 18명(19%), 주부 사업 자영업이 10명(11%), 학생 8명(9%), 회사원 7명(7%), 의사 간호사 2명(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길상사 선수련회에는 전체 참가자 가운데 무종교인이 25%, 타종교인이 10%를 차지해, 선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도쿄의 한국절 명월사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는 전前대통령 내외와 명월사주지 법인스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르니 남 원망하는 마음 사라졌다"

전두환 前대통령 방일 명월사 참배

사면복권 이후 불교계의 국난극복참회대법회 참석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한 전두환前대통령은 15년만의 방일(訪日) 역시 절 참배로 시작했다.

1월31일 일본에 도착, 호텔에서 짐을 풀자마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도쿄(東京) 기타구 다바타의 한국절 명월사(주지 법인·천안 각원사주지) 법당에서 예불을 올린 전前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옛 일을 회상하며 배신감을 불심(佛心)으로 푼 최근 심경을 드러낸 인사말로 관심을 끌었다.

마치 법문처럼 이어진 인사말은 "올 2월이면 퇴임한지 12년째 되는데 그동안 외진 백담사에서 유폐생활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2년이 넘게 옥고를 치르기도 하는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어 "그때마다 배신감과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잠도 못이루고 몸도 상하는등 큰 고통을 겪었으나, 백담사 생활에서 배우고 체득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양을 하고 기도에 힘쓴 덕분에 평정심을 되찾았다"고 감회를 표명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자신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참회하며 이웃과 화합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고 제시했다.

전前대통령은 한일협력위원회 일본측 위원장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前총리의 초청으로 1월31일 부터 6일까지 일본에 머물면서 나카소네, 다케시타 前총리등 정재계 인사를 만났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뉴스 & 뉴스

27일 정계불자회 합동법회

정계불자회 합동법회가 열린다.

청와대불자회, 국민회의 연등회, 자민련불자회는 27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신년하례 합동법회를 개최한다.

이날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각 불자회 회원 2백여명등 총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불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청와대불자회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법회에서 고산스님이 법어를 한다.

김원우 기자

중신회 새회장 못찾아 고심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공동직무대행 김한곤, 홍옥진)가 회장 임기만료(3월15일) 1개월을 남겨놓고도 대의원 총회 일정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운영위원회 개최 일자도 결정치 못해 회장 공백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신도회 사무국은 2월안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새 회장 적임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무원쪽도 몇몇 인사를 만나 회장직 수락 의사를 전했으나 접촉하는 인사마다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운 기자

상여금을 불교병원 기금으로

불자 경영인이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직원들이 상여금의 일부를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으로 기탁해 화제다.

부산에서 수입공구 및 기기를 취급하고 있는 경화상사(대표 임행준) 임직원 15명은 지난해 연말 받은 상여금의 일부를 십시일반으로 모은 총 3백만원을 1월25일 동국대에 전달했다.

평소 직원들과 함께 불교TV를 보며 교리공부를 해왔다는 임행준씨는 "자비정신을 실천으로 옮겨 보자는 제안에 직원들이 모두 적극 동참을 해줬다"며 "적은 액수지만 불교종합병원을 건립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11일 불교TV 정기이사회

불교TV(대표이사 신허스님)는 3일 본사 회의실에서 '제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1일 '제25회 정기이사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55억여원의 99년 예산안 보고 및 98년 중간 결산 브고가 이뤄졌다. 또 이사 출연금 중간보고와 함께 26일 '제5기 주주총회'를 개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비대위에는 총지화 총지종통리원장 등 총 11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했다.

한편 불교TV노조는 이날 회의 결과를 공지할 것과 휴직 수당, 급여일 지체 대책, 출근부 관리 등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5일 전달했다. 또 노조는 '노조회보' 파사현정 1호를 발간 배포했다. 김주일 기자

훼불 세계적 관심사로

미종교학회, WCC등에 유감표명
한국정부에 항의서한도 보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훼불사건이 세계 주요언론의 관심사가 된 데 이어 미국 종교학회가 한국정부와 훼불사건 범인 또는 용의자가 소속된 보수적 개신교단,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학회의 회원인 진월스님은 1일 이같은 움직임을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혜, 송강스님)에 알렸다.

미국 종교학회는 한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에 훼불이라는 거처구니없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담고, 보수적 개신교단과 WCC에는 타종교 상징물과 신도에 대한 공격은 비기독교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월스님에 따르면 미국종교학회는 또 훼불에 대한 위로의 표시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벌여 1차로 모은 2만달러(약 2천4백만원)를 종교편향대책위에 2월중 전달한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이 위로금을 받기로 하고, 사용처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미국 종교학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해 11월 열린 정기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훼불을 주요 주제로 다뤘다.

미국 종교학회에는 미국내의 종교학자와 각국의 종교인 및 종교학자 등 8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제2 정화불사 매진"
정화의장 도성스님 성명

정화개혁회의 의장 도성스님은 1월 30일 성명을 통해 "원하 종정예하가 교시한 제2 정화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믿고, 전국적으로 궐기하여 불가의 병폐들을 척결하겠다"며 "제2 정화불사 성취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성스님은 성명에서 현재의 조계종단이 안고 있는 문제를 △종권과 이권을 탐하는 승려들의 증가 △위계질서의식 실종 및 화합 파괴 △개인축재 승려들의 증가 △세력있는 문중이 주지직과 종무직 독점 △스님들의 노후복지 전무 등 다섯 가지로 규정했다.

정성운 기자

정암사 수마노탑 기단 균열

탑신 · 옥개석등 백화현상…복구 시급

정선 정암사(주지 화광) 수마노탑(보물 제 410호)이 복원공사 후 탑 하단부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탑 아래부분이 벌어지는 등 복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암사 수마노탑은 지대석 균열로 1·3·4층 탑신과 옥개부 면석 이탈 등 훼손이 심해 95년 6월 정선군이 1억6천만원을 들여 7층탑 전체를 해체 복원했다.

해체 복원공사를 한 지 2년만에 수마노탑은 탑신과 옥개석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내부에 채워 넣은 석회가 흘러내리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단부 1층 탑신부분 일부와 중앙면 판석부분에 이완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표면 곳곳이 떨어지는 등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문화재 관계자들은 "흘러내린 강회를 세척하거나 수시 관찰 등 소극적인 대처보다 탑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춰 소중한 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마노탑은 선덕여왕 12년(643년) 자장율사가 정암사를 창건후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72년과 95년 두차례 전면 보수를 했다. 김중근 기자

대불청 내분 가시화

대의원총회서 '회장 불신임안' 논의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 이하 대불청)에 내분이 일고 있다. 대불청 대의원들은 1월 30~31일 열린 제16차 총회에서 이상대 회장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를 내놓고, '불신임안'을 제안했다.

경기·서울·경북·대구지구에서 배포한 공개질의서는 '종단과의 관계악화' '만해대학 운영실패' '법인화 과정에서 빚어진 물의' 등에 대한 이회장의 입장을 묻고 있다.

대불청은 매년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3천만원을 지원받아 왔지만 올해는 상당 금액 삭감됐다. 또 조계사로부터 사무실 퇴거 공문을 2차례 받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만해대학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이회장 '불신임안'은 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4개 지구는 중앙 집행부 퇴진 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관 팔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아놓았던 동관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자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꼭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발없는 발로 손없는 손으로 ②·끝

윤순복 (경북 영주시 휴천3동)



그림 · 문병성

마음공부 인연 방황하던 큰딸 출가 결심
나는 암을 이겼고 남편도 유순해졌다

88년 올림픽이 있던 해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전근을 오게 되었다. 시골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나와 아이들, 남편은 처음엔 많이 힘들어했다.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왔기에 말부터 쉽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지방마다 특색이 달랐던 탓에 외롭기도 많이 외로웠다. 지금은 10년을 살고 있기에 같은 도반들도 만나고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친숙해 졌지만, 그땐 외로움에 혼자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었다.

사춘기로 접어든 큰애는 더더욱 적응을 못했다. 또래보다 항상 더 예민하고 남다른 사고방식이 있던 딸애를 보며 난 늘 "네가 무슨 연애하다 실연당했냐, 맨날 창밖만 보면 뭐가 나오니?" 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그애 나름대로의 명상일 수도 있었고 어두운 집안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자기나름의 몸부림이었는지도 몰랐다.

이사를 와서도 어려운 것은 떡한가지여서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근처 공장에선 내가 약해보인다는 이유로 받아주질 않았다. 오대산에 살 때에 제방공사에 나가 그 큰 돌들도 나르고 산곡대기까지 벽돌을 나르기도 했는데 우선은 몸이 약해보인다는 이유로 매번 거절당했다. 그러다 우연히 처녀시절 친구를 만났는데 방직공장을 경영한다기에 체면불구하고 부탁을 해서 취직이 되었다.

2교대로 일하는 곳이어서 밤에 일할땐 배가 몹시 고팠다. 라면 살 돈도 아끼던 때였다. 건빵이라도 생길 때면 그걸 가방에 넣고 만지고 또 만지기만 하기를 여러 날. 더 힘들고 배고플 때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그후로 거쳐간 많은 곳들. 성냥공장, 푸대자루 만드는 곳, 사기그릇공장…, 지금 다니는 경양식 주방까지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 아이들은, 특히 큰애는 더욱 고립적으로 되어가는 듯했다. 큰애는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큰 방황을 했었다.

마음 공부와의 인연도 그때에 닿았다. 하루는 놀고 먹는 딸애를 매우 겨슬려 했던 남편이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는 코뼈가 휘도록 때렸다. 그후로 집을 나가기 시작한 딸. 어느 곳에서 밥은 먹는지, 남자에도 아니고 하니 엄마로서 걱정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 집을 나간후 한참만에 돌아온 말은 큰 빚을 지고 왔다. 카드빚에 여기저기 빌려쓴 돈을 남편 모르게 갚아나가야 했기에 생활은 더욱 힘들었다. 어느 때인가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매월 주던 생활비 20만원도 주지 않았다. "잘 키운 너년 딸 잘난 니가 책임져"라고 한마디 한 후로 말이다.

작은 애들은 또 그 틈에서 크느라 저희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지만 별 무리없이 자라 엄마를 덥 고생하게 해주었다. 돌째가 대학을 가던 해 유난히 술주사가 심하던 남편은 아이들이 오지 않은 어느날 창문에(아파트 5층) 날 반을 넘긴 채 죽이겠다고 했다. 살려달라고만. 그저 살려달라고만 빌었다. 다 내가 잘못한 것이니 용서하라고 말이다. 죽는 건 겁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갈을 빚 때문에 그냥 죽을 순 없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한마음 주인공을 절실히 관하게 된 계기가 생겼다. 내가 자궁암에 걸린 것이다. 유전적으로 생긴 자궁암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그 자리에 모든 걸 말길 수 있었다. 아침이면 숟가락 하나 들 수 없어도, 몸이 그대로 가라앉을 것 같은데도 남편의 그 삼한 면박을 받느니 일하다 죽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영원한 진리인 불법을, 그토록 심오한 이 법을 그때 난 너무도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다. 열심히 남편도 관하고 큰딸도 관하고 우리가족 한마음 되기를 열심히 관했다. 한 8개월을 그렇게 병원 한번 가보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자성부처인 한마음 주인공에게 맡겼다. 남 공부 시키고, 내게 관을 가르쳐주신 큰스님 덕으로 생각한다. 눈물겹게도 눈물겹게도 병이 나아진 것이다. 이 어찌 기복이라고 하겠는가. 나 스스로 그 큰 법의 맛을 봤는데 말이다. 그 후로는 남편도 눈에 띄게 유순해져 가고 이젠 술이 취해도 한마디 주사없이 잠자리에 든다.

하루는 참선 중에 동해바다의 바닷물이 하늘로 몇번이나 용솟음쳐 오르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시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이제는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내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기에 말하다. 그분이나 남편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한줄이기에, 한마음이라 생각한다.

더욱 날 정진하게 도와준 또 하나의 스승인 큰딸애가 작년 겨울부터 착실히 마음공부를 하더니 지난 달에는 큰스님 친견 때 허락을 받고 주지스님의 도움을 받아 부처님의 제자로, 큰스님의 제자로 가게 되었다. 세상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형상만 우러르지 말고 내 안의 그 부처를 꼭 이루기를 바란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큰애는 절로 간다. 부처님과 내가, 큰 여러 스님들과도 이 우주의 모든 만물만생이 다 나와 둘이 아님을 알았기에 큰애를 슬픔 없이 보낼 수 있다. 사실 보내고 남고 할 것도 없다. 나 역시 영원히 부처님 법 안에서 열심히 관하며 살테니까.

> "남편이나 나나 모두가 한줄이고 만물만생이 나와 둘 아님을 알았기에 이젠 감사할뿐…"

PCS 016 우수통화품질 입증기념 "016 Free & Free 대축제"

1,000분 무료 통화에 최신 PCS폰까지!



「으뜸 통화품질 챌린지」 및 언론을 통해 통화품질을 입증받은 정보전화 016 - 추천한 고객과 추천받은 고객에게 총 1,000 분의 무료통화를 드립니다. 또한 신용카드요금납부 등의 조건으로 신규가입하시면, 최신 PCS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별한 016의 Free & Free 행운 - 놓치지 마세요!

free 1 최대1,000분 무료통화 대축제

■행사기간 : 1999년 1월 22일~ 2월 20일(추천은 2월 19일까지만 가능)
■행사대상
-추천고객-1999년 1월 21일 현재, 정보전화 016고객 (사용정지중인 고객 제외)
-추천대상고객-추천고객으로부터 가입추천을 받아 행사기간중 신입가입한 고객 (중고단말기, 프리폰/핸달폰 가입고객 제외)
■행사내용
-추천받은 신규고객이 행사기간내에 정보전화 016에 신규가입한 경우 무료통화 160분 추천고객에는 신규고객 1명당 무료통화 100분씩 (최대200분)을 드립니다.(5명까지 추천가능)
-추천받은 고객은 추천일 다음날로부터 행사종료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무료통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당일 가입시 무료통화 혜택 없음)
-신규가입하시기 전에 본인이 추천등록되었는지 여부와 신규가입 직후 무료통화혜택이 부여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추천/추천여부확인 : 02)3402-0000 또는 한국통신프리텔 전국 대리점
추천기간 : 09:00~ 22:00 공휴일도 가능)
-이미 정보전화 016에 가입한 고객께리의 추천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ree 2 최신 PCS폰을 패키지로 제공

행사기간 내 아래의 3가지 조건으로 가입하시면, 최신 PCS를 패키지로 드립니다.
■행사기간 : 1999년 2월 1일-2월28일
■가입조건 : - 요금납부방법 : 신용카드 또는 KT합신창구
- 요금서비스 : 프리200이상 (프리300, 프리400포함)
- 정보서비스 : 1개이상 가입
※개통일로부터 6개월간 명의변경 및 일시정지 금지
(최신PCS 제공행사문의 : 080-016-0000 또는 한국통신프리텔 전국대리점)
■제공용 PCS폰





016 요금세상

구분	기본료(월)	통화료(원/10초) 이태랜드를 할인 통화			일반통화			비 고
		평상	할인	심야	평상	할인	심야	
에이스	19,500	15	14	13	18	14	13	주간에 많이 이용하는 경우
표준요금	16,500	17	14	10	19	15	10	처음 이용하시거나 하루2-7통화 이용시
프리200	36,000	16	13	10	18	14	10	기본료 36,000에 200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프리300	45,000	15	12	10	17	13	10	기본료 45,000원에 300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프리400	53,000	11	10	9	15	12	9	기본료 53,000원에 400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라이트	13,000	34	25	18	35	26	18	하루1통화 이하 이용시
스페셜	13,000	35	8	8	36	9	9	회근 후나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 경우
비지니스	5-20회선	16,500	15	13	9	17	14	10
	21-50회선	16,500	14	12	9	16	13	10
	51-100회선	16,500	13	12	9	15	13	9
	101회선	16,500	12	11	9	14	12	9

상기요금은 99.2.1 기준임



평일시간대 오전 8시-오후6시 할인 시간대 오전6시-8시 심야시간대 오후 10-오전6시

신청방법
▶서울 : 02)732-1522, 737-8881로 전화주시면
▶신분확인후 즉시 개통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됩니다.

전화 : 02) 732-1522, 737-8881
팩스 : 02) 737-0697
우편번호 110-170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PCS 016 담당자앞

한국통신프리텔